

제15회 고려청자 학술 세미나

最近 出土 康津 高麗靑瓷의 意義

- 일시 : 2013년 7월 31일(수) 13:00
- 장소 : 강진청자박물관 도예문화원 시청각실
- 주최 : 강진청자박물관
- 주관 : 민족문화유산연구원



## 진행순서

▶ 접수와 등록 (12:00~13:00)

▶ 개회식 (13:00~13:20)

▶ 주제발표 (13:20~17:20)

사회 : 강경인 (강진청자박물관 연구개발실장)

○ 13:20~13:50 강진 사당리 43호 청자요지의 구조와 성격  
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 13:50~14:20 강진 사당리 43호 요지 출토 청자의 현황과 성격  
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 14:20~14:50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출토품의 현황과 성격  
이종민(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14:50~15:00 휴식

○ 15:00~15:30 강진 월남사지 출토 고려청자의 현황과 성격  
백은경(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 15:30~16:10 당송시기 절강지역 청자 요의 구조와 변천에 대한 간략 분석  
項坤鵬(北京 古宮博物院 研究員)

○ 16:10~16:20 휴식

○ 16:20~17:20 종합 토론

토론 좌장 : 김재열(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토론 : 전승창(아모레퍼시픽미술관 관장)

김현정(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은정(강진청자박물관 학예연구사)



# 목 차

- 康津 沙堂里 43號 靑瓷窯址의 構造와 性格 ..... 1  
韓盛旭(民族文化遺産研究院)
  
- 康津 沙堂里 43號 窯址 出土 靑瓷의 現況과 性格 ..... 31  
張南原(梨花女子大學校 美術史學科)
  
- 康津 龍雲里 63號 靑瓷窯址 出土品의 現況과 性格 ..... 55  
李鍾玟(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 康津 月南寺址 出土 高麗靑瓷의 現況과 性格 ..... 81  
金眞姬(民族文化有産研究院)  
白恩卿(國立海洋文化財研究所)
  
- 唐宋時期 浙江地域 靑瓷 窯의 構造와 變遷에 對한 簡略 分析 ... 107  
項坤鵬(北京 故宮博物院 研究室)
  
- 討 論 文 ..... 149  
田勝昌(아모레퍼시픽미술관)  
金炫廷(國立中央博物館)  
曹銀精(康津靑瓷博物館)



# 康津 沙堂里 43號 靑瓷窯址의 構造와 性格

韓盛旭(民族文化遺産研究院)

## 목 차

1. 머리말
2. 康津 靑瓷窯址의 歷史的 背景과 現況
3. 康津 沙堂里 43號 靑瓷窯址의 構造와 性格
4. 맺음말

### 1. 머리말

고려청자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가장 잘 대변하는 翡色靑瓷와 象嵌靑瓷를 완성하고 발전시켰던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에 대한 발굴조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이제까지 10여곳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미흡할 수 밖에 없다.

강진은 고려시대 道康縣과 耽津縣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 청자를 생산하였던 大口所와 七良所는 탐진현 내에 있었다. 이들 “所”는 국가 재정과 물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되었으며 국가의 통제와 토착 세력의 관리 아래 품질이 관리되었다. 특히, 탐진현은 청자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그 기술이 유입되어 퇴장하는 시기까지 청자를 생산하고 발전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고려청자窯場이다. 강진은 도기를 만들던 전통적인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선진 도자 기술을 받아들여 독보적인 비색청자와 상감청자를 완성하였던 곳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따라서 강진청자와 고려청자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강진청자의 변천사가 고려청자의 변천사이며, 고려청자의 변천사가 강진청자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다. 청자 가마터 역시 향후 강진에 소재하는 가마터를 체계적으로 발굴조사하여 연구한다면 청자 가마의 운영과 번조 방법, 구조 등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강진군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마의 성격을 규명하고 유적의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 문화 자원과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 사당리 43호와 용운리 63호 청자요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사당리 43호는 유구가 잘 남아 있었으나 용운리 63호는 가마의 뒷부분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구가 잘 남아 있어 고려중기의 청자 가마 구조를 알려주고 있는 사당리 43호 요지의 구조와 그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 2. 康津 靑瓷窯址의 歷史的 背景과 現況

### 1) 康津의 歷史的 背景

강진은 조선 태종대(1400~1418년) 道康縣과 耽津縣이 통합되면서 등장한 명칭이다. 따라서 고려시대는 도강현과 탐진현이 각각의 행정구역을 갖추고 있었으며, 청자를 생산하였던 大口所와 七良所는 탐진현 내에 있었다. 강진지역은 832년(신라 진성여왕 6) 甄萱이 光州를 중심으로 전남 지방에 後百濟를 건국하면서 그 세력권에 편입되었으며 고려가 건국되면서 새로운 행정변화를 겪게 된다.

고려 초기 강진지역의 행정변화는 940년(태조 23) 신라통일기에 大郡이었던 陽武郡이 道康郡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속현이었던 耽津縣을 인접한 靈巖郡에 넘겨주고, 이후 1018년(현종 9) 道康郡이 속현이던 黃原·海南(浸溟)·竹山(固安)縣과 함께 영암군의 속현으로 포함되면서 독립된 행정영역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1124년(인종 2) 영암의 속현이던 定安縣이 長興府로 승격되면서 영암에 속해 있던 耽津縣이 장흥부로 移屬된다. 이 변화를 보면 고려 이전까지 영암·해남·강진을 아우르는 大郡이었던 강진지역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 1018년 독립 행정영역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 건국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영암 세력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전남지역의 경우 羅州와 靈巖, 靈光 등이 성장하고 있어 이들에 의해 전남지역의 행정 체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영암군은 현재의 영암과 강진, 해남, 장흥 등을 묶는 커다란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호남 서남부의 행정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고려초 대대적인 행정개편은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전남지역의 토착 세력을 아우르고 그 기반을 확고히 다져가는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중심지로 나주·영암·영광 등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sup>1)</sup> 한편, 영암은 고려 전기 청자 생산의 중심지인 耽津縣과 黃原郡(현 海南郡 山二面과 花源面)

1) 李海濬 「康津郡의 沿革」 『康津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 1989.



을 영역에 포함하고 있어 도자 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비된 행정체계는 조직적인 편제는 아니었다. 많은 郡縣들이 頡屬關係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강진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지방관제는 중앙정부의 힘이 말단 군현까지 미치지 못했으며, 후기로 내려오면서 점차 監務를 과견하여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다. 감무란 縣丞을 과견할 수 없는 작은 縣의 감독관과 같은 것으로 道康縣은 1172년(명종 2) 主縣으로 승격되면서 감무가 과견되었다. 그러나 大口所가 있던 탐진현은 감무가 과견되지 않고 靈巖과 長興의 속현으로 관리되었다. 따라서 지역 세력집단인 耽津 崔氏와 主縣의 세력집단으로 탐진 최씨와 정치적 유대 관계에 있던 장흥의 定安 任氏 등이 강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많다.<sup>2)</sup> 이를 입증하듯 장흥지역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靑瓷象嵌透刻龜甲文箱子를 비롯한 고품격 청자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 그 위상을 느낄 수 있다.<sup>3)</sup> 한편 최근 泰安 竹島(대섬) 해저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에서 ‘崔大卿’과 ‘安永’ 등의 목간이 출토되었는데<sup>4)</sup> 이들은 모두 탐진현의 토착세력들이다.<sup>5)</sup> 따라서 탐진현에 설치되었던 대구소와 칠량소 역시 탐진현의 토착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발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sup>6)</sup>

강진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어 일찍부터 해로가 발달하였다. 해로의 발달은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 의미는 컸으며 서남해를 통과하는 해로는 국제문화의 交易路로서도 매우 주목되었다. 이는

2) 李海濬 「康津地域 高麗靑磁의 發達 背景」 「康津의 靑磁窯址」 海剛陶磁美術館, 1992, p.368.

3) ①木浦大學校博物館 「장흥댐 發掘 遺蹟과 遺物」 2007.

②木浦大學校博物館 「長興 天冠寺」 2009.

③韓盛旭 「長興 茅山里出土 靑瓷象嵌透刻龜甲文箱子 一括遺物」 「長興文化」 17, 長興文化院, 1995.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대섬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09.

5) ①「新增東國輿地勝覽」 37卷, 康津縣 姓氏條; 耽津 崔曹俞安鄭河, 康朴 모두 來姓이다. 大口 徐, 七陽 白.

②「世宗實錄地理志」 康津縣條; 耽津姓六, 崔曹俞安鄭河; 來接姓二, 康[幸州來]·朴[靈巖來] …, 大口所續姓一, 徐, 七良所續姓一, 白.

6) 특히 泰安 竹島 해저유적은 耽津縣이 長興都護府로 행정체계가 변환된 이후의 출항선으로 耽津 崔氏의 세력이 강했던 시기이다.

耽津의 지명이 耽羅(현 濟州)와의 해상 교류 때문에 생긴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해로를 통한 문화교류가 본격적인 궤도에 이른 시기는 고려 시대였으며 강진지역의 문화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로의 발달은 강진의 청자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해상교통의 발달은 강진지역 문화 발달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었으나 麗末鮮初에 이르면 왜구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하였으며 결국 강진 도자문화의 쇠퇴를 가져온다. 즉, 이 시기의 왜구침입은 전라도의 해안과 도서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長興과 珍島 등의 治所가 내륙으로 이동하며, 해안으로부터 50리 이내에는 주민을 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였다. 특히, 충정왕 2년(1350)부터 시작된 왜구의 본격적 침입은 해상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며 곡창의 중심지인 남해 연안의 전라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왜구의 잦은 침략은 남해안에 위치한 大口所에도 큰 타격을 주어 도자 생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匠人의 流離를 더욱 재촉하여 대구소 생산 청자의 품질을 더욱 하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는 왕실용 청자인 '正陵'銘靑瓷의 질적 하락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고려후기 쇠퇴를 거듭한 강진지역은 조선시대가 되면 도자 생산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전기의 기록인 『世宗實錄地理志』와 『經國大典』의 문헌에 자기생산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 점차 퇴보하던 강진지역의 도자생산은 조선 건국 이후 완전히 쇠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의 기록에서도 강진지역은 土産과 物産, 方物條에 도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그 역할이 민수용으로 매우 미미하였으며 생산기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라도 해안지역이 유사한 양상으로 조선시대에는 내륙의 靈巖과 羅州 등에 많은 沙器匠이 배치되고 있다. 즉 대몽항쟁과 왜구의 침입으로 大口所 등의 瓷器所가 해체되어 도자생산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전남지역에서는 이 역할을 내륙지역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康津 高麗靑瓷 窯址의 調査 現況

강진지역은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가장 독보적 생산지로 窯場은 大口面(史蹟 第68號) 일대와 七良面 三興里(記念物 第81號) 일대에 분포한다. 이중 핵심은 大口面 일대로 특히 龍門川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이곳은

1914년 처음 알려지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 도자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제작된 청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들로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7)</sup>大口面 가마터는 크게 龍雲里(75기)와 桂栗里(59기), 沙堂里(43기), 水洞里(6기)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가마터는 龍門川 상류인 용운리에서 발생하여 용문천을 따라 해안의 사당리까지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가마터는 200여기로 한반도 청자가마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청자 발생기부터 14세기 쇠퇴 소멸기까지 고려시대 전 기간 동안의 요지가 조사되고 있다. 七良面 三興里 요장(5기)은 삼흥저수지 주변과 저수지 동남쪽 南山마을 주위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대구면 가마터와는 天台山을 경계로 바로 인접하여 있다. 칠량면 역시 국가의 통제를 받았던 자기소 가운데 ‘七良所’가 있었던 곳으로<sup>8)</sup> 고려 청자 가마터와 조선 분청자 가마터 등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7) ①姜景仁 「史蹟 68號 高麗靑磁陶窯址에서 出土된 靑磁破片에 關하여」 全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②康津郡民族文化有産研究院 『康津 沙堂里 43號·龍雲里 63號 高麗靑磁窯址 發掘調査 略報告書』 2013.

③康津文化院 『康津의 歷史와 文化』 1989.

④康津文化院 『高麗靑磁 文化와 康津』 1990.

⑤康津靑磁資料博物館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郷-銘文·符號 特別展-』 2000.

⑥國立光州博物館 『康津 三興里窯址』 II, 2004.

⑦國立光州博物館 『千年的 歲月, 그 빛 날다-康津 三興里 가마터 出土 遺物展-』 2006.

⑧國立中央博物館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圖版編本文編, 1996-1997.

⑨東邦文化財研究院 『康津 大口面 陶窯址 綜合整備計劃 學術研究用役 地區 內 文化財 地表調査報告書』 康津郡, 2011.

⑩朴敏子 「14世紀 康津 磁器所의 解體와 窯業 體制의 二元化」 『美術史學研究』 238·239, 韓國美術史學會, 2003.

⑪尹龍二 「康津郡의 陶窯址」 『康津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 1989.

⑫朝鮮官窯博物館 『康津 龍雲里 데마파크 造成敷地 內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2008.

⑬崔淳雨 「康津 沙堂里 窯址 出土 靑磁瓦」 『美術資料』 9, 國立中央博物館, 1964.

⑭崔淳雨 「康津 沙堂里出土 靑磁象嵌 發願文片」 『考古美術』 63-64, 韓國美術史學會, 1965.

⑮崔淳雨 「康津 沙堂里窯址 出土 高麗靑磁磚」 『考古美術』 89, 韓國美術史學會, 1967.

⑯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⑰湖南文化財研究院 『康津 三興里窯址』 I, 2004.

8) 『世宗實錄』 地理志, 康津縣條; 所八 山計 山深 大谷 大口 七良 種玉 舊溪 富元.

강진의 고려청자 요지가 처음 학술적으로 조사된 계기는 1913년 봄 대구면 주재소에 근무하던 中島義軍이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청자 가마터를 발견하여 총독부에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다음 해 1914년 李王職博物館의 末松熊彦에 의해 대구면 일대와 칠량면에서 최초의 학술적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16년에는 朝鮮總督이 방문하였다. 이때 京城日報에 강진 고려청자 요지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면서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25년 中尾萬三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27년 朝鮮總督府博物館의 野守健과 小川敬吉 등에 의해 대구면 일대의 청자요지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가 진행하면서 계율리 25호에 대한 발굴조사도 실시하였다. 1928년 정밀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청자요지 분포도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1939년 10월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에 의거 면적 187,582평에 100여기의 가마가 古蹟 제107호로 지정되었으며, 해방 이후 1963년 문교부 고시에 의해 史蹟 제68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방 이후 강진 고려청자 요지에 대한 조사는 일본인 학자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1954년부터 간헐적으로 실시되었으나 본격적인 조사는 1963년 겨울 사당리 117번지 일대에서 청자 기와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청자 기와의 발견은 『高麗史』에 養怡亭과 觀瀾亭을 靑瓷瓦로 덮었다는 기록의<sup>9)</sup> 실증 자료와 그 제작지가 사당리로 확인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이를 계기로 1964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사당리 117번지 일대가 조사되어 청자 기와 뿐만 아니라 靑瓷陶板과 靑瓷塼, 靑瓷鬼面瓦 등이 출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1973년과 1974년, 1977년에는 사당리 41호 요지에서 청자요 1기와 공방지 1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1980년부터 1982년까지는 당전저수지 축조로 수몰되는 용운리 9호와 10호가 조사되어 모두 4기의 요지가 확인되었다. 이들 가운데 10-1호는 국립광주박물관에 이전 복원되었으며, 10-4호는 강진청자박물관에 이전 복원되어 있다. 2002년에는 국립광주박물관과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칠량면의 삼흥리 가마가 조사되어 토기 가마 9기와 청자 가마 5기, 불명 1기 등 모두 15기가 조사되어 삼흥리 일대가 고려시대에 대단위 요업단지였음이 확인되었다. 2012년에는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서 사당리 43호와 용운리 63호의 발굴조사

9) 『高麗史』第18卷, 世家 第18, 毅宗 丁丑 11年(1157) 4月 丙申條.

를 실시하였다.<sup>10)</sup>

지표조사는 1982년 우리나라 고려청자 요지의 분포와 함께 강진 청자 요지 153개소에 대한 분석과 소개가 이루어졌다.<sup>11)</sup> 이후 강진군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면서 강진 고려청자 요지에 대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sup>12)</sup> 1991년에는 강진군의 의뢰로 해강도자미술관에서 대구면 일대와 칠량면 삼흥리 청자요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187개소의 요지와 수습유물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sup>13)</sup> 2007년에는 용운리 일원에 대한 테마파크 조성 계획에 따라 용운리 일대 청자요지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폐기장 등 유물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요지의 범위를 지형 등을 고려하여 표기하였다.<sup>14)</sup> 2010년에는 강진 대구면 도요지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재차 대구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sup>15)</sup>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조사는 미흡한 수준이며,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5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현상변경이 이루어진 곳이 많고 새롭게 80여기의 요지가 추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와 보존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강진 고려청자 요지는 1994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지금까지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 3. 康津 沙堂里 43號 靑瓷窯址의 構造와 性格

#### 1) 康津 沙堂里 43號 靑瓷窯址의 現況과 構造

강진은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요장으로 대구면 일대와 칠량면 삼흥리 일대에 분포하는데, 특히 용문천을 중심으로 하는 대구면 일대에서 발달하였다. 대구면에 분포하는 가마터는 지역에 따라 용운리와 계율

10) 康津郡·民族文化有産研究院 『康津 沙堂里 43號·龍雲里 63號 高麗 靑瓷窯址 發掘調査 略報告書』 2013.

11) 崔淳雨 『韓國靑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12) ①南道文化財研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康津郡-』 2004.

②木浦大學校博物館 『康津郡의 文化遺蹟』 1989.

13)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14) 朝鮮官窯博物館 『康津 龍雲里 테마파크 造成敷地 內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2007.

15) 東邦文化財研究院 『康津 大口面 陶窯址 綜合整備計劃 學術研究用役 地區 內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康津郡,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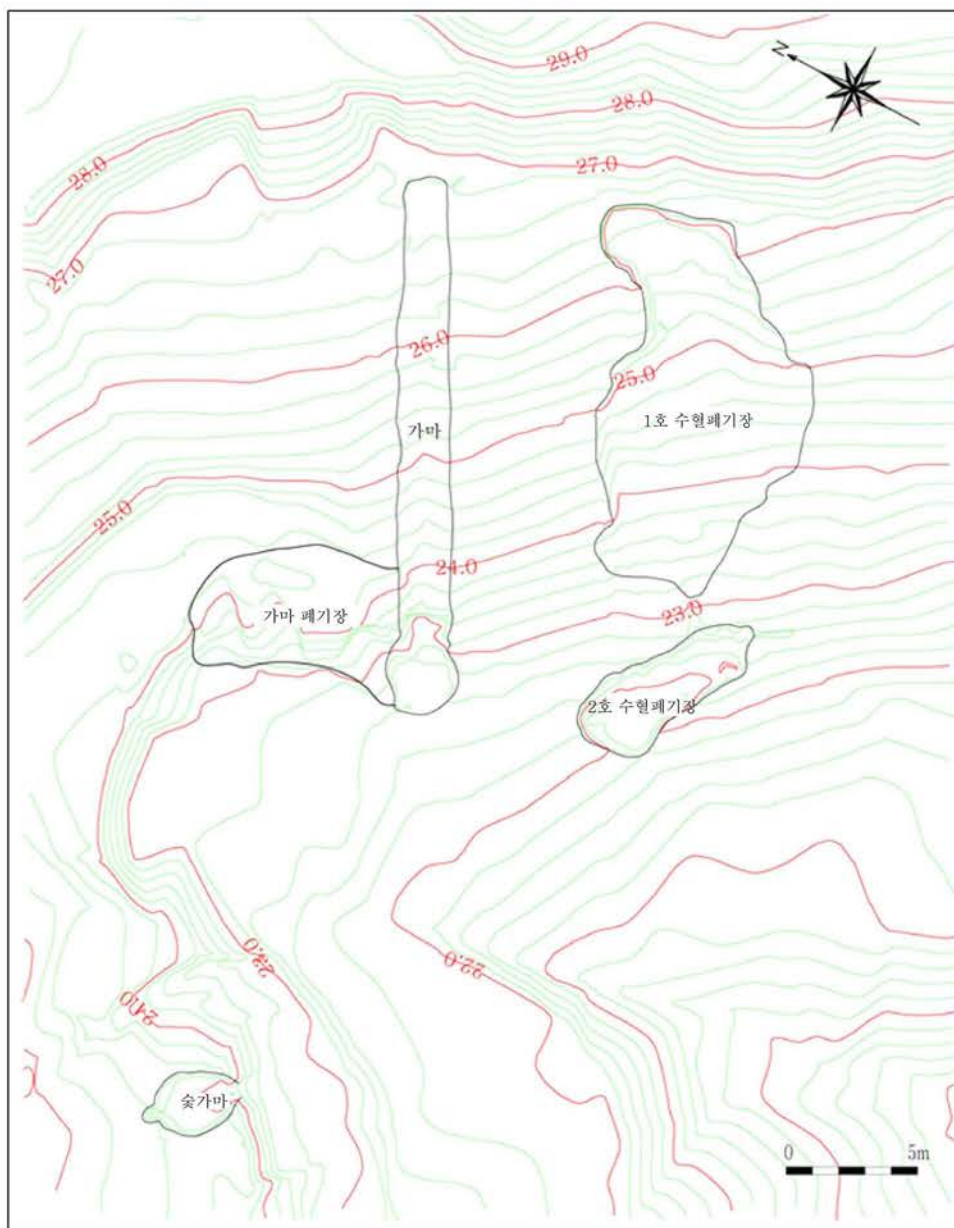
리, 사당리, 수동리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사당리는 용문천 하류의 비교적 넓은 들을 지나 여계산 산록 남쪽과 용문천 사이에 위치한다. 이곳은 고려시대에 가장 양질의 청자를 제작하였던 청자의 절정기(전성기)를 대표하는 곳으로 국립박물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청자 기와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천(용문천)의 침식과 비교적 넓은 들판에 위치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전담으로 개간되어 훼손된 곳이 많다. 사당리가마터는 1964년부터 8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완벽한 구조의 가마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2년 발굴조사를 실시한 사당리 43호 청자요지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가마의 구조가 잘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가마터로 조사 결과 평면 구조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고려 중기 청자 가마를 비롯하여 폐기장과 숯가마 등이 확인되어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도면 1. 조사지역 지형도(1872년)    도면 2. 조사지역 지형도(1917년)



사진 1. 사당리 43호 청자요지 원경    사진 2. 사당리 43호 청자요지 전경



도면 3. 사당리 43호 청자요지 유구 분포도

(1) 가마

조사지역은 대부분 자연 암석이 지표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유적은 등고선과 직교하여 위치하고 있다. 가마는 조사 대상지의 북동 방향에 있

으며 여계산 남쪽 사면 말단부의 해발 21.31~26.87m에 위치한다. 이곳은 1970년대 초까지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어 주택과 경작지가 들어서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철거되고 수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였다. 지표상의 수풀을 제거하자 경작을 위해 쌓았던 석축이 확인되었으며 가마는 이들 석축이 형성된 곳의 오른쪽 경사면에 삭평이 심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그리고 사당리 43호 청자요지는 내부 조사결과 축조이후 크게 2차례에 걸쳐 수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마의 잔존 상태는 요전부, 아궁이, 봉통부(연소실), 불턱, 번조실(소성실), 초벌칸 등이 남아 있으나, 후대의 경작으로 인해 상부 구조는 훼손된 상태이다. 가마 내부에는 적갈색 소토층과 자기편, 가마 벽체편, 갑발편, 도지미 등 가마 생산과 관련된 폐기물이 퇴적되어 있었다. 가마의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우며, 잔존 상태로 보아 반지하식 단실 등으로 판단된다. 가마의 총길이는 20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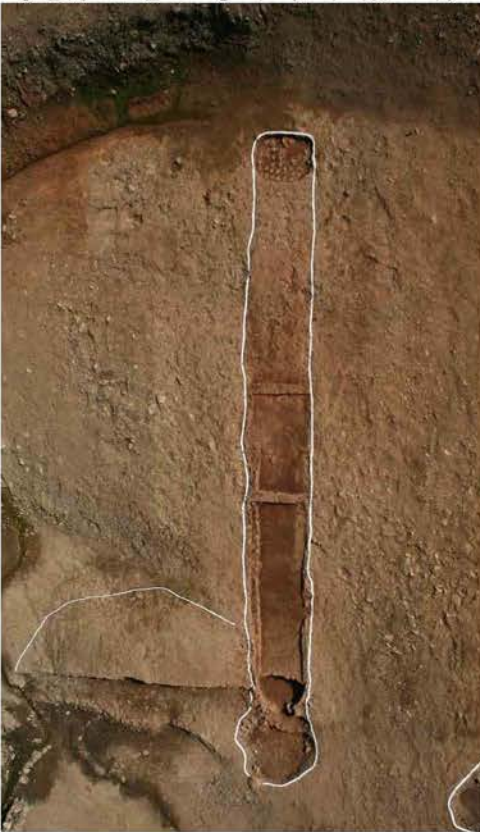


사진 3. 사당리 43호 청자요지 근경

<표 1> 가마 세부 현황

(cm)

명칭	길이	너비	깊이
요전부	260	242	(13~30)
아궁이	.	46	(27)
봉통부	126	160	(53)
불턱		154	53
번조실	1,490	154 ~194	(5~32)
초벌칸	126	168	(11~19)
합계	2,002		

#### ① 窯前部

요전부는 작업 공간으로써 지표면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기반층을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요전부의 좌측은 갑발을 이용하여 요전



부의 벽을 형성하였고, 우측은 석재를 이용하였다.

요전부 퇴적 양상은 봉통부에서 빼낸 재와 숯 등의 폐기물이 바닥에 깔린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봉통부에서 가까운 곳의 바닥은 딱딱하게 소결된 듯한 양상을 보인다.



사진 4. 사당리 43호 요전부 전경

## ② 봉통부(燃燒室)

봉통부는 평면 반타원형의 형태를 띠며 봉통부에서 번조실로 연결되는 곳에는 90°에 가까운 경사의 높은 불턱이 형성되어 있다. 불턱은 완형의 갑발을 4단으로 쌓은 후에 갑발 사이와 외부로 노출된 갑발 외면에 점토를 발라 불턱을 만들었다. 잔존 깊이 27cm의 아궁이 벽면은 갑발편과 점토를 쌓아 만들었으며 입구에서 확인되는 석재들은 火口의 이맞돌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5. 사당리 43호 봉통부 세부



사진 6. 사당리 43호 불턱 세부

봉통부의 수축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 Tr.를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VII층으로 구분되며 3개의 조업층이 확인되었다. 최상층인 I층은 3차 조업면으로 두께는 20~30cm정도이며, II층에서는 갑발과 자기편, 소토편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III층은 붉은 소토편으로 일부를 정비하고 평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IV층은 많은 할석들과 자기편 등이



사진 7. 사당리 43호 봉통부 조사

출토되었으며 유리질화되어 매우 단단한 편이다. V층은 적갈색사질퇴적토와 일부 소토가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 VI층은 재층으로 바닥면 위에 얇게 퇴적되었다. VII층은 바닥층으로 두께는 10~50cm 정도로 매우 두꺼운 편이다.



사진 8. 사당리 43호 봉통부 Tr. 토층 양상

### ③ 燔造室

번조실은 13~15°내외의 완만한 경사를 가진다. 번조실의 바닥은 풍화암반층 위에 사질점토를 다져올려 가마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고운 모래를 깔았다. 부분적으로 소결층이 확인되며 봉통부에 가깝게 위치한 모래들은 유리질화되어 굵은 알갱이 상태로 노출되었다. 모래층 위로 도지미와 갑발을 두고 번조한 흔적들이 남아 있다. 번조실 바닥은 소결 양상이 흑색을 띠며 단단한 부분은 3군데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뚜렷한 출입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아있는 벽체의 높이는 10cm 내외로 북벽은 갑발을 2단으로 쌓은 상태로 남아있으나 남벽은 유실이 심해 갑발이 남아있지 않다. 특히 번조실에서는 가마가 폐기된 후 인위적으로 가마 내부를 매립한 흔적이 확인되어 대구소 가마의 운영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관요 운영과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 특징적이다.



사진 9. 번조실 세부



사진 10. 번조실 벽체 세부



사진 11. 번조실 Tr 전경

번조실은 가마의 축조와 수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에 2개의 탐색 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초벌칸 아래쪽부터 Tr 1과 2로 이름하였다. Tr 1은 길이 500cm, 너비 50cm로 Tr.조사를 실시한 결과 크게 5층으로 구분되었다.

I 층은 가마 바닥으로 두께는 20~30cm 정도이며, 번조실 앞부분에 비해 그 두께가 얇은 편으로 배연부로 갈수록 불의 세기가 약해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II 층은 총 6층으로 세분화되며, II-1 층은 다량의 석재편, 갑발편, 자기편 등이 출토되고 있다. II-2·3 층은 적갈색 점질토층으로 2층에서만 할석편들이 확인되고 있다. II-4·5 층은 소토알갱이와 다량의 자기편, 갑발편이 혼입되어 있으며, II-6 층은 적색점질토층으로 부분적으로 숯이 포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II 층은 2층으로 세분화된다. III-1 층은 석비레 알갱이가 다수 혼입되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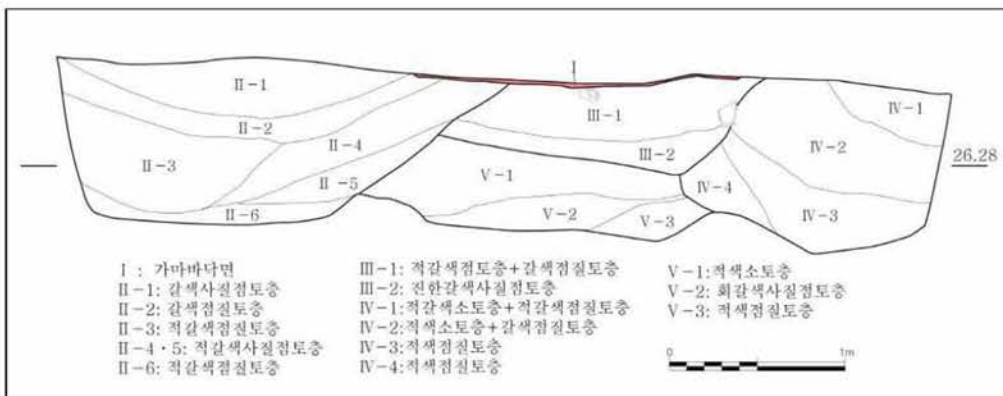
상면에서는 자기편과 갑발편이 소량으로 확인되고 있다. III-2층은 점질토가 덩어리져 확인되는 양상을 보이며, 소토알갱이와 할석이 다수 확인된다.

IV층은 4층으로 세분화된다. IV-1층은 나무뿌리로 인한 풍화작용이 일어난 양상이며, 적갈색의 소토가 확인되었다. IV-2층은 석비레알갱이, 소토편, 할석이 확인되어 있어 III-2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IV-3층은 소수이지만 목탄알갱이가 확인되었다. IV-4층은 3층과 비슷한 양상이나 목탄알갱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V층은 3개층으로 세분화된다. V-1층은 적색 소토알갱이층이며, V-2층은 자기편과 벽체편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V-3층은 적색점질토층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 12. 사당리 43호 번조실 Tr.1의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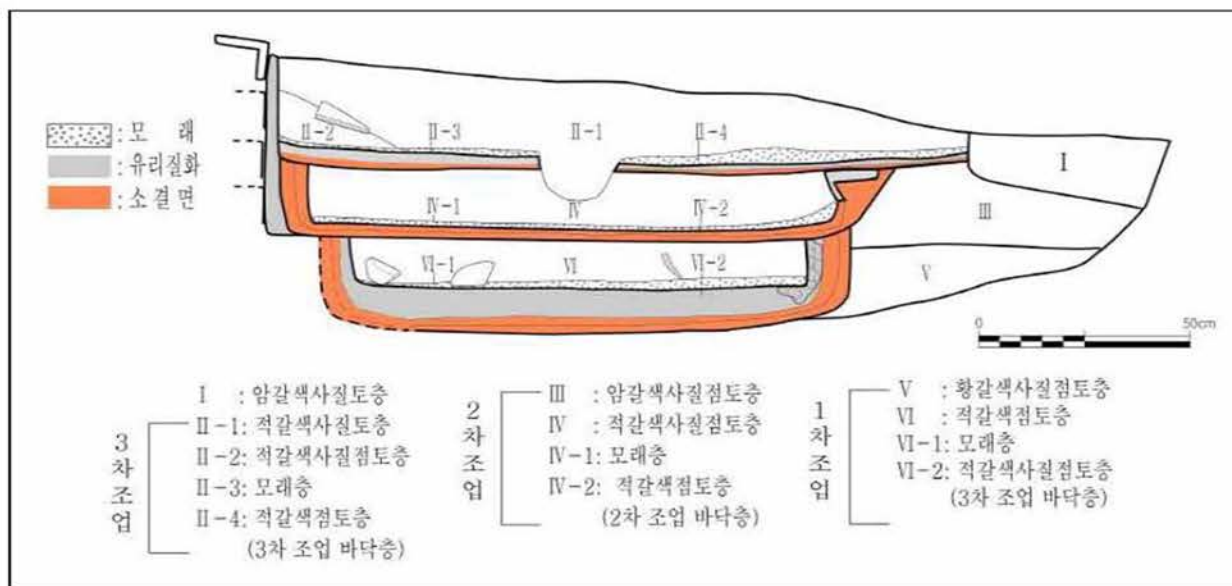


도면 4. 사당리 43호 번조실 Tr.1의 토층도

Tr. 2은 길이 165cm, 너비 50cm로 구획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마 벽체 외부로 길이 35cm, 너비 50cm로 확장하여 조사하였다. Tr. 조사 결과 3차례에 걸쳐 조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사진 13. 사당리 43호 번조실 Tr.2의 토층



도면 5. 사당리 43호 번조실 Tr.2의 토층도

I 층은 후대의 나무뿌리로 인해 3차 가마의 바닥이 일부 유실되었다. II 층은 가마의 3차 조업이 이루어진 곳으로 2차 가마 벽체를 파괴한 후에 조성되었다. 가마 너비는 190cm 정도이다. II-1 층은 가마가 폐기된 후 후대에 덮힌 퇴적토와 소토와 벽체편이 혼합된 상태로 퇴적되었다. II-2 층은 폐요 이후 벽체로 사용된 갑발 안쪽으로 한줄의 갑발을 나열하였으나 점토가 전혀 소결되지 않은 양상으로 확인되어 가마 폐기 후 적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II-3 층은 흑갈색의 모래층이 10~50cm 정도로 쌓여있다. II-4 층은 3차 조업의 가마 바닥층으로 30~40cm 정도의 두께이며 고열로 인해 유리질화 되었다.

IV 층은 2차 조업이 이루어진 곳으로 3차 가마 벽체를 파괴한 후에 조성되었다. 가마 너비는 보수전 130cm, 보수 후 120cm이다. 폐기양상은 II 층과 같으며, 2차 조업은 바닥이 유리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결면만 확인되었다. 2차 가마의 벽체는 양쪽 모두 갑발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3차 가마의 벽체는 2차 가마를 재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차 가마에서는 10cm 정도로 벽체를 보수한 흔적이 관찰된다.

VI 층은 1차 조업이 이루어진 곳으로 V 층을 굴광한 후 조성되었다. 가마의 너비는 110cm 정도로 1·2차 가마에 비해 규모가 가장 작은 편이다.



사진 14. Tr.2의 가마 수축 상태



사진 15. 벽체 수축 상태

폐기 양상은 소토와 벽체편, 갑발편이 혼합된 상태로 퇴적되었다. VI-1 층은 모래층이 바닥 전면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VI-2 층은 1차 가마의 바닥면으로 번조시에 고열로 인해 전면에 걸쳐 10~20cm 정도로 유리질화된 것이 관찰되며, 나머지 부분은 적갈색으로 소결된 양상으로 1~3차 조업 중 가장 두껍게 소결되었다.

#### ④ 초별칸(初燔間)

변조실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변조실 바닥보다 깊게 굴광한 다음 모를 죽인 말각방향으로 만들었다. 바닥면은 수평을 다진 후 그 위에 갑발편을 깔아 마무리 하였으며, 이 갑발편 위에 날그릇을 놓고 변조하였다. 배연부는 초별칸 뒤가 바로 경사진 언덕으로 이어지고 있어 배연로와 개자리 등 특별한 시설 없이 가마 가장 뒷벽의 배연공을 통해 연기가 빠져나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6. 초별칸 전경



사진 17. 강진 사당리 43호 초별칸 세부

#### (2) 가마 폐기장

사당리 43호 가마와 관련된 청자와 갑발, 도지미 등의 폐기물은 가마 좌측에 퇴적층을 이루며 확인되었다. 폐기장은 길이 770cm, 너비 620cm, 깊이 60~80cm의 규모로 넓은 면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폐기장은 구릉 경사지의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후대의 경작과 자연적인 유실 등으로 부분적으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폐기장은 4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최상층인 I 층에서 최하층인 IV 층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I 층은 표토층으로 가마 폐기장에서 흩어진 청자편 등이 산포되어 있다. II 층에서는 실패한 자기편과 가마에서 사용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석재와 갑발편 등의 요도구들이 혼입되어 있다. III 층은 소토덩이와 유리질화된 벽체편들이 혼입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IV 층은 부분적으로 재층이 확인되며 석재 등이 다수 포함되어 퇴적된 상태이다.

가마 폐기장에서는 청자와 갑발, 도지미, 기와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청자는 대접과 접시 등 일상생활 용기를 중심으로 병과 호, 장고, 연적 등이 함께 출토되고 있다. 무엇보다 양질 청자를 제작하는데 필수적

으로 사용되었던 갑발이 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곳이 양질의 고급청자를 생산하였던 가마였음을 알 수 있다. 받침은 모래 섞인 거친 내화토비짐을 중심으로 백색 내화토비짐과 규석 받침 등이 확인되는데 문양이 시문되어 있고 유약과 태토의 품질이 좋은 청자는 대부분 백색 내화토비짐과 규석 받침을 사용하여 감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양은 음각기법과 도범을 이용한 압출양각 기법으로 시문한 앵무문과 연판문, 연당초문, 국당초문, 모란당초문 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철화를 이용한 초화문도 1점 출토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청자는 층위에 따른 특징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43호 가마가 단기간 운영되면서 쌓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와가 함께 출토되어 가마 주변에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8. 강진 사당리 43호 가마 폐기장 전경



사진 19. 43호 가마 폐기장 음각청자



사진 20. 43호 가마 폐기장 양각청자



### (3) 수혈 폐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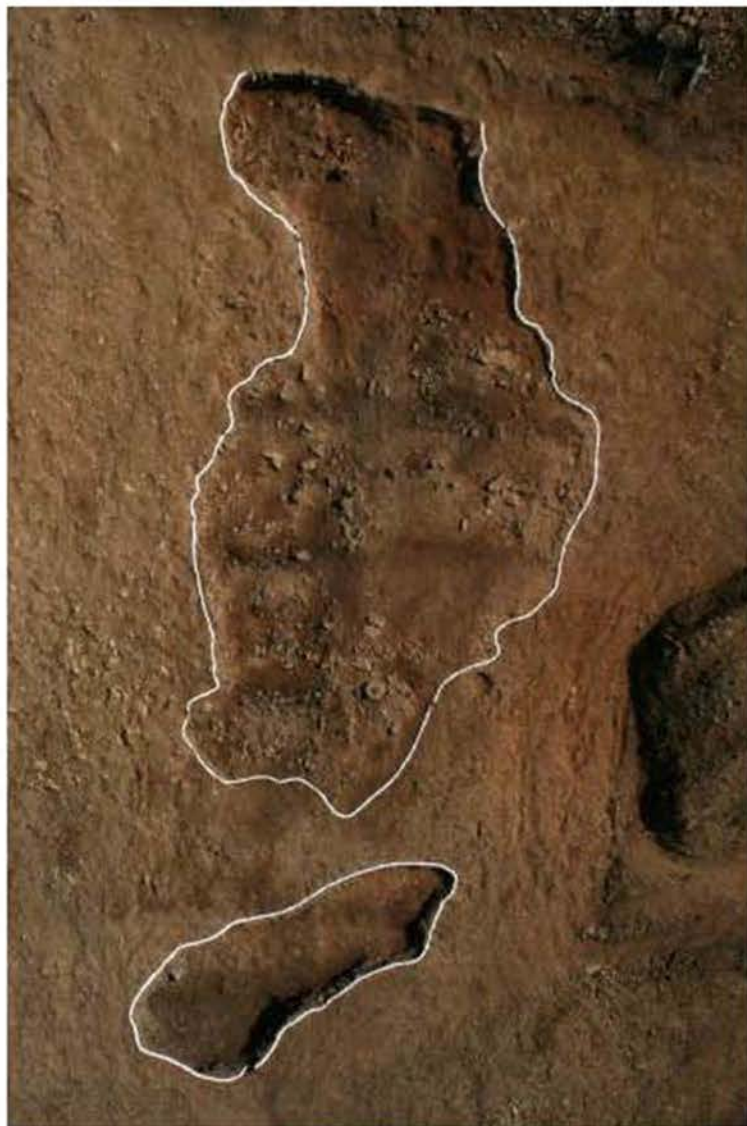


사진 21. 사당리 43호 가마 수혈 폐기장 전경

가마 폐기장과는 별도로 가마 동쪽에 2개의 구덩이로 형성된 폐기장이 확인되었다.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며, 단면형태는 'U'자형을 띤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광하였고, 바닥은 고르지 않으며 중앙부가 가장 깊은 편이다.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연석과 더불어 많은 자기편과 갑발편,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다. 1호 수혈 폐기장은 퇴적층 상부에 주춧돌과 기와편들이 확인되어 가마 주변에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후대의 상감청자편들도 확인되고 있어 사당리 43호 가마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져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특징적인 유물은 퇴화문이 확인되며 도판과 대형합, 참외형병 등이 있다. 크기는 길이 1,460cm, 너비 466~720cm, 깊이 25~54cm이다.

2호 수혈 폐기장은 가마 폐기장의 출토 양상과 유사하여 가마를 운영하면서 폐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향로와 명문청자가 1점 출토되었다. 크기는 길이 720cm, 너비 224~360cm, 깊이 28~68cm이다.



사진 22. 강진 사당리 43호 청자요지 1호 수혈 폐기장 출토 청자



사진 23. 강진 사당리 43호 청자요지 2호 수혈 폐기장 출토 청자

#### (4) 숯가마

숯가마는 43호 가마의 반대편 구릉인 남서단의 사면부에 1기가 위치하는데, 후대에 석축을 쌓으면서 아궁이가 일부 훼손되었으나 잔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평면 형태는 약간 세장한 타원형이며, 길이 385cm, 너비 265cm 깊이 38~41cm, 벽체 두께 7~10cm의 규모로 남아 있다. 바닥은 10°내외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퇴적 양상은 적갈색 소토층, 벽체+소토층, 암흑색사질점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층에 형성된 적갈색 소토층은 벽체 부스러기로 4~6cm 정도로 얇게 바닥에 깔려있으나 전면에 걸쳐 분포하지 않고 연통부에서 번조실 중간 부분까지만 확인되고 있다. 상층은 상부의 벽체가 무너지면서 형성된 층이며, 암흑색사질점토층은 후대에 교란으로 형성된 층이다. 연도부는 번조실 북쪽 가운데 위치하며 북벽을 평면형태 'U'자형으로 굴광하여 만들었다. 남아 있는 크기는 길이 62cm, 너비 50cm, 깊이 35cm이다.

연도부는 번조실 끝부분 양쪽에 할석을 놓고 그 위로 판석 1매를 쌓아

만들었다. 번조실의 벽면은 석재와 점토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양쪽 측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경사져 있으며, 바닥도 편평한 석재와 점토를 덧발라 사용하였다.

아궁이는 후대에 쌓은 석축으로 인해 많이 훼손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석재와 점토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바닥은 소결되어 적갈색을 띤다.



사진 24. 숯가마 조사후 전경

## 2) 康津 沙堂里 43號 靑瓷窯址의 性格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발굴조사는 200여곳의 가마터 가운데 6곳(15기) 밖에 조사되지 않아 그 중요성에 비해 조사 연구가 매우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굴조사는 史蹟(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으로 지정된 대구면 龍雲里 10호(4기), 龍雲里 63호(1기), 桂栗里 25호(1기), 沙堂里 41

호(1기), 沙堂里 43호(1기)와 全羅南道 記念物(제81호 강진 삼흥리 도요지)로 지정된 七良面 三興里 요지(7기) 등 일부가 조사되었을 뿐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강진 고려청자 요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부분 산기슭 경사면을 파고 축조한 半地下式 單室 登窯이다. 봉통부(燃燒室)와 燔造室(燒成室)을 연결하는 불턱의 경우 초기에는 전통 陶器窯의 기술을 이어받아 없으나 중기가 되면 뚜렷한 불턱이 등장하여 중국의 기술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築窯材는 중국과 달리 계속 진흙(삼흥리) 또는 진흙과 갑발(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진흙과 돌(삼흥리)을 이용하고 있어 대부분 벽돌을 築窯材로 사용하는 중국과는 다른 고려만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지역의 塼築窯는 중국 越州窯의 영향을 받아 축조하였으나 강진의 고려청자 요는 도기를 만들던 전통방식을 기반으로 중국 기술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용운리 10호 가마터에 남아 있는 窯前部(作業空間)의 석실구조는 현재까지 용운리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구조로 앞으로 그 용도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하겠다.

사당리 43호 청자 가마터에서는 청자 가마 1기, 가마 폐기장, 수혈 폐기장 2기, 숯가마 1기 등의 유구가 조사 되었으며 많은 수량의 청자편과 초별편, 갑발과 도지미 등의 요도구가 확인되었다. 가마는 경작으로 인해 지표상에 노출된 많은 부분이 삭평되어 출입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요전부와 봉통부, 번조실, 초별칸 등 가마의 평면 구조가 뚜렷하게 남아 있어 향후 청자 가마 구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sup>16)</sup>

사당리 43호 청자 가마는 강진을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서 확인된 고려 중기 청자 가마의 기본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산기슭 경사면을 파고 진흙과 갑발을 이용하여 축조한 半地下式 單室 登窯이다. 또한 봉통부(燃燒室)와 燔造室(燒成室)을 연결하는 뚜렷한 불턱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용운리 10호를 비롯한 초기 가마에는 없었던 구조로 중기가 되면서 전통을 바탕으로 중국의 기술을 수용한 고려만의 독자적 발전이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리고 분청자와 백자와는 달리 이제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초별칸이 확인되어 고려청자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排煙部는 초별칸 뒤가 바로 경사진 언덕으로 이어지고 있

16) 고려청자 요지는 대부분 연도부를 비롯한 후면부가 유실되어 소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율리 25호와 사당리 43호의 경우처럼 길이가 긴 예도 있으며, 특히 사당리 43호는 초별칸이 확인되어 향후 고려청자 가마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어 배연로와 개자리 등 특별한 시설 없이 가마 가장 뒷벽의 排煙孔을 통해 연기가 빠져나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당리 43호 가마터의 규모는 길이 20m, 너비 154~194cm, 경사도 13~15°를 갖추고 있어 인천 경서동과<sup>17)</sup> 용인 보정동,<sup>18)</sup> 음성 생리,<sup>19)</sup> 대전 구완동,<sup>20)</sup> 해남 진산리 17호<sup>21)</sup> 등 고려 중기 청자요지에서 확인된 길이 20m 내외, 너비 120~140cm, 경사도 18~25°의 사례들과 크게 차이가 없어 고려 중기 강진 청자의 양상이 확산되면서 가마도 강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sup>22)</sup> 이러한 가마 구조는 고려후기를 거쳐 백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조선 초기의 분청자 가마에도 유지되고 있어 고려 중기에 확립된 가마 구조가 청자 생산에 매우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sup>23)</sup>

사당리 43호 가마에서는 가마가 폐기된 후 인위적으로 가마 내부를 매립한 흔적이 확인되어 대구소 가마 운영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관요 운영과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 특징적이다. 그리고 사당리 43호 가마터 남서쪽 주변에서 확인된 숯가마는 석축으로 인해 일부 훼손되었으나 잔존 상태가 양호하게 노출되었다. 특징적인 유물이 없어 정확한 축조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강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점과, 청자 가마와 인접해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sup>24)</sup>

17) 國立中央博物館 『仁川 景西洞 綠靑磁窯址』 1990.

18) 畿甸文化財研究院 『龍仁 寶亭里 靑磁窯址』 2006.

19) 忠北大學校博物館 『陰城 筓里 靑磁 가마터』 2002.

20) 海剛陶磁美術館 『大田 舊完洞 窯址-어청골 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 2001.

21) 木浦大學校博物館 『海南 珍山里 綠靑磁窯址』 1992.

22) ①李鍾玟 「高麗時代 靑磁가마의 構造와 生産方式 考察」 『韓國上古史學報』 45, 韓國上古史學會, 2004.

②張南原 「康津類型」의 共有 現狀을 通해 본 11~12世紀 靑磁의 性格」 『美術史學研究』 231, 韓國美術史學會, 2001.

23) ①李鍾玟 「高麗時代 靑磁가마의 構造와 生産方式 考察」 『韓國上古史學報』 45, 韓國上古史學會, 2004.

②韓貞華 「高麗時代 陶窯址의 性格」 『高麗陶磁新論』 學研文化社, 2009.

24) 최근 요장 개념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陰城 筓里 청자 요장(충북대학교박물관 『음성 생리 청자 가마터』 2002.)과 抱川 花峴里 분청자 요장(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포천 화현리 분청사기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2006), 高敞 龍溪里 분청자 요장(호남문화재연구원 『고창 용계

가마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조사하였으나 공방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생산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평면 구조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가마가 확인되어 고려 청자요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sup>25)</sup> 특히, 가마의 운영이 비색청자를 생산하였던 청자 전성기인 12세기 중·후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고려청자 연구에도 많은 자료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 4. 맺음말

康津은 고려시대 道康縣과 耽津縣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 청자를 생산하였던 大口所와 七良所는 탐진현 내에 있었다. 특히, 대구소는 청자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그 기술이 유입되어 퇴장하는 시기까지 청자를 생산하고 발전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고려청자 窯場이다. 강진은 도기를 만들던 전통적인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선진 도자 기술을 받아들여 고려만의 독보적인 翡色靑瓷과 象嵌靑瓷을 완성하였던 곳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따라서 康津靑瓷과 高麗靑瓷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강진 청자의 변천사가 고려청자의 변천사이며, 고려청자의 변천사가 강진청자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발굴조사는 200여곳의 가마터 가운데 6곳(15기) 밖에 조사되지 않아 그 중요성에 비해 조사 연구가 매우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강진 고려청자 요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부분 산기슭 경사면을 파고 축조한 半地下式 單室 登窯이다. 봉통부(燃燒室)와 燔造室을 연결하는 불턱의 경우 초기에는 전통 陶器 가마의 기술을 이어받아 뚜렷하지 않으나 비색청자가 완성되는 중기가 되면 뚜렷한

리 요지」2008.), 康津 月下里 백자 요장(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월하리 유적」2009.), 長興 龍門里 백자 요장(목포대학교박물관 「장흥 용문리 조선 백자요지」2005), 長興 月松里 백자 요장(마한문화연구원 「장흥 월송리 백자요지-공방지-」2008.) 등에서 숯가마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요장의 부속 시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이들 숯가마에 대한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 이들 숯가마는 자기 제작에 필수적인 유약을 안정적이며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규명된 예는 없다.

25) 청자 요장의 공방은 사당리 117번지 일대와 용인 보정동(畿甸文化財研究院 『龍仁 寶亭里 靑磁 窯址』2006.), 음성 생리(忠北大學校博物館 『陰城 筮里 靑磁 가마터』2002.) 등에서 일부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구조를 갖춘 사례가 없어 향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불턱이 등장하여 중국의 기술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마를 축조하는 築窯材는 중국과 달리 계속 진흙 또는 진흙과 갑박, 진흙과 돌을 이용하고 있어 대부분 벽돌을 축조재로 사용하는 중국과는 다른 고려만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지역의 博築窯(벽돌 가마)는 중국 越州窯의 영향을 받아 축조하였으나 강진은 전통방식을 기반으로 중국 기술을 수용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사당리 43호 청자 가마는 강진을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서 확인된 고려 중기 청자 가마의 기본적 구조인 半地下式 單室 登窯이다. 또한 봉통부(燃燒室)와 燔造室(燒成室)을 연결하는 뚜렷한 불턱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가마 구조는 고려후기를 거쳐 백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조선 초기의 분청자 가마에도 유지되고 있어 고려 중기에 확립된 가마 구조가 청자 생산에 매우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분청자와 백자와는 달리 이제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초벌칸이 확인되어 고려청자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사당리 43호 가마에서는 가마가 폐기된 후 인위적으로 가마 내부를 매립한 흔적이 확인되어 대구소 가마 운영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宋代의 官窯 운영과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 특징적이다. 그리고 사당리 43호 가마터 남서쪽 주변에서 확인된 숯가마는 유약 제조 등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한편, 가마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조사하였으나 공방 시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자 요장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것도 고려청자 가마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사진 25. 용운리 63호 원경



사진 26. 용운리 63호 전경

## 參考文獻

### ▼ 單行本

康津郡 『康津과 高麗靑磁의 位相과 發展方案』 2008.

康津文化院 『康津의 歷史와 文化』 1989.

\_\_\_\_\_ 『高麗靑瓷 文化와 康津』 1990.

康津靑瓷博物館 『康津靑磁 研究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來日』 2006.

\_\_\_\_\_ 『高麗中期 靑磁製作의 時代的 考察』 2008.

\_\_\_\_\_ 『靑磁의 發色特徵』 2010.

國際記念物遺蹟協議會 韓國委員會 『康津 高麗靑瓷 窯址 世界有産 登載  
推進 國際學術심포지엄』 2012.

李鍾玟 『高麗 初期 靑磁 研究』 白山資料院, 2004.

張南原 『高麗 中期 靑瓷 研究』 慧眼, 2006.

野守健 『高麗靑磁の研究』 清閑舍, 1944.

### ▼ 報告書

國立光州博物館 『康津 三興地區 貯水池 崇上事業區域 地表調査』 2000.

\_\_\_\_\_ 『康津 三興里窯址』 II, 2004.

國立中央博物館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圖版編·本文  
編, 1996-1997.

國立海洋文化財研究所 『泰安 대섬 水中發掘調査 報告書』 2009.

國立海洋遺物展示館 『務安 道里浦 海底遺物』 2003.

\_\_\_\_\_ 『保寧 元山島 水中發掘調査 報告書』 2007.

南道文化財研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康津郡-』 2004.

東邦文化財研究院 『康津 大口面 陶窯址 綜合整備計劃 學術研究用役 地  
區 內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康津郡, 2011.

文化·歷史 마을 만들기 康津郡 推進協議會 『康津 沙堂里 靑瓷마을 調査  
報告書』 2004.

木浦大學校博物館 『康津郡의 文化遺蹟』 1989.

朝鮮官窯博物館 『康津 龍雲里 테마파크 造成敷地 內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2007.

崔淳雨 『韓國靑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湖南文化財研究院 『康津 三興里窯址』 I, 2004.



## ▼ 圖 錄

康津青瓷博物館 『康津 高麗青瓷 500年-康津 青瓷窯址 發掘遺物 特別展-』 2006.

\_\_\_\_\_ 『東欣 李龍熙 先生 寄贈 文樣集』 2009.

康津青瓷資料博物館 『高麗青瓷 康津으로의 歸鄉-銘文·符號 特別展-』 2000.

國立光州博物館 『千年的 歲月, 그 빛 날다-康津 三興里 가마터 出土 遺物展-』 2006.

\_\_\_\_\_ 『康津』 南道文化展 III, 2012.

國立海洋遺物展示館 『高麗青磁 寶物船-康津, 泰安, 그리고 ...-』 2008.

## ▼ 學術論文

姜景仁 「史蹟 68號 高麗青磁陶窯址에서 出土된 青磁破片에 關하여」 全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姜景仁 「科學的 分析結果를 통해 본 康津青磁의 技術的인 特性-三興里 窯址 青磁를 中心으로-」 『康津 高麗青磁의 優秀性』 康津青磁資料博物館, 2004.

康海天 「陶磁窯址의 保存 및 活用 方案에 關한 研究-康津 大口面 陶磁 窯址를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1.

具一會 「康津과 扶安 青瓷의 相異點과 相似點(比較·關係)」 『青瓷 寶物 船 뱃길 再現 記念 國際學術 심포지엄』 康津郡, 2009.

金英媛 「康津青磁의 歷史的 背景과 發達」 『康津과 高麗青磁의 位相과 發展方案』 康津郡, 2008.

\_\_\_\_\_ 「康津青磁의 歷史와 發達」 『康津郡誌』 II, 康津郡誌編纂委員會, 2012.

김희정 「康津의 青磁」 『康津』 南道文化展 III, 國立光州博物館, 2012.

羅善華 「康津 三興里 陶器 가마 發掘의 性格과 意義」 『千年的 歲月, 그 빛 날다』 國立光州博物館, 2006.

朴敬子 「14世紀 康津 磁器所의 解體와 窯業 體制의 二元化」 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2.

方炳善 「康津 青磁 釉藥에 對한 實驗的 考察」 『康津의 青磁窯址』 海剛陶磁美術館, 1992.

尹龍二 「康津郡의 陶窯址」『康津郡의 文化遺蹟』木浦大學校博物館, 1989.

\_\_\_\_\_ 「高麗 青瓷陶窯址의 分布와 康津 陶窯址의 重要性」『高麗青瓷 文化와 康津』康津文化院, 1990.

\_\_\_\_\_ 「高麗青瓷의 變遷과 康津」『康津과 高麗青磁의 位相과 發展方案』康津郡, 2008.

李龍熙 「大口面 青瓷窯址의 周邊環境과 發掘調査의 一面」『康津의 青磁窯址』, 海剛陶磁美術館, 1992.

李鍾玟 「高麗時代 青磁가마의 構造와 生産方式 考察」『韓國上古史學報』45, 韓國上古史學會, 2004.

李海濬 「康津地域 高麗青磁의 發達 背景」『康津의 青磁窯址』海剛陶磁美術館, 1992.

李喜寬 「高麗青磁史上的 康津窯와 扶安窯」『高麗青磁 康津으로의 歸鄉-銘文·符號特別展-』康津青磁資料博物館, 2000.

張南原 「「康津類型」의 共有 現狀을 通해 본 11~12世紀 青瓷의 性格」『美術史學研究』231, 韓國美術史學會, 2001.

\_\_\_\_\_ 「康津 三興里 陶窯址의 性格과 出土遺物」『千年의 歲月, 그 빛 날다』國立光州博物館, 2006.

鄭良謨 「高麗陶磁의 窯址와 出土品」『韓國의 美』4-青磁-, 中央日報社, 1981.

\_\_\_\_\_ 「康津 沙堂里 高麗青磁窯址 發掘調査」『傳統文化』128, 朝鮮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 1983.

\_\_\_\_\_ 「康津과 高麗青磁의 發生」『高麗青瓷 文化와 康津』康津文化院, 1990.

\_\_\_\_\_ 「康津青磁의 保存과 發展」『康津과 高麗青磁의 位相과 發展方案』康津郡, 2008.

崔 健 「康津 青磁의 性格과 展開」『高麗青磁 寶物船과 康津』國立海洋文化財研究所, 2009.

崔宣一 「青磁 굽바닥에 새겨진 標識의 實體와 意味-康津窯址 出土品을 中心으로-」『高麗青磁, 康津으로의 歸鄉-銘文·符號 特別展-』康津青磁資料博物館, 2000.

崔淳雨 「康津 沙堂里窯址 出土 青磁瓦」『美術資料』9, 國立中央博物館, 1964.

\_\_\_\_\_ 「康津 沙堂里 出土 青磁象嵌 發願文片」『考古美術』63·64, 韓國美術史學會, 1965.

\_\_\_\_\_ 「康津 沙堂里窯址 出土 高麗青磁磚」『考古美術』89, 韓國美術史學會, 1967.

韓盛旭 「康津 青瓷의 生産과 流通」『文化史學』34, 韓國文化史學會, 2010.

韓貞華 「高麗時代 陶窯址의 性格」『高麗陶瓷新論』學研文化社, 2009.

曹銀精 「康津郡青磁窯址生産品と流通経路」『李秉昌博士記念 韓國陶磁研究報告』Ⅲ,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2010.



# 康津 沙堂里 43號 窯址 出土 靑瓷의 現況과 性格

張南原(梨花女子大學校 美術史學科)

## 목 차

1. 머리말
2. 靑瓷 製作 特性
3. 出土 遺物의 現況과 製作時期
4. 康津 窯址 靑瓷의 生産類形과 沙堂里 43號
5. 맺음말-남겨진 과제-

### 1. 머리말

1913년 강진군 대구면 주재소 中島義軍의 강진 요지군 발견과 신고, 1914년 李王職博物館의(末松雄彦) 강진 도요지 답사, 1916년 조선총독의 강진 방문 등으로 이어지면서 강진 도요지에 대한 관심과 조사가 시작되었다. 1925년에는 中尾萬三이 강진지역 현지조사를 하였고, 1927년에는 대구면 계율리에 대한 발굴이, 1928년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의 野守建과 小川敬吉이 강진일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sup>1)</sup> 이 조사를 기반으로 강진 대구면과 칠량면 일대 요적지도가 작성되었으며, 1939년에는 가마군이 사적 107호로 지정되었다.

국내 학자들에 의한 조사는 1960년대 이후 시작되어 63년경부터 崔淳雨, 鄭良謨 등을 중심으로 사당리 114번지가 조사되었으며, 이때 청자와가 출토되었다.<sup>2)</sup> 이후 64년, 65년, 73년, 74년, 77년에 걸쳐 이 일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sup>3)</sup> 더불어 기존 일제시대 조사요지에 더하여 53개 지역을 추가로 발견하였다.<sup>4)</sup> 이 후 1980년부터 1982년까지 국립중

1) 野守建, 『高麗陶磁の研究』, 國書刊行會, 1944, pp. 231-232.

2) 崔淳雨, 「康津 沙堂里窯址 出土 靑磁瓦」, 『美術資料』 9, 國立中央博物館, 1964.

3) 정양모, 「전남 강진군 고려청자요지 발굴조사」, 『박물관신문』 제35호, 1974, 1; 김득풍, 「제9차 고려청자요지 발굴조사」, 『박물관신문』 제78호, 1978, 2.

4) 鄭良謨, 「高麗陶磁의窯址와出土品」, 『世界陶磁全集 18-高麗』, 小學館, 1978; 鄭良謨, 「高麗陶磁의窯址와出土品」, 『韓國의美 4-靑磁-』, 中央日報社, 198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靑磁陶窯址』, 崔淳雨篇, 1982.

앙박물관에 의해 강진 용운리 9호와 10호에 의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시기별 퇴적층과 4기의 청자 가마 유구 등을 확인하였다.<sup>5)</sup> 1991년에는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해 강진지역에 대한 전면적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청자요지 188개소가 확인되었다.<sup>6)</sup> 한편, 칠량면 심흥리 일대에 저수지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일환으로 8개 구역에서 발굴이 이루어져 5기의 청자 가마와 9기의 도기 가마가 발굴되면서 도기와 청자요업의 관계, 집약적 도자 제작의 현황, 남부지역 청자 가마의 특징 등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이 축적되었다.<sup>7)</sup>

이 같은 연구성과를 토대로 2012년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한 사당리 43호 발굴은 기존의 발굴 결과와 비교,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특히 강진 일대에서도 절정기 고급청자를 많이 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당리 지역 제작현황을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출토유물에 대한 층위별 정리와 분류, 이를 통한 분석 작업 등이 연구원측에 의해 진행중이므로 아직은 뚜렷한 현황과 특징을 예단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2회에 걸친 유물 실견과,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발굴조사 약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유물과 제작 특징을 개괄하고, 이미 발굴이 이루어진 용운리와 삼흥리 등과의 비교를 통해 제작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2. 靑瓷 製作 特性

### 1) 초벌 器物로 본 2次 燔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도자기 제작에서는 대부분 초벌과 재벌의 2차 번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려 초 중부지방 전축요의 초기청자들에서는 초벌구이를 볼 수 없다. 중부지방 전축요에서도 초벌구이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식 해무리굽이 나타나는 시기와 맞물리는 것으로 보이며, 강진지역에서는 요업이 정착하면서 차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5) 鄭良謨, 『康津 沙堂里 高麗靑磁窯址 發掘調査』, 『傳統文化』 128, 朝鮮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 1983;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圖版編-』, 1996;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本文編-』, 1997.

6)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7) 湖南文化財研究院, 『康津 三興里窯址』 I, 2004; 國立光州博物館, 『康津 三興里窯址』 II, 2004.

사당리 43호 요지 출토 파편들 가운데 많지는 않으나 초기청자 제작시기와는 달리 유약을 입히지 않은 초벌 기물편들이 있어서 가마 후면에서 발견된 초벌칸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강진지역 청자 요지 발굴 가운데 처음으로 초벌칸이 명확하게 출토된 예로서, 번조실 末端에 가마 바닥면 보다 약간 깊게 파고 수평으로 다져 바닥을 조성하였다. 그 바닥면에 갑발편을 깔고, 성형된 그릇을 번조하였다. 주지하듯, 조선시대 백자 요장에서 가마 말단에 초벌칸을 두어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한 가마 後尾部를 최대한 활용하였는데, 고려 청자 가마에서 이 같은 예는 드물다.<sup>9)</sup> 2차 번조가 이루어지는 공정에서 초벌구이 단계는 유약을 입히지 않으므로 갑발을 씌우지 않고 포개어 다량으로 소성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번조실 만큼 용적이 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육안 관찰로 보아 사당리 43호 초벌편들은 거의 밝은 살구색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무리굽 청자완을 동반하는 시기의 강진지역 청자 초벌편들이 주황빛을 띠던 것과 비교하면 사당리 43호를 비롯한 고려 중기 청자 초벌편들에서는 밝은색이 관찰된다. 용운리 10호 퇴적의 예로 보면 상층부에 해당하는 10-II층의 초벌편들이 옅은 분홍색을 띠었던 것에 반해, 그보다 아래에 형성된 10-I층(해무리굽 완 동반층위)의 초벌편들은 좀 더 붉은 빛이 감도는 주황색에 가까웠다. 이는 용운리 9호와 삼흥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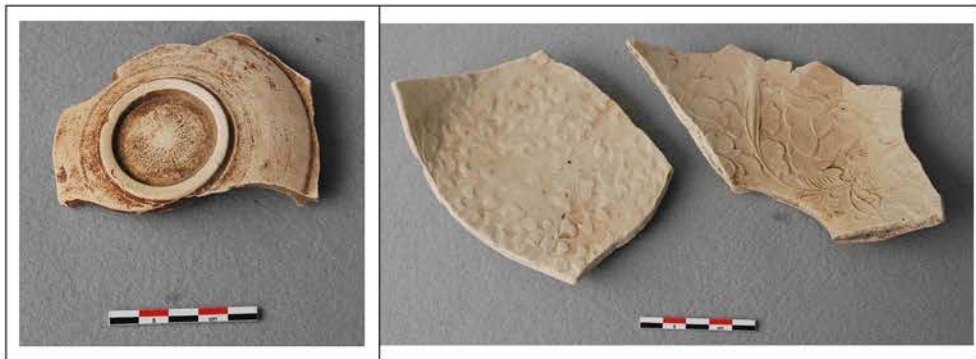


사진 1. 사당리 43호 요지 출토 청자 초벌편

8) 장남원, 『10-12세기 고려와 遼金도자의 교류』, 『고려와 북방문화』 (공저), 양사재, 2011, pp. 183-222.

9) 현재까지 발굴이 이루어진 용운리, 삼흥리 등의 청자 가마들은 가마 후미부가 거의 지상으로 올라와 파손되거나 산일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초벌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삼흥리 출토 청자편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를 보면 해무리굽 청자완편들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 제작품인 상감청자류에 비해 태토의 철분함량이 1%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육안으로 감별되는 차이와 부합되는 결과이다. 시기에 따라 사용되던 태토의 산지와 배합에 일정한 규칙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즉, 강진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조업하던 가마들은 동일한 요업 조건과 기술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때 위와 같은 2차 번조 방법의 증가와 확대는 고려 중기 이후 더욱 일반화되어 부안 유천리와 진서리, 음성 생리, 대전 구완동 등 전국의 청자 가마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sup>11)</sup>

이는 중국 五代 이후 浙江省 越州窯系 요업기술을 받아 발전한 것으로 보는 국내의 초기청자 가마터, 예컨대 용인 서리, 시흥 방산동, 배천 원산리 등지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중부지방 초기청자 제작에서는 청자와 백자를 만들고 그 위에 유약을 발라 굽는 1차 번조가 기본이었다. 그러나 강진의 대구면·칠량면 일대에 분포한 청자 가마에서는 적어도 한 국식 해무리굽 완을 생산하는 시기에 이르면 2차 번조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2차 번조 방법이 무슨 이유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정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초기 관심 단계이다.<sup>12)</sup> 그러나 중국의 경우로 미루어 몇 가지 짐작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대개 1차 번조가 주류를 이루지만, 官窯나 貢窯 등 고급자기를 제작하는 일부 요장들에는 여러 번 施釉하여 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여러 차례 번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약을 두텁게 입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유약을 입혀 낮은 온도에서 굽고 다시 그 위에 유약을 입혀 굽는 과정을 2차 또는 3차 되

10) 姜景仁, 「康津 三興里 窯址 B-F地區 土器青磁의 科學的 分析」, 『康津 三興里窯址』 II, 國立光州博物館, 2004, pp. 261-305.

11)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扶安 柳川里 7區域 青磁窯址群 發掘調查報告書』, 2001;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扶安 鎮西里 青磁窯址-第18號 窯址 發掘』, 2001; 海剛陶磁美術館, 『大田 舊完洞 窯址-어청굴 青磁窯址發掘調查報告書』, 2001; 忠北大學校博物館, 『陰城 筌里 청자 가마터』, 2002.

12) 李喜寬, 「高麗 翡色青磁의 出現과 초별구이(素燒)」,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對外交渉으로 본 高麗青磁』, 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3, pp. 16-42.



풀이 하면서 유층을 두텁게 할 수 있다. 즉, 2차 번조를 넘어 多次施糶, 多次燔造를 통해 더 이상적인 유색과 질감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차 번조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식 해무리굽 완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이 방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기종에 제한적으로 시도되었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또 중국의 경우와 그 시유방법도 다르다. 다만 해무리굽 완이라고 불리는 기종의 경우, 다른 기종에 비해 고급으로 번조되었는데 대부분 초별구이를 한 후 유약을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가마 재임을 할 때에도 1개의 갑발 안에 1개의 기물을 넣어 하나씩 정성껏 구웠음이 확인되었다. 즉, 강진에서 이루어진 2차 번조 방법은 적어도 고급 기물의 번조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2) 燔造 받침과 窯道具

사당리 43호 요지에서는 백색내화토빛음 받침, 규석 받침, 모래섞인(거친)내화토빛음 받침, 태토빛음 받침 등 고려 청자 번조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종류의 받침이 확인된다. 사당리 43호의 가장 이른 시기 번조 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받침이다. 이는 내화도가 높고 입자가 고운 백토를 장타원형으로 가늘게 빚어 받친 것으로 초기청자 전축요계 요장에서부터 나타나며 강진지역 토축요의 下層 퇴적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사당리 43호 경우는 퇴적이 얇고 삭평으로 인한 교란이 있어 유물퇴적층의 上·下관계가 확실하지 않다. 용운리 10호의 예를 통해 보면, 해무리굽 완을 동반하는 층위와 해무리굽이 사라지고 음각 앵무문 등이 나타나는 층위의 중간까지 사용되었다. 즉 용운리 9호와 10호 I층, 그리고 10호 II층의 하단부(10-II-가)까지에 해당된다. 두번째는 모래빛음 받침으로 토축요의 상층부, 즉 용운리 10호 II층의 상단부에 해당한다. 강진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자 가운데 조질계나 지방 청자류의 경우 대체로 거친 모래빛음 받침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세번째는 규석 받침이다. 용운리 10호 II층(최상층)에서 발견되었으며 모래빛음 받침 유형과 같은 층위에서 발견되는데 규석을 박은 원반형, 원주형, 원추형 등 다양한 도침이 사용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같은 층위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번조 받침은 번조 대

상의 質에 따라 변조시 재임 방법을 달리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sup>13)</sup> 변조 받침으로 보면, 사당리 43호 출토 청자의 중심은 거친모래섞인 내화토빛을 받침과 규석 받침을 사용하던 시기에 놓여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사당리 43호의 窯道具는 비교적 단조로운 편이다. 匣鉢은 원통형이 중심을 이루며 크기에만 대중소의 차이가 있으며, 초기청자 요장에서 사용되었던 鉢形 蓋鉢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 蓋鉢 받침과 점좌 등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요도구의 종류는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사진 2).



사진 2. 강진 사당리 43호 요지 출토 원통형 蓋鉢

원통형 蓋鉢은 측면에 마치 손가락 끝으로 찍어 누른 듯한 작은 점이 2~3개 있거나 또는 음각으로 X표식을 한 경우들이 있다. 蓋鉢 안쪽에 유약을 입힌 경우가 있으며, 蓋鉢과 蓋鉢을 포개 재임할 때 그 틈을 진흙으로 덧띠를 대 메꾼 자국도 있다. 蓋鉢은 태질이 거칠고 색이 어두우며 기벽도 두텁다. 한 개의 蓋鉢에 2~3개 혹은 그 이상 기물을 포개구운 사례가 있어 이전시기(해무리굽완 제작시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던 1기물 1 蓋鉢의 재임방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경기도 시흥 방산동의 경우, 이른시기 층위에 해당하는 I·II기층에서는 도자기를 적재할 때 碗이나 鉢·접시처럼 벌어진 기종을 2개 정도를 포개 변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보다 늦은 III기층에서는 蓋鉢 1개에 1개의 기물을 넣는 재임 방법이 많아진다. 이 같은 1 蓋鉢 2기물→ 1 蓋鉢 1기물로의 변화 양상은 방산동 보다 조업시기가 늦은 것으로 파악되는 여주 중암리, 용인 서리

13) 張南原, 「고려중기 청자 변조받침과 청자 질의 상관관계」, 『향산 안휘준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사회평론, 2006, pp. 468-487.

Ⅲ기층 등에서도 확인되는데 강진의 경우도 한국식 해무리굽 완 제작시기에는 완류를 단독으로 갑발에 재어 번조하는 경향을 보인다.<sup>14)</sup>

그러나 사당리 43호에서는 다시 여러점씩 포개굽거나 아예 갑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청자의 표면에서 미세한 재티가 얹은 흔적들도 볼 수 있어서 대량으로 포개는 일반 기물들의 경우 반드시 갑발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대전 구완동과 음성 생리, 용인 보정리 등 고려 중기에 이르러 새로 요업을 시작한 지역의 소규모 요장에서는 그나마 원통형 갑발마저 수습되는 사례가 매우 적어, 지방수요 등을 감당하던 곳에서는 裸燻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크기가 다양한 圓柱形 도침과 原盤形 도침이 있는데, 윗면에 재임을 위해 모래와 내화토 등을 얹었던 흔적이 있는 원주형이 주류이며, 드물게 크기가 다양한 원뿔형(끝부분에 규석 흔적), 장고형 등의 받침 도구들도 있다. 상당수의 갑발이나 요도구는 잔존 상태로 보아 1회 이상 재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중서부지방 전축요 가마터에서 발견되는 요도구들과 강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남서부 지역 토축요에서 발견되는 요도구를 비교하면 종류와 쓰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동시대의 다른 양상이라기 보다 시간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사진 3).<sup>15)</sup>



사진 3. 강진 사당리 43호 요지 출토 도침류

14) 李鍾旻, 「시흥 방산동 초기청자 요지 출토품을 통해 본 중부지역 전축요의 운영시기」, 『미술사학연구』 228-229, 한국미술사학회, 2001-3, pp. 65-97; 앞주 13) 참조.

15) 張起熏, 「窯道具를 통해 본 初期靑磁窯業의 變遷」,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2002.

### 3. 出土 遺物의 現況과 製作時期

사당리 43호 요지 출토 청자는 발, 완, 접시, 잔, 잔탁, 마상배, 뚜껑, 병, 매병, 유병, 향로, 향완, 장고, 연적 등 기종과 기형이 다양하다. 가마와 잇닿아 있었던 폐기장과 가마에서 약 10m 이내에 있는 1호와 2호 수혈 폐기장의 유구관계와 출토 유물간의 상관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1호 수혈의 경우 기와와 주초 흔적이 발견되어 건물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제작시기에 차이가 있는 고려 후기 상감청자류가 적지 아니 출토되어 조사단에서는 사당리 43호 가마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sup>16)</sup> 그러나 1호 수혈에서도 갑발편 등 가마 폐기물이 수습되었기에 가마와의 연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주요 기종을 중심으로 기형과 문양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碗

사당리 43호 요지에서는 해무리굽완이 발견되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으로는 내면에 굽과 같은 넓이의 원각이 있고, 구연 내면 아래쪽에 1줄의 음각선을 두른 완(용운리 10호의 완 E형식)이 주종을 이루며, 내저에 지름 1.0cm의 작은 원각이 있고 크기가 작은 소형완(용운리 10호의 완 C형식), 내저에 원각이 있고 구연내면에 음각선을 두른 중형의 완(내면 무문 또는 압출양각 : 용운리 10호의 완 G형식) 등이 있다(사진 4).



사진 4. 강진 사당리 43호 요지 출토 완

16) 강진군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사당리 43호-용운리 63호 고려청자 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2. 12.

용운리 10호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10-I 유형에서 碗이 차지했던 비율은 45%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 완 가운데 94.6%는 내저면에 원각이 있는 소위 한국식 해무리굽 碗이었다. 그러나 10-II 유형에서는 11.4%에 그치고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의 비중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10-II 유형에서는 한국식 해무리굽 완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10-I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E, F, G, H형식의 완이 새로 제작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욱이 10-II 유형에 이르면 앞서 사당리 43호에서도 볼 수 있는 E형식이 74.5%를 차지하게 되었다.<sup>17)</sup> 사당리 43호에서도 고운 백색내화토 받침의 완이 발견되지만 해무리굽완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강진지역 전체의 변화, 그리고 사당리 지역 요업의 현황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완은 무문이 다수이나 문양 장식으로 압출양각의 연지문, 화당초문, 연엽문 등이 있으며, 음각당초문편도 있다. 드물게 철화초문이 내면에 그려진 예도 있다.

## 2) 鉢

발은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굽 넓이와 비슷한 직경의 내저원각이 있고 측사면이 사선으로 넓게 벌어져 구연 내면 아래 음각선을 돌린 타입이다. 용운리 10호에서 K, L 그리고 N식으로 분류되었던 것들이다. 구연부를 花形으로 도려내거나 기측면을 등간격의 세로선으로 눌러 발 전체를 화형으로 만든 예들이 있다. 이들은 특히 여러개씩 포개구운 사례들이 많다. 기물이 다른 것들에 비해 큰 편이므로 포개구울 때 맨 아래에 놓는 경향이 있으므로 폐기품도 적지 않다. 이 유형의 발에는 백색내화토 빚음받침, 모래섞인 내화토빚음받침 등이 모두 나타나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 지속되었던 기형이다. 무문이 가장 많으며, 압출양각의 모란문이나 음각운문, 음각초화문 등이 시문되었다(사진 5).

17)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연구』, 혜안, 2006, pp. 44-145. 용운리 10호 유물 통계는 용운리 보고서를 기초로 필자가 재정리한 것임으로 매번 별도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사진 5. 강진 사당리 43호 요지 출토 발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발 가운데, 앵무문이나 연관문이 시문된 유형도 보인다. 앵무문이나 연관문은 적어도 강진지역의鉢에서는 비교적 일정한 기형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용운리 10호에서 O형식으로 분류되었던 것들인데 이들은 대개 굽 직경보다 내저원각이 작고 기측선이 구연부 끝에서 약간 오므라들며 전체적으로 오목한 느낌을 주는 발이다. 이 형식이 나타나면서 내면에 앵무문, 외면에 연관문 장식 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때로는 이들 문양이 동시에 안팎으로 시문되기도 한다. 사당리 43호에서도 톱니형 도구를 사용하여 꼬리털 부분을 긁어 새긴[毛彫] 앵무문이 보인다. 연관문의 경우 앵무문보다 표현이 다양한데 단순한 음각선 외에 얇은 부조형식으로 섬세하게 깎은 유형들도 발견되었다. 연관문이나 앵무문은 내저면이 넓고 평평한 내저곡면식 발에서도 나타나는데(용운리 10호의鉢 Q형식) 이들 문양 외에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양각문 등도 보인다. 한편, 고려 후기 유형의 발 가운데는 내저원각식으로 내외면에 각각 국화나 여지, 모란 등의 상감절지문이 있는 것과, 내저곡면식으로 넓고 편평하며 포류수금문이나 운학문, 국화문 등이 상감된 유형들이 발견되었다.<sup>18)</sup> 상감문은 대체로 흑백의 상감이 위주를 이루는데 간혹 당초문 등에서는 역상감문이 나타난다.

18) 고려 후기 기종 명칭은 韓盛旭, 『高麗後期靑瓷의研究』, 總合研究大學院大學 文化科學研究科, 2006 참조.

### 3) 櫛匙

접시는 고려 중기 이후 가장 많은 비중으로 생산되는 기종이다. 용운리에서는 10-I 유형에서 24.1% 정도를 점유했던 것에서 10호-II 유형에서는 40% 정도로 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기종도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용운리 10호 I 층이 용운리 10호 II 층보다 먼저 형성된 층위이므로 용운리 10호에서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접시의 생산 점유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당리 43호에서는 내면이 완만하고 내측면이 弧形이며 구연 아래 음각선을 두른 타입(용운리 10의 접시 T형식), 측선이 꺾여 올라가 구연이 외반된 折腰접시(용운리 10호의 접시 E형식) 등이 백색내화토 받침, 모래빛음 받침 등으로 변조되었다.



사진 6. 강진 사당리 43호 요지 출토 접시

이밖에도 직경 10cm 내외이고 구연이 살짝 꺾인 소형 접시류(용운리 9호, 10호의 접시 H형식)가 다양하게 출토되어 주목된다. 실제로 이 소형 접시는 용운리의 경우 강진에서도 시기가 이른 9호나 10-I 유형에서부터 꾸준히 변화되어 온 기형이다. 용운리의 경우 이 접시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굽의 형식에 변화를 보이는데, 대체로 오횃한 다리굽(용운리 9호, 10-I)→안굽(용운리 10-II-가)→오목굽, 평저(용운리 10-II-

나)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당리 43호에서는 주로 안굽과 오목굽, 평저 등으로 출토되고 있어 소형 접시에서도 용운리 9호나 10호보다는 요업 시점이 늦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형 접시류 가운데는 내면을 압출 양각한 평저의 전접시류도 발견되었는데, 소비유적 가운데 과주 혜음원지 등에서 유사한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사진 6).

음각의 앵무문이나 연판문 등은 접시에서도 보인다. 내면에 원각이 없는 곡면을 이루면서 나지막하고 측선이 둥글게 만들어진 접시류(용운리 10호의 접시 Q형식)에 시문되었다. 이 접시는 앵무문과 연판문이 있는 발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문양그림 필치와 종류도 유사하다. 그밖에 원형의 절요접시, 팔각접시 등도 발견되었는데, 주로 압출양각이나 상감기법 등을 사용한 예들이 보인다.

#### 4) 盞·杯·其他

사당리 43호에서는 반원형의 소형잔, 국화형잔, 통형잔, 팽이형잔, 마상배 등이 발견되었다. 무문이거나 음각, 상감문 등으로 장식했는데, 잔과 한 벌을 이룰 것으로 추정되는 전 달린 뚜껑들도 발견되었다. 특히, 음각문 가운데는 연판문 잔들이 보이는데 평면의 음각문 외에 고부조로 연판문을 새긴 경우도 있다. 잔과 함께 잔탁도 드물지만 발견되었다.

그밖에 향완, 병, 매병, 유병, 향로, 향완, 장고, 연적 등이 극소량 출토되었다. 매병은 초별기와 재별편 모두에서 동체를 과형으로 만든 것이 있다.

#### 5) 銘文資料

출토유물 가운데 내면 명문이 있는鉢이 한 점 있다. 기벽이 얇고 넓게 벌어진 형태로 내저에 굽과 같은 크기의 원각이 있고 구연 내측면에 1줄 음각선을 돌린 형태이다. 내면에는 약 4곳에 고운 백색내화토를 빚어 받치고 그 위에 다른 기물을 포갠 흔적이 남아 있다. 굽도 가장자리를 각지게 깎아 이른 시기 유형으로 추정된다(사진 7).

현재 내측면 2곳에 명문이 남아 있는데, 기물이 파손되어 확실치 않으나 글자가 새겨진 간격으로 보면 4곳에 대칭으로 글자를 써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글자는 제작 후 초별 번조 이전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며, 구



연부를 앞쪽 아래로 오도록 발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써 넣었다. 남아 있는 2곳의 글자는 모두 같은데 그 내용은 ‘彦臣’으로서 인명일 것으로 추정된다.<sup>19)</sup> 고려사와 고려 관련 기록에 ‘彦臣’의 人名은 고려 말기 이전에는 거의 보이질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자주 등장하는 이름으로 보인다. 만일 사람의 이름이라면, 10세기 일련의 ‘淳化’銘 청자류나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출토된 ‘孝文’, ‘孝久刻’, ‘照淸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제작관련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저들이 대부분 유천리 생산품인 점과, 굽저부에 이름을 새겨진 점, 그리고 이름이 새겨진 기물도 매병이나 정병 등 특수 기종이라는 점에서 사당리 43호 출토 발과는 차이가 있다.



사진 7. 강진 사당리 43호 요지 출토 ‘彦臣’銘 접시

‘彦臣’銘 청자발과 추정 비교가 가능한 자료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靑瓷水波蟠龍文花形鉢(덕4260)을 들 수 있다. 우선 기형이 같은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경우 내외면에 음각화문과 반룡문 등이 짝 차게 새겨져 있다. 명문은 굽 안바닥 가장자리에 음각으로 ‘弁達(호달)’이라 적었다. 흥미롭게도 1973년 사당리 당전마을 조사에서 이 발과 거의 같은 저부편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바닥에도 역시 ‘弁達’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 강진 사당리 일대에서 동시기에 제작된 것이라

19) ‘彦’字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으나 윗 글자에 있는 ‘彡’ 대신 ‘工’, ‘二’, ‘三’ 등으로 쓰는 경우도 모두 이체자로서 ‘彡’으로 해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의 기호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추정되었다.<sup>20)</sup> 그렇다면 같은 형식의, 같은 이름이 새겨진,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기물이 복수로 발견되는 경우 이 역시 제작과 연관된 인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당리 43호 출토 '彦臣'銘 청자발도 추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6) 製作時期

사당리 43호 요지의 조업시기에 대한 추정은 출토 유물의 편년을 통한 추론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본 요장에는 기년명 자료가 없고 퇴적층이 구분되기는 하나 유물 수량과 층위간 유물의 뚜렷한 구별이 어려워 선후관계를 규정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개별적인 유물의 상대 비교를 통해 제작시기를 추정하는 작업 외에<sup>21)</sup> 변조 받침을 비롯하여 유물의 품질과 특징을 통해 선후관계를 가늠하는 과정을 통해 대략의 조업시기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강진 용운리 10호의 사례를 통해 보면 강진의 청자 가마터에서 사용되는 변조 받침으로는 크게 3종류가 있다. 첫째는 백색내화토빛을 받침(가)이다. 고운 내화토를 가름하게 빚어 받친 것으로 초기청자를 생산한 전축요계 요장에서부터 사용되어 강진지역 土築窯의 이른 시기 퇴적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용운리 10호에서는 해무리굽 碗이 동반되는 층위에서는 물론 해무리굽 완이 사라지고 음각 앵무문 등의 새로운 문양이 나타나는 층위의 중간부까지 (가)유형의 변조 받침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10호-I 과 10-II-가 유형까지이다.

두번째는 모래섞인 내화토빛을 받침(나)으로 토축요의 상층부, 즉 용운리 10호 II층의 상단부에 해당한다. 강진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청자들 중에는 소위 녹청자라 불리는 조질계나 지방 청자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래섞인 내화토빛을 받침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강진 용운리 경우에는 층위 변화에 따른 변조 받침의 차이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세번째는 규석 받침(다)으로 용운리 10호 II층(최상층)에서 발견되며 (나)유형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규석을 박은 원반형,

20) 國立中央博物館, 『高麗陶磁銘文』, 1992, pp. 18-19.

21) 유물에 대한 편년의 개별 상대비교 사례는 지면상 발표로 대신한다.

원주형, 원추형 등 다양한 도침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같은 층위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변조 받침은 변조 대상의 質에 따라 변조시의 재임 방법을 달리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규석 받침의 경우 용운리에서는 주로 (나)유형, 즉 모래섞인 내화토빛을 받침과 함께 나타났지만, 강진지역에서도 가장 고급 기물의 제작이 두드러지는 사당리 7호 같은 중심 요장에서는 (가)유형 제작시기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변조 받침과 출토품을 연관지어 보면 시기적으로 앞서는 (가)유형의 청자는 (나)유형 청자에 비해 기벽이 얇고 제작이 정교하다. 청자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나)유형과 (다)유형은 동시대에 공존하는데 고급품은 규석 받침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일반용은 모래빛을 받침을 받쳐 굽는 대량생산 방식으로 그 제작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표 1).<sup>22)</sup>

<표 1>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 변조 받침의 층위 양상

	(가) 1층 : 하층	(나) 2층 : 중층	(다) 3층 : 상층	
형식명	10-I	10-II-가	10-II-나	10-II-다
변조 받침	백색내화토 빛음	백색내화토 빛음	모래섞인 내화토 빛음	규석
지 역	전축요계, 강진	전축요계, 강진	강진, 부안, 대진, 음성, 진천, 대덕, 공주, 강릉, 삼척, 용인, 여주 외	강진, 부안, 음성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사당리 43호 출토품을 살펴보면, 위의 3가지 변조 받침과 그 특징을 지닌 청자류가 모두 발견됨은 물론,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 사용되는 소형의 태토빛음 받침류도 출토되었다. 그러나 가마를 중심으로 좌측의 퇴적층과 요전부, 가마 퇴적층, 2호 수혈 폐기물 퇴적 등에서는 주로 (가), (나), (다) 유형의 변조 받침을 사용한 청자들이 발견되어 개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변조 받침과 기종, 문양장식, 청자의 품질 등을 고려하면, 특히 해무리 굽 완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대체로 12세기 1/4분기 말이나 2/4분기 초 즈음에 요업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10세기

22) 앞 주 13).

말~11세기초 중국 북방의 定窯나 玉璧底의 전통이 강한 邢窯 등 백자계 기술이 전파되면서 해무리굽완 양식이 국내 청자 요장에 이식된 것으로 생각되고, 기종 조합과 장식기법에 변화가 두드러지면서 해무리굽 완들이 사라지는 때가 북송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12세기 1/4분기 이후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또 12세기 전반에 건립된 해음원지 등에서 한국식 퇴화해무리굽 완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sup>23)</sup> 따라서 사당리 43호의 요업 개시 시기도 이와 맞물릴 것으로 생각된다.

장식에서 무문이 주류를 이루지만 음각당초문, 음각선문, 앵무문, 연판문, 운문, 양각 국당초문과 운문, 철화 초문 등이 사용되었고, 운학, 국화, 당초, 여지 등이 새겨진 정교한 비색의 상감부터 기벽이 두텁고 거친 상감청자에 이르기까지 고려 전시기에 걸친 특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감청자 가운데는 명종 지릉(1202년 또는 1255년) 출토 받접시 등과 유사한 청자들, 또 간지명 청자류(14세기 전반)와 유사한 제품이 함께 출토되고, 고려 말 제작으로 추정되는 무안 도리포 인양 청자류와 비슷한 거친 말기 상감류가 적지 않게 출토되었으므로 가마 유구와 주변 퇴적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12세기 1/4분기 말이나 2/4분기 초 즈음에 개요하여 14세기 말까지 요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14세기까지 요업의 지속되었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단은 고려 말기 유형의 상감청자류가 주로 출토되는 가마 우측의 1호 수혈 폐기장에서 건물의 주초로 보이는 석재 등이 수습되고 있어, 시기 차이가 나는 이들 유물이 직접적인 가마 관련 생산 폐기물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강진 내에서 가장 늦게까지 요업이 지속되었다고 추정되는 사당리와 계율리 지역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표상에서 고려 말 상감청자류가 수습되는 지역은 사당리 43개소 중 31개소, 계율리 59개소 중 31개소로 나타났다. 즉, 두 지역 총 102개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개소에서 고려 말기 유형의 청자들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강진 전체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요업이 시작된 용운리 지역에서는 매우 적었지만, 칠량면 삼흥리 지역에서도 일정하게 확인되는 현상이다.

필자는 삼흥리 E지구 퇴적 출토품들을 조사하면서 가운데 일반적으로

23) 장남원, 「고려전기 해무리굽[옥벽저계] 완의 지속현상에 대한 추론」, 『호서사학』 50집, 2008, pp. 321-353.

13세기 말 또는 14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상감청자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sup>24)</sup> 내저면이 원만하고 운두가 낮으며 넓은鉢 형태의 이들 상감문 발은 용운리 10-II층에서도 소형의 접시와 파편이 번조시 용착된 상태로 출토되고 있어 삼흥리 경우와 일치하며 단순히 생활용이 유입된 것이라고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sup>25)</sup> 따라서 이들 상감류에 대한 제작시기에 대한 재고 내지, 삼흥리와 용운리 10호 요장의 하한에 대한 재고가 요망됨을 피력한 바 있는데,<sup>26)</sup> 이처럼 사당리와 계율리 등지에서 광범하게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후기에서 말기로 이어지는 강진지역 청자 제작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사당리 43호 가마 유구 하부 구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3차의 가마 바닥 보수과정과 관련하여, 시간적 흐름과 연관이 있을 것이며, 고려 말까지 요업이 간헐적으로나마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진 8).



사진 8. 사당리 43호 Tr.2 토층 확인 중 3차 가마 바닥 보수 상황

24) 國立光州博物館, 『康津 三興里窯址』 Ⅱ, 2004, pp. 88-89.

25)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查報告書-圖版編一』, 1996, 원색 도판 72, 90.

26) 장남원, 「강진 삼흥리 도요지의 성격과 출토유물」, 『강진 삼흥리 가마터』, 국립광주박물관, 2006, p.80.

#### 4. 康津 窯址 靑瓷의 生産類形과 沙堂里 43號

사당리는 총 43개 지역에서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유물과 제작관련 자료들을 염두에 두면서 1992년에 발간된 해강도자미술관의 강진 지역 188개 지역 청자 요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사당리 43호 요장의 성격을 알아보려고 한다(표 2).

<표 2> 강진지역 지표조사로 본 청자 유형 분포

(1992년 해강도자미술관 보고서 기준)

유형	I	II	III	IV	V	VI
① 용운리(75)	2	39	53	3	0	7
② 계율리(59)	1	7	56	6	7	31
③ 사당리(43)	0	5	30	12	9	31
④ 수동리(6)	0	0	2	2	3	3
⑤ 삼흥리(5)	3	4	0	0	1	1
계(188)	6	55	141	23	20	80

우선 해강도자미술관이 제시했던 강진 출토 청자의 6가지 유형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7)</sup> 제 I 유형은 높은 굽에 외반된 鉢, 중국식 玉璧底와 玉環底 완이 중심을 이루며 화형접시, 반구병, 편병, 소호 등이 출토되는 경우이다. 유태가 얇고 백색내화토를 사용하여 포개구웠다. 점토가 많이 포함된 얇은 갑발과 갑발 받침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제 II 유형에서는 한국식 해무리굽 완이 주류를 이루며 외반접시, 소형접시, 전접시, 球形油瓶, 잔탁 등 새로운 기종을 동반하는데 발의 외면을 세로로 눌러 화형으로 만들기도 하며, 부조형의 면각연판문과 음각당초문들이 나타난다. 또한 규석 받침 요도구가 발견된다. 갑발에는 다양한 기호 표시가 새겨져 있다. 실제로 용운리에서는 II 유형의 청자가 발견되는 층 위에서는 규석 받침을 사용한 예는 거의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규석 받침용 받침은 발견되었다. 또 강진 용운리 9호에서도 鉢 F형식(굽이 밖으로

27) 보고서의 범례에 있는 내용을 기준에 두고 1992년 조사 이후 발굴 등을 통해 내용이 달라진 부분을 필자가 반영 수정하였다.

벌어지고 동체의 외측면 4곳에 음각선을 세로로 넣은 형식)에서 굽 안바닥에 규석 받침을 대고 구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Ⅲ유형은 굽을 V字형으로 가늘게 깎는 것들이 늘어나고 해무리굽완이 소멸하며 내저원각이 있는 대형의 접시가 등장한다고 하였다. 모든 종류의 굽이 낮고 좁아지며 V형으로 전환하며 기종이 단순해지는 한편, 梅瓶, 缸, 壺, 墩 등의 새로운 기종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陶范을 이용한 압출양각 기법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문양소재인 波濤魚紋과 모란당초문, 앵무문 등이 등장하고 白畫[白堆花], 철화기법이 사용된다. 백색의 고운내화토 받침이 사라지고 모래섞인 거친 내화토 빚음받침을 사용하며 양질의 경우 규석 받침을 사용하였다. 갑발은 대형화되고 異形이 나타나며 갑발 받침과 갑발의 기호가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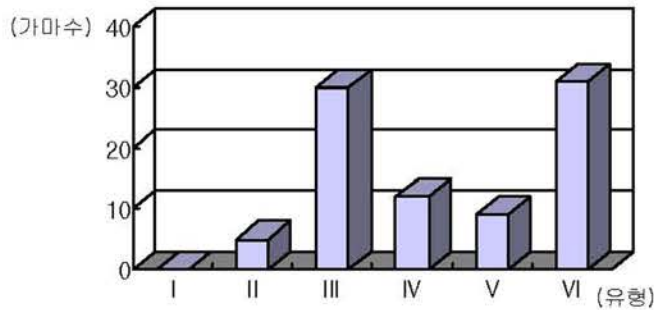
제Ⅳ유형에서는 발, 대접, 완, 접시 등이 중심을 이루는데 내저꼭면식 대접, 직구형 접시와 육각의 접시가 등장하며 기종이 다양해진다. 굽이 낮고 넓어지며 굽의 단면은 V형에서 U형으로 정성들여 깎아낸다. 거친모래섞인 빚음받침 외에 규석 받침이 증가하였다.

제Ⅴ유형은 Ⅳ유형의 기종과 유사하지만 기벽이 두터워지고 硬度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음식기의 경우 상감기법이 내외면에 시문되고 압출양각은 소형 접시류에만 남는다. 굽의 단면이 U형에서 V형으로 바뀌면서 굽의 밑바닥 높이가 높아지고 내저원각이 깊게 파인다. 瓶과 缸 등의 규격이 대형화하고 陶器式 打捺 성형방법이 사용되었다. 소형기물에서는 밀도가 높은 상감문들이 나타난다. ‘己巳’, ‘癸酉’ 등 간지명 상감청자들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번조시에 내화재로는 대부분 규석 받침을 사용하였고 두터운 갑발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제Ⅵ유형은 기종이 단순하고 조질화한다. 유약과 태토는 양질과 조질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조잡해지고 기벽은 두터워진다. 문양장식에서는 상감기법이 주류를 이루지만 50%이상이 무문이다. 문양의 소재는 단순화되고 밀도도 낮다. 상감이 시문된 기명은 내면에 포갠 흔적이 없다. 규석 받침이 없으며 모래섞인 백색내화토 빚음받침, 적갈색 점토빚음, 흑색 점토빚음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갑발의 사용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당리에는 I유형을 생산한 가마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II유형이 발견되는 곳은 6, 8, 11, 24, 35 등 5개소이다. III유형이 제작된 곳은 1, 2, 3, 4, 5, 6, 12, 13, 14, 15, 16, 17, 18, 19, 20,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9, 41, 42, 43호 등 30개 지역이다. IV유형은 7, 8, 9, 15, 23, 27, 38, 40, 41, 42, 43호 등 12개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고려 후기의 V유형은 8, 9, 14, 23, 25, 27, 32, 38, 40호 등 9개소에서, VI유형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2, 33, 37, 38, 39, 40, 41, 42, 43호로 무려 36개소에 이른다. 사당리의 경우 고려 중기부터 말기까지 요업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강진 사당리 출토 청자 유형



특히, 가마터 층위에서 시기적으로 III이나 IV유형보다 앞서는 것으로 확인된 II유형의 경우 사당리에서는 5개소에 불과하여 용운리(38) > 계율리(7) > 사당리(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III유형의 경우 계율리(56) > 용운리(53) > 사당리(30)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사당리는 용운리 보다 늦은 시기에 계율리 지역과 더불어 요업의 중심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당리에서는 III유형 30개소에서, IV유형은 12개소에서 생산되어大口面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IV유형은 가장 높은 생산 빈도를 보여준다. IV유형 강진에서도 가장 고급에 속하는 규석 받침의 비색청자 계열이므로 사당리의 고급품 제작 비중이 가장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표 4> 사당리 지역 청자 유형 분포

유형 窯號	I	II	III	IV	V	VI	備考
1			●			●	III VI
2			●			●	III V VI
3			●			●	III VI
4			●			●	III IV
5			●			●	III V VI
6		●	●			●	III
7				●			IV
8		●		●	●		II IV V
9				●	●	●	III
10						●	VI
11		●				●	II VI
12			●			●	III
13			●			●	III VI
14			●		●	●	VI
15			●	●		●	III IV VI
16			●			●	III VI
17			●			●	III
18			●			●	III VI
19			●				III
20			●			●	III
21						●	VI
22						●	VI
소계	0	3	15	4	3	19	

유형 窯號	I	II	III	IV	V	VI	備考
23				●	●	●	IV
24		●			●	●	II III
25			●		●		III
26			●			●	III VI
27				●	●		IV V
28			●			●	III VI
29			●			●	III V VI
30			●			●	III VI
31			●				III
32			●		●	●	VI
33			●				III
34			●				III
35		●	●				II III
36			●				III
37						●	VI
38					●	●	VI
39			●			●	III VI
40				●	●		IV V
41			●	●			IV
42			●			●	III VI
43			●			●	III VI
소계	0	2	15	4	7	12	
합계	0	5	30	8	10	31	

\*1992 해강도자미술관 조사 자료 재구성

사당리 지역은 강진에서 요업이 시작된 이후 안정기에 중심을 이루던 곳이며 고려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청자가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사당리의 지리적 여건과도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天台山으로부터 女鷄山, 강진만에 이르는 산록에 분포하면서 용운리, 계율리 등과 같은 水系上에 위치하는데, 강진만으로 이어지는 수계상의 산록이 원료의 조달과 운송이 수월하였을 것이므로 고려 후기까지 제작의 중심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와 같은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면 지역 간 제작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보면 대체로 요업의 중심이 삼흥리→용운리→계율리→사당리→수동리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당리 43호 요지의 청자출토 양상과 비교해보면, 해무리굽 碗이 없고, 고려 중

기의 가장 보편적 특징을 지니는 III유형과 함께 고급형인 IV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작되는 양상 등은 사당리의 전체 지표조사에서 드러난 윤곽과 거의 부합하는 결과이다.

## 5. 맺음말-남겨진 과제-

지금까지 2012년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된 강진 사당리 43호 청자요지 출토 청자의 현황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금번 발표에서는 개략적인 양상을 짚어보는데 그쳤기에 몇 가지 남겨진 과제를 상기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본 발표에서는 유구와의 관계를 제외하였으므로, 추가로 드러난 3차에 걸친 가마 바닥면의 존재와 출토품, 유물 퇴적을 연계하여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출토 유물로 보면 조업 기간의 폭이 상당히 긴 것으로 추정되어 의아하지만, 의외로 이 같은 유물의 양상은 실제 강진지역 지표조사에서 파악되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가마의 보수와 재활용, 그와 연계된 생산시기의 문제는 발굴 유물에 대한 정리가 세밀하게 이루어진 후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와 관련하여 사당리와 계율리의 100여개 가마터 중 60여 곳에서 발견되는 고려 말기식 청자에 대한 자료화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발굴 등 고고학적 정보가 없어, 대부분 부유하는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양상이 비중있게 드러나고 있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가마의 3차 보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더 다른 청자요지나 도기 요지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출토 유물 가운데도 작업과정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기 약간편이 수습되었으며, 용운리 9·10호나 삼흥리 등지에서와 같이 대량의 도기는 보이지 않는다. 청자와 더불어 도기와의 병산 내지 겸업 관련 정황을 강진지역 전체 안에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 염두에 두고 살필 필요가 있다.

넷째, 사당리는 강진 전체에서 계율리와 더불어 규석 받침을 사용한 고급품을 가장 많이 생산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시기의 문제인지, 質의 문제인지에 대한 심화 고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발굴이 이루어진 사당리 7호를 보면 흐름에서 43호와 유사하나 더 이른 시기부터

더 다양하게 많은 양의 고급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출토품의 상당수가 고려 왕실 관련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그렇다면 조선 관요 처럼 고려에의 경우도 중심요와 주변요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강진이 冶所로 운영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조선과 같은 “관요”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점이지만 人名으로 추정되는 ‘彦臣’銘 청자 발이 가마 유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2호 수혈 퇴적에서 수습된 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강진지역에서는 人名으로 추정되는 명문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번 출토자료를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尙達’명 발과 당전마을 출토 같은 명문 발편 등이 더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사당리 지역 요지 출토 인명 자료가 갖는 요업사적 의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康津 龍雲里 63號 靑瓷窯址 出土品の 現況과 性格

李鍾玟(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 목 차

1. 머리말
2. 發掘調査의 狀況과 出土品の 現況
3. 出土品으로 본 龍雲里 63號의 窯業史的 性格
4. 맺음말

### 1. 머리말

강진은 고려청자의 요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그 위상은 窯場의 수와 생산품의 품질, 존속기간에 있어서 최대, 최고, 최장이라는 수식어를 부여하는데 이견이 없다. 강진의 청자요지는 1913년 봄, 대구면 주재소원이었던 中島義軍이 요지를 발견하여 보고를 하면서 세간에 공개되었다.<sup>1)</sup> 그리고 수 차례의 부분적인 학술조사를 거쳐 1991년에는 해강도자미술관의 정밀 학술지표조사에서 최종적으로 188개소가 확인되면서 가마군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sup>2)</sup>

188개소의 강진 청자요지는 대구면과 칠량군 일원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용운리 63호는 기형의 조합, 청자의 형태, 유약의 시유상태 등이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 요지 출토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sup>3)</sup> 또, 초기청자와 관련한 연구성과에서는 이 가마가 강진의 청자사에서 가장 이른 단계일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되면서 강진 요업의 시작을 이해하는 중요한 窯蹟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sup>4)</sup>

용운리 63호는 1989년 강진고려청자사업소의 이용희 실장이 새로 발견

1) 野守健, 『高麗靑磁の研究』(清閑舍), (1944), pp. 231-232.

2) 海剛陶磁美術館-全羅南道康津郡, 『康津의 靑磁窯址』(1992).

3) 海剛陶磁美術館, 『벽돌가마와 초기청자-Excavation of the Early Koryo Celadon』(2000), p. 26.

4) 崔健, 『韓國 靑磁 研究의 새로운 動向』, 『미술사연구』 제16호(미술사연구회, 2002), pp. 177-197; 張起燾, 『窯道具를 통해 본 初期靑磁 窯業의 變遷』, 『미술사연구』 제16호(미술사연구회, 2002), pp. 229-253.

한 유적으로 1991년의 지표조사 당시 수집품이 적어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2012년에는 재단법인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 사당리 43호와 함께 용운리 63호를 학술발굴조사하면서 출토유구와 유물에 대한 특징 파악과 그에 따른 해석이 가능해졌다.

이 글은 그동안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확보된 용운리 63호의 고고학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구와 유물의 특징, 요업시기를 포함한 성격문제를 거론하려 한다. 연구목적은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는 유구와 유물에 대한 현상을 살펴보고, 다른 초기청자와의 조형적, 기술적 관계를 비교해 본 후, 가마의 운영시기와 성격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학술발굴의 결과를 토대로 접근한 이 논고가 강진 청자의 시작점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발굴조사의 상황과 출토품의 현황

### 1) 가마 유적과 퇴적

용운리 일대는 대구천(용문천)의 상류지역으로 雲谷, 巷洞, 龍門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75기의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가마터가 산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sup>5)</sup> 용운리 63호는 淨水寺로 향하는 소로의 북쪽 좌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골짜기 안에는 용운리 60, 61, 62호가 연접하여 있다. 용운리 58-1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63호 가마는 2012년의 발굴조사에서 가마 유구와 퇴적층이 노출되었다.

가마의 구조는 구릉사면을 정리하여 바닥을 살짝 파내고 측벽면과 천정부를 진흙으로 올린 반지하식의 단실 등요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랜 경작과 주변지형의 침하로 가마의 상당부분이 유실되어, 남아 있는 부분은 길이 470cm, 너비 130cm에 불과하며 지표로부터 바닥은 약 50cm 내려가 있다(사진 1). 현장은 가마의 배연부 쪽에 민묘가 조성되어 있어 가마 상부의 확인을 위한 발굴지역 확장이 불가하였는데 유구는 노출된 부분을 통해 이미 민묘의 조성과정에서 상당부분이 훼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지형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과 봉통부 쪽이 예전부터 개울이었던 점

5) 강진군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사당리 43호 · 용운리 63호 고려청자 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2.12). p. 35.



사진 1. 강진 용운리 63호의 窯構

들을 고려하면 가마의 전체 길이는 10여m 이상을 상회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마 벽은 내면에 진흙을 발라 활용한 토축요이다(사진 2). 현재 잔존하는 가마의 상태로 볼 때 측면 출입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흔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층이 가마의 좌편(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측면 출입구는 왼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폐기물 퇴적층은 가마의 좌측에 약 1m 가량 떨어져 420×420cm의 범위안에 최대깊이 120cm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사진 3). 이곳 역시 가마와 마찬가지로 경작활동이나 오래된 침식과정 속에서 상당부분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폐기물 층은 3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소량의 청자 파편과 다수의 갑발, 갑발 받침 등이 수집되었다. 용운리 63호 출토유물의 양식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물 퇴적층에서 수집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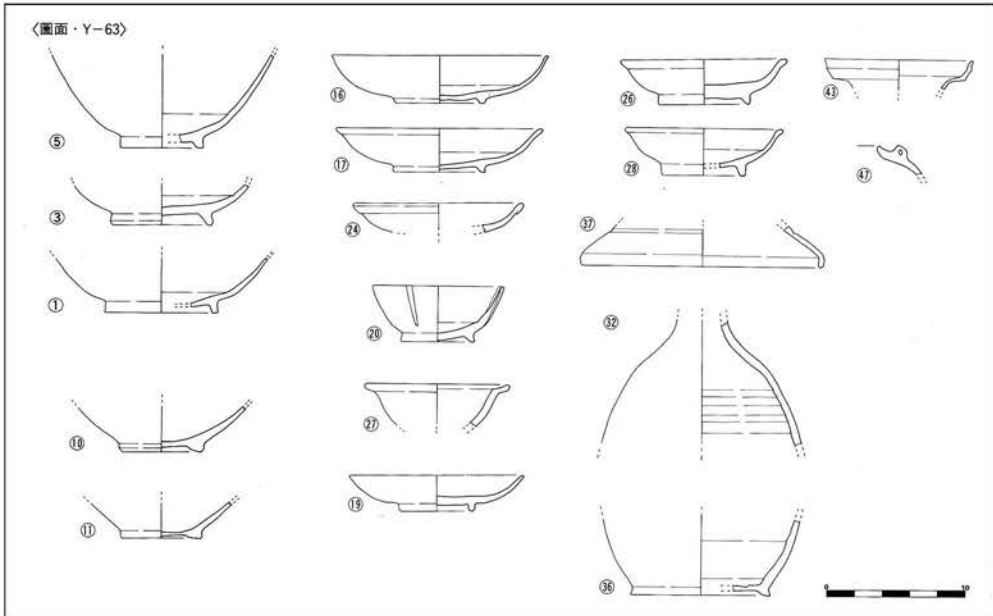
사진 2. 용운리 63호 가마 벽 상태



사진 3. 용운리 63호 좌측 폐기물층

## 2) 출토품의 구성과 특징

수집된 출토품은 크게 청자편과 요도구로 구분이 가능하다. 청자의 기종은 발, 완(선해무리굽, 한국식해무리굽), 잔, 각종 접시류(구연외반형, 구연내만형, 옥연형, 화형, 뚜껑형), 소호, 반구병, 반구편병, 뚜껑 등이 확인되었고, 1991년의 지표조사품과 2012년의 발굴조사품이 동일한 양상을 지닌다(도면 1).<sup>6)</sup> 더 많은 기종과 기형이 존재했었을 것으로 보이나 퇴적층의 상당부분이 유실된 상태이므로 현재 파악이 가능한 청자의 기종은 지극히 제한적인 편이다.



도면 1. 1991년 용운리 63호 지표 수집품  
『康津의 靑磁窯址』(1992), p. 158 발췌)

해무리굽완을 생산한 강진의 초기청자 요지 수는 용운리에 29기(9, 13, 16, 17, 18, 19, 26-①, 27, 28, 32, 33, 34, 36, 37, 42, 43, 44, 45, 46, 47, 50-①, 52, 53, 54, 55, 60, 63, 71, 75호), 계율리에 1기(55호), 사당리에 1기(11호), 삼흥리에 3기(1, 2, 3호) 등 총 34기가 있다.<sup>7)</sup>

6) 海剛陶磁美術館-全羅南道康津郡, 앞의 보고서(1992), pp. 158-160 ; 강진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약보고서(2012. 12).



기종 구성과 기형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들 窯場의 출토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용운리 63호는 제작 양상에서 다소 독특한 점이 발견된다. 구체적인 비교는 뒷장에서 서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기벽의 두께와 무게, 釉色, 釉層의 厚薄, 시유상태, 굽깎음새 등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용운리 63호 출토 청자류는 질적으로 두 계통이 존재한다. 하나는 기벽과 유층이 무척 얇고 무게가 가벼운 그룹으로 청자는 짙은 녹색색조의 유색에 일부 기종에서는 유약이 말린 현상이 나타난다. 이 계통의 그릇들은 전반적으로 굽을 좁고 예리하게 깎았는데 내저곡면에 선해무리굽을 가진 완(이하 A유형)들도 여기에 포함된다(사진 4, 5). 그릇의 내면에는 재나가마 천정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 갑발을 선별적으로 사용한 듯하며 출토 유물의 대다수가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하겠다.



사진 4. 갑발의 자연유



사진 5. 상부를 보수해 재활용한 예

또 다른 그룹은 상대적으로 기벽이 두껍고 같은 기형이라 하더라도 약간 무겁다. 특히 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釉面이 깨끗하고 유층이 두꺼우며 유색은 부드러운 청녹색을 띠고 있어 마치 송대의 鈎窯 등에서 볼 수 있는 天青色과 유사함을 느끼게 한다(사진 6, 7). 여기에 속하는 완들은 내저에 원각이 살짝 비치고 굽은 한국식해무리굽에 가까워 선해무리굽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완들은 내저면에 원각이 선명하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형적인 한국식해무리굽완과도 차이가 있다. 이를 ‘과도기 해무리굽완’이라 부르겠다(이하

7) 海剛陶磁美術館全羅南道康津郡, 앞의 보고서(1992)에 수록된 각 가마터별 파편을 관찰한 결과임.

B유형).<sup>8)</sup> 특히 B유형의 완들은 모두 갑발에 넣어 구운 듯, 내면에 잡티가 없어 완성도가 높다. 이처럼 한 가마 제품들 간에 제작방식에 따른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수요대상에 따른 상품성의 차별화를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사진 6. 갑발 받침의 종류



사진 7. 원주형 도침

수집된 청자에 비해 훨씬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요도구류이다. 용운리 63호에서 수집된 요도구로는 갑발, 갑발 받침, 도침, 불창마개 등이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갑발은 원통형이 기본을 이루는데 크기와 높낮이가 다양하다. 태토는 고운 자토를 활용한 것과 모래섞인 거친 태토를 활용한 두 종류가 있으며 자토를 활용한 경우에는 기벽이 얇고, 거친 태토를 사용한 예는 두껍다. 갑발의 제작 흔적을 보면 물레의 상판위에서 뒤집어 제작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순서는 둥근판을 먼저 두드려 편 후 측면은 타래를 쌓아 타날하여 접합하고 손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로 인해 갑발의 외측면에는 타날 흔적이 조금씩 남아 있다.

주목할 점은 갑발 측면의 상부에 통기공이 뚫려 있거나 기호가 새겨진 예가 많다는 것이다. 통기공은 원이나 삼각 형태의 구멍 1~3개를 외부에서 뚫었고 통기공의 주변이나 가운데에는 원이나 +자형의 음각부호를 새겨 놓았다. 모양이 같은 투공이나 기호가 있는 갑발들은 여러 벌 수집되

8) 필자는 예전의 다른 논고에서 이 형식의 완에 대해 적절한 용어를 찾기 어려워 ‘중간단계’라는 어색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최근 이희관의 글에서 표현된 ‘과도기 유행저완’은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변화단계를 내포하는 의미를 잘 담고 있어 이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李喜寬, 『韓國 初期靑瓷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지방사와 지방문화』 14권 2호(역사문화학회, 2011.11), pp. 7-51.

는데 통기공은 기물을 구울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뚫은 것으로 보이며 기호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표식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통기공의 수나 기호의 종류가 다양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갑발은 파손되지 않은 경우 여러 번 사용한 듯하다. 갑발끼리 붙거나 원통형 갑발의 상면 중앙에서 볼 수 있는 내화토 자국을 보면 여러 번 사용한 흔적이 중첩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갑발들은 대부분 磁化되어 있고 외피 부분에 녹갈색의 자연유가 두껍게 着釉되어 있어 강한 火度와 많은 재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上部가 터진 갑발의 경우에는 폐갑발의 상부를 잘라 그 위에 올려놓고 다시 사용한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어 재활용율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갑발 받침은 원통형 갑발의 지름에 따라 같은 크기를 가지며 역시 다양한 크기가 존재한다. 갑발 받침은 다리모양에 따라 3종으로 구분되는데 다리가 밖으로 벌어지거나 수직에 가까운 것, 안으로 오므라든 것이 있다. 갑발 받침은 갑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화가 덜 되었는데 이것은 받침이 가마 바닥에 위치하는 관계로 온도가 낮아 덜 익은 것이 분명하다.

그 밖의 요도구로는 도침이 있다. 支燒具인 陶枕은 원주형으로 지름이 약 12cm, 높이가 14cm에 이르며 강진을 위시한 한반도 서남부 일원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비교하면 꽤 큰 편에 속한다. 이 도침은 다른 가마터에서 발견되는 경사진 도침과는 형태나 크기가 달라 용운리 63호의 지소구가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 상면에 있는 굽지름 흔적으로 볼 때 이들 도침은 굽지름이 넓은 반구형이나 반구편병 등과 같은 기물의 적재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 크기는 유사하나 한쪽 지름이 넓고 자화된 양상의 차이가 크며 가운데 구멍이 뚫린 요도구로서 불창마개도 발견되었다.

### 3. 출토품으로 본 용운리 63호의 요업사적 성격

#### 1) 중서부지방 전축요 출토품과의 관계

용운리 63호의 출토유물을 청자류와 요도구로 나누어 유사 양상을 보이는 중서부지방 전축요 출토품과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발굴조사로 알려진 몇 지역의 전축요 출토 사례와 기종 구성, 주요 기종의 특징, 유약과 유색, 초벌유무, 굽깜음새

등의 제작기법, 요도구의 종류 등을 비교하여 용운리 63호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겠다.<sup>9)</sup>

### (1) 기종 구성과 주요 기형의 특징

용운리 63호에서는 청자기종으로 완(A, B유형), 발, 잔, 각종 접시류(구연외반형, 구연내만형, 옥연형, 화형, 뚜껑형), 소호, 반구병, 반구편병, 뚜껑 등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이 발굴조사에서 수집된 기종이기는 하나 폐기물 퇴적층이 얇아 과연 실제로는 얼마나 다양한 기종을 생산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에 비해 배천 원산리 2호에서는 발(화형), 완(A유형), 접시(화형, 뚜껑형, 옥연형, 구연내만형), 잔(반구형), 잔탁, 뚜껑(합뚜껑, 주자뚜껑, 소호뚜껑), 합, 주자(나팔구연형, 구연직립형, 참외형), 소병(나팔구연형), 풍주, 호(원형, 구연직립형), 타호, 제기(호, 두형) 등이 수습되어 기종과 기형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청자와 백자를 함께 번조한 시흥 방산동 요지의 경우도 배천 원산리와 기종에서 유사성을 보이거나 잔탁의 종류가 다양하고 반구형병, 장고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차이점에 해당한다.<sup>11)</sup>

강진 용운리 63호와 두 전축요는 요업의 규모나 축요방식, 조업기간 등이 다르므로 생산기종의 수나 양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계통이 다른 가마로 보는 경향으로 인해 제작품의 사례도 다를 것으로 이해하는 연구성과도 있다.<sup>12)</sup> 그러나 생산된 기종 중에 겹치는 예들을 관찰해 보면 의외로 동질성이 많이 감지된다. 이제 기형이 일치하는 예들을 몇 점 비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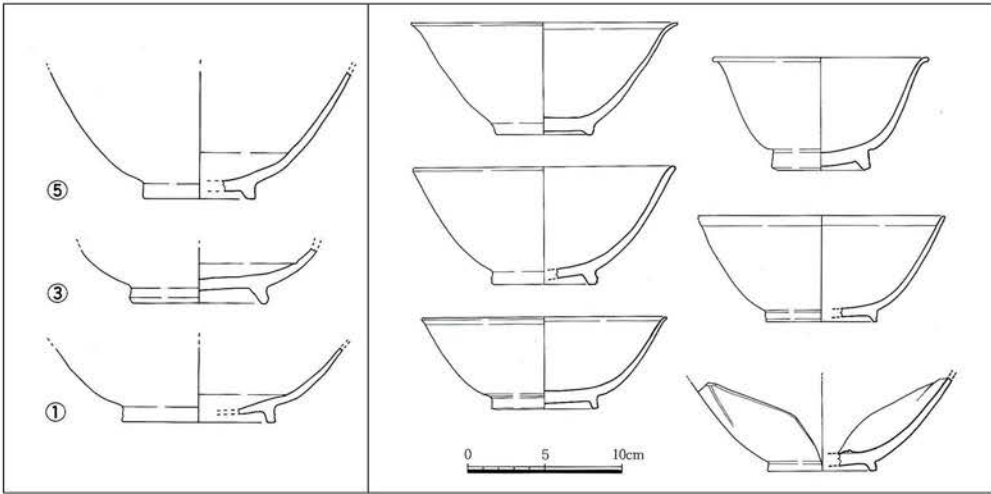
① 발 : 용운리 63호 출토의 발은 구연이 외반하고 굽다리가 높으며 굽이 직립하거나 밖으로 살짝 벌어졌다. 이와 동일한 형식의 발은 시흥 방산동 요지에서 발견된 청자의 발과 차이가 없다(도면 2).

9) 비교는 여러 가마가 있지만 전축요에서도 가장 이른 단계이자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시흥 방산동 출토품과 배천 원산리 2호 출토품을 대상으로 하겠다.

10)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봉천군 원산리 자기 가마터』, 『조선유적유물도감』 12(평양, 1992), pp. 306-315; 김영진, 『도자기 가마터 발굴보고』(백산자료원, 2003), pp. 94-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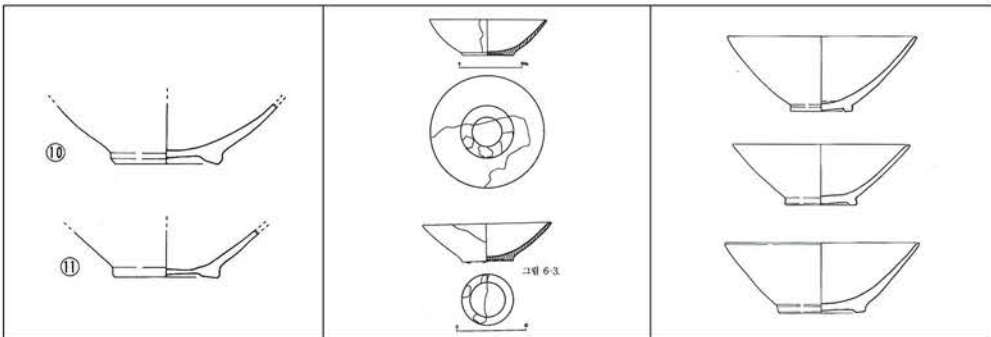
11)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始興市, 『芳山大窯』(2001).

12) 崔健, 『韓國初期青磁の分類と變遷-窯址出土品を中心に-』, 『東洋陶磁』 Vol.22(東洋陶磁學會, 1994), pp. 4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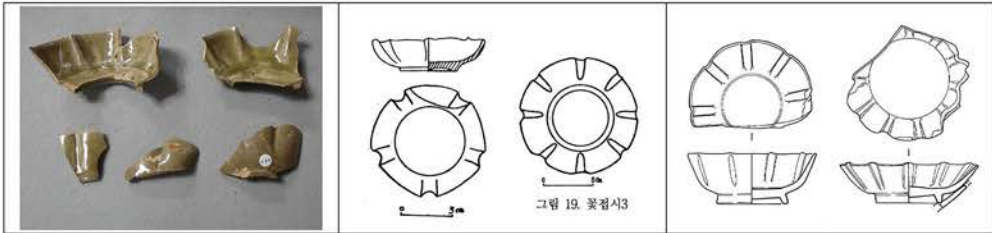
도면 2. 용운리 63호 출토 발(좌), 시흥 방산동 출토 발(우)

②완 : 용운리 63호의 완들은 A와 B유형이 공존한다. 배천 원산리 2호 요지나 시흥 방산동 출토품들도 내저곡면에 선해무리굽을 가진 완이 중심을 이루고 일부는 내저가 곡면이되 접지면이 한국식해무리굽완처럼 넓은 계통이 포함되어 있다. 또 드물게는 시흥 방산동의 경우 내저원각과 넓은 접지면을 가진 옥벽저 스타일의 백자완이나 내저원각이 살짝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내저곡면, 선해무리굽, 접지면이 넓은 굽 등의 공통점은 용운리 63호와 전축요 생산품간에 공통점을 보이는 요소가 된다(도면 3). 또 완의 크기와 용적률이 유사하다는 점도 서로 떨어진 두 지역의 생산품간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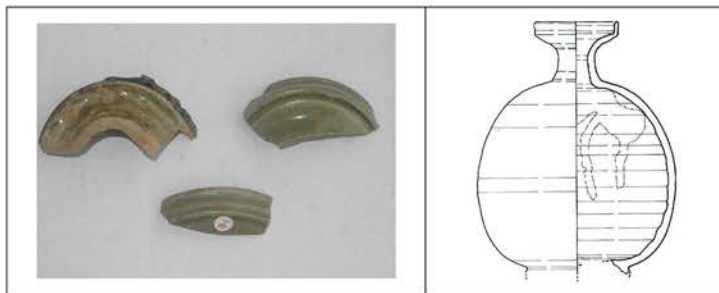
도면 3. 용운리 63호(좌), 배천 원산리(중), 시흥 방산동 출토 완(우)

③접시 : 다양한 접시류 중 용운리 63호의 화형접시는 구연이 살짝 내  
 만한 소형접시의 외벽을 가느다란 나무도구로 강하게 눌러 요철이 강한  
 단면형태를 보인다. 같은 형태의 화형접시는 배천 원산리 2호의 1차 가마  
 에서도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시흥 방산동 요지에서도 확인되었다(도면  
 4). 또 구연이 밖으로 말린 옥연형 접시의 경우도 형태와 크기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태로 세 지역의 가마에서 모두 수습되고 있다. 구  
 연이 내만한 접시나 뚜껑형 접시도 놀라울만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점들은 전축요의 조형이나 용운리 63호의 조형에 크게 차이가 없  
 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도면 4. 용운리 63호(좌), 배천 원산리(중), 시흥 방산동 출토 화형접시(우)

④반구병 : 용운리 63호에서는 병의 구연부로 추정되는 盤口가 여러 점  
 확인되었다. 반구의 외측면은 수직을 이루는 경우도 있으나 외면에 돌대  
 처럼 요철이 보이는 사례도 있다. 원산리 2호 요지에서는 반구병 대신 나  
 팔구연형 병들이 수습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시흥 방산동의 경우는  
 요철면이 보이는 반구병들이 출토품 중에 섞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  
 병도 중서부지역의 전축요 제품과 유사한 기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도면 5).



도면 5. 용운리 63호(좌), 시흥 방산동 출토 반구병(우)

## (2) 제작기법

용운리 63호 생산품 중에 A유형에 속하는 유물들은 질은 녹갈색조의 유층이 얇게 시유되어 있으며 일부 기종에서는 유약이 뭉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유색과 현상들은 배천 원산리 요지 출토품이나 시흥 방산동 요지의 청자에서도 자주 보이고 있다(사진 8, 9). 또 얇은 기벽에 굽의 접지면이 좁으면서 굽깎음새가 또렷한 모습도 용운리 63호와 전축요 출토품의 간에 차이가 없다. 특히 가는 모래가 섞인 미백색의 내화토 흔적이 굽의 접지면 서너 곳에 남아 있는 모습은 전축요 출토품이나 용운리 63호 간에 유사한 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알게 해준다(사진 10, 11). 이러한 모습들은 전축요와 용운리 63호의 제작방식에서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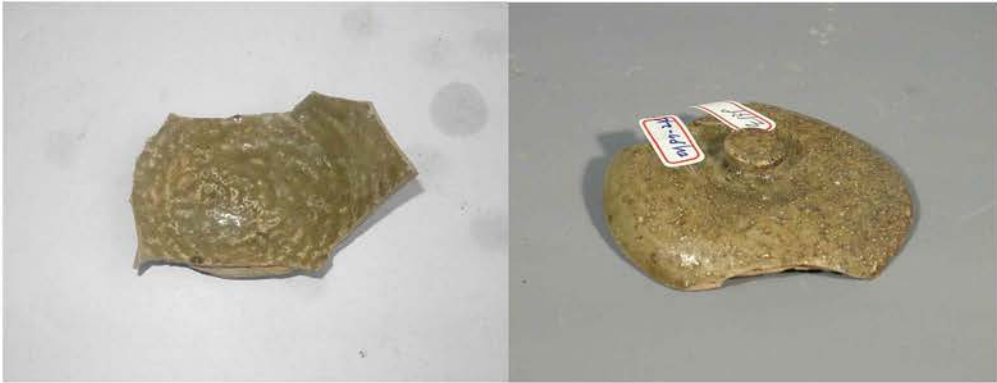


사진 8. 용운리 63호 청자 유면

사진 9. 방산동 요지 청자 유면



사진 10. 용운리 63호 청자 내화토

사진 11. 방산동 요지 청자 내화토

### (3) 요도구의 종류

용운리 63호에서 수집된 요도구로는 갑발, 갑발 받침, 도침, 불창마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갑발은 대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원통형이었고 기벽이 얇으며 기호나 통기공이 있다. 전축요 출토품의 갑발은 鉢形, 圓筒形, 覆鉢形(투구형)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원통형이며 이들은 하나같이 기벽이 얇다(사진 12). 전축요 출토의 갑발에는 통기공이나 기호를 표시한 예가 거의 없으나 형태와 크기, 두께를 보면 양상이 유사하여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갑발 받침은 용운리 63호의 경우 다리 모양에 따라 미세하게 3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것 역시 전축요에서 볼 수 있는 床形이나 원반형의 갑발 받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사진 13).



사진 12. 용운리 63호 원통형 갑발(좌)와 시흥 방산동 원통형 갑발(우)



사진 13. 용운리 63호 갑발 받침(좌)과 시흥 방산동 요지 갑발 받침(우)

요도구의 변천과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원통형 갑발과 복발형(투구형) 갑발은 전축요와 토축요를 막론하고 함께 쓰였으며 사용법이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13)</sup>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용운리 63호의 갑발과 받침은 전축요의 요도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적재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좋겠다.

한편, 용운리 63호에서 발견된 원주형의 도침은 강진을 위시한 주변의 가마터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와같은 도침이 전축요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실은 용운리 63호가 개요한 이후 조업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받침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기형 비교를 통해 용운리 63호와 배천 원산리 2호 요지, 시흥 방산동 요지와 같은 전축요 출토품 간에는 서로 다른 측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면 발굴이 실시되어 출토양상이 완전하게 파악된 시흥 방산동 요지를 제외하고, 용운리 63호는 가마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배천 원산리 2호 요지는 가마의 내부만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출토유물을 대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수습품의 많은 사례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은 생산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혀 다른 기술에 의해 청자가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즉, 동일한 시기이든,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든 용운리 63호와 전축요는 계통이 다른 가마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용운리 63호는 전축요의 청자생산기술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2) 남서부지방 기타 요장 출토품과의 관계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용운리 63호의 출토품이 전축요의 생산품이나 변조도구들과 여러 부분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유사한 단계로 보이는 서남부 일대의 다른 요장 출토품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비교의 대상은 지금까지 학술조사를 통해 개략적인 양상을 알 수 있는 장흥 풍길리 요지,<sup>14)</sup> 고흥 운대리 1호,<sup>15)</sup> 해남 신덕리 D지구,<sup>16)</sup> 강진 용운리 9호의<sup>17)</sup> 출토유물을 중심으

13) 張起熙, 앞의 논문(미술사연구회, 2002), p. 229-253.

14) 國立光州博物館, 『全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IV)』(1995), pp. 136-137, pp. 168-170.

15) 고흥 운대리의 청자요지 1,2,3,4,5호 중 양식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운영은 1호→4호→2호→3·5호 순서로 진행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여기에서 비교하려는 대상은 가장 이른 단계를 보이는 1호로 국한한다. 李鍾玟, 「高興 雲垞里 靑磁의 特徵과 窯業性格」, 『高興 雲垞里 陶瓷文化의 性

로 한다.18)

### (1) 기종 구성과 주요 기형의 특징

아래의 (표 1)은 서남부 일대에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시행된 가마 중 채집한 유물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공통분모를 보이는 기종과 기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서남부지방 요장 출토 자기 기종과 기형

요지	청자 기종	흑유 기종	조사형태
강진 용운리 63호	완(A,B유형), 발, 잔, 각종 접시류(구연외반형, 구연내만형, 옥연형, 화형, 뚜껍형), 소호, 반구병, 반구편병, 뚜껍	없음	발굴조사
장흥 풍길리	발, 완(A,B유형), 접시	없음	지표조사
고흥 운대리 1호	발, 완(A,B유형), 접시(구연내만형, 화형), 잔	반구병, 소병, 호, 주자	지표조사
해남 신덕리 D지구	발, 완(A,B유형), 접시(구연내만형, 화형)	반구병, 소병, 호	지표조사
강진 용운리 9호	발(무문, 화형, 연관문, 음각국당초문), 완(A,B,C유형), 접시(전접시, 화형, 구연내만형, 구연외반형, 소형, 뚜껍형), 각종 뚜껍, 반구편병, 반구형잔(연관문포함), 잔탁 3종, 합, 호, 항, 반구병, 반구편병, 유병, 장고, 주자, 버루 등	없음	발굴조사

①발 : 비교대상이 되는 각 가마 출토품들의 발 형태는 측사면이 곧고 구연이 살짝 외반하거나 직사선을 이루며 굽다리가 높고 벌어진 것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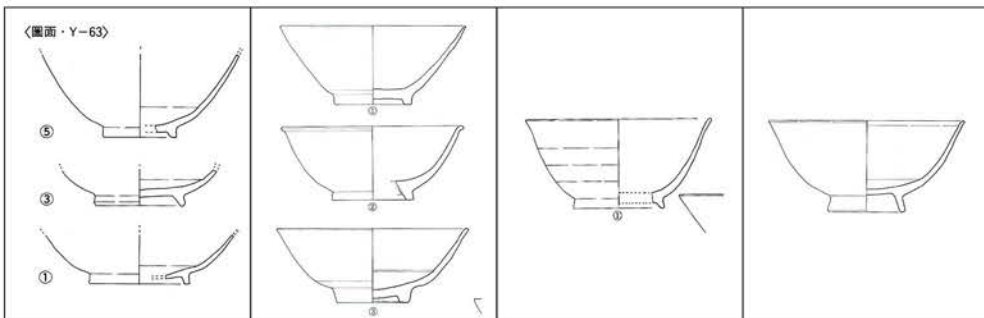
格」(高興郡·高興文化院·全國文化院聯合會 全羅南道支會, 2005), pp. 71-107.

16) 國立光州博物館, 『海南 新德里 靑磁陶窯址 精密地表調査 報告書』(2000), pp. 52-53, pp. 76-83.

17)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圖版編』(1996), pp. 91-112, pp. 233-272.

18) 이 밖에도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시행된 가마들이 있다. 그러나 내저원각이 선명한 한국식해 무리굽완을 동반한 경우는 단계상 뒷 시기의 것으로 파악하여 논외로 하였다. 다만, 용운리 9호 요지 출토품의 경우는 보고서에 기종과 기형의 사례가 유형별로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비교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종을 이룬다. 이 형태의 발은 수량도 많고 가장 기본형으로 제작된 듯하다. 개중에는 굽내면을 깊이 깎아내어 발의 바닥면이 얇게 성형된 경우도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른 가마들의 경우 무문발이 대부분이나 용운리 9호 출토품에는 花瓣을 묘사하기 위해 측사면을 누른 흔적이 있거나 아예 연판문을 넓게 깎아낸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용운리 9호의 경우는 단계상 약간 늦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을 용운리 63호 출토의 발과 비교해 보면 용운리 9호 출토품들의 다양한 기법이 시도된 예를 제외하고 기본형이 동일하다. 따라서 용운리 63호는 용운리 9호를 제외하고 장흥 풍길리, 고흥 운대리 1호, 해남 신덕리 D지구와 같은 제작단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도면 6).



도면 6. 용운리 63호, 운대리 1호, 신덕리 D지구, 용운리 9호 발의 형태

②완 : 완의 형식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내저원각이 없고 선해무리굽형식을 가진 완(A유형)과 내저에 미세한 원각의 흔적이 보이고 선해



사진 14. 용운리 9호 청자완 내면



사진 15. 용운리 9호 청자완 외면

무리굽, 혹은 한국식해무리굽을 가진 과도기 해무리굽완이 공존하는 양상은 (표 1)에 제시한 가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용운리 9호 만큼은 여기에 내저원각이 선명하고 접지면이 넓은 전형적인 한국식해무리굽완(C유형)이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형식이 추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사진 14, 15). 이러한 완의 형식들간에 어떠한 선후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③접시 : 수집된 파편수량이 적은 장흥 풍길리 요지를 제외하고 (표 1)에서 비교한 가마들에서는 구연내만형접시와 화형접시가 수집되었다. 구연내만형접시들은 구경이 약 11~14cm에 이르며 내측면의 중앙부에 내저선각이 돌려진 경우가 섞여 있다. 이 양상은 모든 가마에서 수집된 같은 유형의 접시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 외측면을 밖에서 안쪽으로 강하게 눌러 화형을 묘사한 화형접시도 모든 가마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기형이다. 이 접시의 외면을 누르는 수법이나 8또는 10화형을 이루는 화판의 수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이들 가마들이 같은 단계에서 조업을 했음을 알려주는 예라고 하겠다.

## (2) 제작기법

서남부 일원의 비교대상 가마들 중에서 유색이나 제작분위기가 가장 유사한 것은 장흥 풍길리 요지 출토품이다. 완의 형식은 물론이고 기벽의 두께가 얇다는 것과 시유상태에서 유층이 얇고 유약이 묻치는 현상이 보이는 현상 등은 두 가마 간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강진 용운리에서 장흥 풍길리가 천관산과 천태산을 사이에 두고 직선으로 10여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은 도공집단이 동일하거나 같은 영향권 안에 있었음을 추정하게 해주는 지정학적 요인이 될 것이다.

이밖에 위에서 열거한 가마 수집품들에서는 백색, 혹은 미백에 가까운 모래섞인 내화토 흔적이 대부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초기 토축 요들이 적재과정에서 같은 재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번조 받침에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점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 인접한 고흥 운대리 1호 요지에서는 조개껍데기를 받쳐구운 사례들도 확인되며(사진 16), 용운리 9호의 경우는 잘 떨어지는 미백의 고운 내화토나 규석 받침을 사용되고 있어(사진 17) 주변의 환경적 요소로 인해, 혹은 상품성의 확보를 위해 받침 재료를 달리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16. 운대리 1호 조개껍데기 받침 사진 17. 용운리 9호 내화토 받침

### (3) 요도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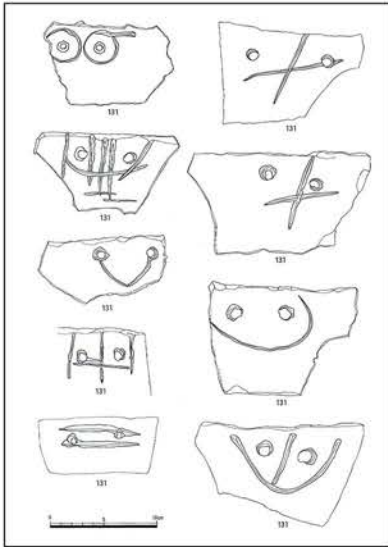
강진을 위시한 서남부지방의 토축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전축요에서 출토되는 예에 비추어 사용하는 갑발이나 갑발 받침의 종류가 줄어들고 갑발뚜껑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마에 도자기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간소화를 지향하는 것이다.<sup>19)</sup> 그에 반해 토축요에서는 도침을 포함한 支燒具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가마에 따라서는 점소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비교대상이 되는 초기청자 요지의 출토 예를 활용하여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알아보자(표 2).

<표 2> 서남부지방 요장 출토 요도구의 종류

요지	갑발 종류	갑발의 두께, 태토	통기공, 기호	갑발받침 종류	支燒具 (도침)	墊燒具
강진 용운리 63호	원통형 대소 존재	기벽 얇음, 태토 2종	삼각형, 원형통기공 기공 수-1,2,3구 기호-원형, +자 등	3종	원주형	확인 안됨
장흥 풍길리	원통형	기벽얇음	확인안됨	床形 1종확인	확인 안됨	확인 안됨
고흥 운대리 1호	원통형 대소 존재	기벽얇음 태토 2종	원형통기공, 기공 수-1,2구	2종확인	확인 안됨	확인 안됨
해남 신덕리 D지구	원통형 대소 존재	기벽 얇고 두꺼운 것 혼재	원형통기공 기공 수-1,2구	1종확인	확인 안됨	확인 안됨
강진 용운리 9호	원통형 복발형 대소 존재	기벽 얇고 두꺼운 것 혼재	원형 통기공 기공 수-2구 기호-사각, 원형, +자 등	床形 1종확인	원주형 원반형	墊餅 足座

19) 張起熏, 앞의 논문(미술사연구회, 2002), p. 229-253.

우선 갑발은 용운리 63호를 비롯하여 모든 가마에서 원통형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용운리 9호에서는 복발형의 갑발에 손잡이가 양쪽에 붙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갑발의 크기는 적재하는 기물에 따라 대중소의 크기가 존재하는 듯하고 거친 태토와 고운 태토로 제작한 것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다. 기벽의 두께는 강진 용운리 63호나 장흥 풍길리, 고흥 운대리 1호에서 기벽이 얇은 갑발을 사용한 예가 확인되나 해남 신덕리 D지구, 강



도면 7. 용운리 9호  
갑발의 통기공과 기호

진 용운리 9호에서는 두꺼운 기벽을 가진 예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상황은 조사상이 한계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가마 간의 요도구의 제작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갑발 측면에 뚫려 있는 통기공의 수나 형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기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마에서 확인되었다(도면 7). 모양이 다른 통기공을 뚫고 기호를 부여하는 행위는 전축요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도공들의 제작관행으로 서남부의 생산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통기공은 도자기를 잘 번조하기 위한 지혜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나 모양과 구멍수가 다른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구분을 하기위한 의도가 강하다. 여러 형태의

기호 역시 표식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갑발 받침은 가마다 종류가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전면 발굽이 아닌 경우 수집품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해석하기가 어렵다.

전축요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요소로서 토축요에서만 발견되는 요도구로 지소구와 점소구 등이 있다. 강진 용운리 63호에서는 원주형의 도침 이외에 지소구의 종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흥 운대리의 또 다른 가마와 해남 신덕리 D지구 이외의 주변 가마군, 강진 용운리 9호 등에서는 원반형이나 썰기형의 경사진 도침이 발견되기도 하여 갑발을 씌우지 않은 채 疊燒하는 방법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특히 강진 용운리 9호의 경우에는 납작한 점병이나 원주형의 족좌 등에 규석을 박아 활용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시기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제작기종과 기형, 제작기법, 요도구의 종류라는 측면에서 비교해 본 결과 각 가마들 간에는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보이고 있다. 즉, 기종과 기형의 비교, 흑유자기의 유무, 기벽의 두께, 유층의 후박, 유색과 유약의 번조상태, 갑발의 종류와 두께, 기타 번조도구의 유무 등에서 강진 용운리 63호와 장흥 풍길리는 같은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청자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고흥 운대리 1호와 해남 신태리 D지구 역시 또 다른 그룹으로 분리되고 있다. 완성도가 높고 유색이 좋으며 다양한 기종을 생산한 용운리 9호는 이들과는 또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시기적인 차이인지, 품질과 관련한 문제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여러 토축요 중에서 용운리 63호와 장흥 풍길리 가마가 가장 유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축요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3) 조업시기 추론과 요업사적 성격

#### (1) 추론의 근거와 조업시기

용운리 63호는 가마 구조나 축조방식을 제외하고 강진에 산포한 188개소의 가마 중 전축요 출토품과 가장 유사한 조형과 생산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용운리 63호는 출토품들의 양식적인 특징을 볼 때, 강진에서의 도자생산단계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운영된 가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용운리 63호의 조업시기는 강진 청자의 출발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마의 조업시기를 추론하기 위해 몇 가지 근거가 될 만한 전제를 바탕으로 필자의 판단을 서술하겠다.

①가마 축요방식의 변화 : 주지하듯 한국의 초기청자 요구조는 전축요와 토축요계통이 존재하며 일부 가마의 경우 전축에서 토축으로 축요제를 바꿔 요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축요방식을 바꾼 대표적인 가마들 중에 발굴조사가 된 가마는 용인 서리 중덕요지(사진 18, 19), 용인 서리 상반요지, 여주 중암리 요지, 고창 용계리 요지 등이 있다.<sup>20)</sup> 이들 가마들은 지

20) 고창 용계리 요지는 발굴당시 토축요로 이해하고 조사를 마무리하였다(鄭明鎬, 尹龍二, 『高敞 雅山담水沒地區發掘調查報告書-靑磁窯址·冶鐵址·逸名寺址·빈대절터』(圓光大學校 馬韓百濟

표를 걷어내고 노출된 최종상태가 토축요였으나 하부 구조의 확인에서 전축요가 노출되었고, 혹은 벽돌들이 폐기물층에 대량 포함되어 있어 이른바 ‘전축요계 토축요’로 구분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사진 18. 용인 서리 중덕 전축요구 사진 19. 용인 서리 중덕 토축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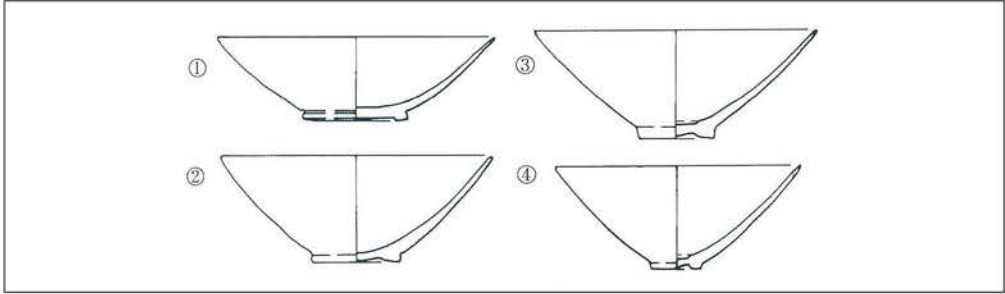
이와 같은 가마 축조계의 변화는 예외가 없어 국내에서 발견되는 초기 청자 가마가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전환해 갔다는 사실에 이의를 달기는 어렵다. 따라서 축요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고학적 결과는 적어도 전축요가 토축요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비록 가마의 축요방식이 연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나 상대적 선후관계에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토축요인 강진 용운리 63호는 전축요 이후의 단계에 운영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②층위에 따른 완의 형식변화 : 1980년대에 시행된 용인 서리 중덕요지의 발굴은 초기청자의 이행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1987년의 2차 발굴조사는 퇴적층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4개의 자연층위가 확인되었고 최하층은 다시 2개의 층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주목할 점은 가마의 운영기간동안 제작품은 청자에서 백자로 바뀌어갔고 최하층인 4-1층에서는 얇은 釉層에 內底가 곡면인 선해무리 굽완이 출토된 후, 3층에서 점차 내저원각이 선명한 한국식해무리굽완이

文化研究所·韓國電力公社 靈光原子力建設事務所, 1985.2)), 그러나 결과에 의문을 가진 이희관의 현장조사와 후속 연구로 인해 이 가마는 전축요에서 출발한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희관, 「高敞郡 龍溪里窯와 ‘太平壬戌’ 銘 瓦片 및 塼築窯 문제」, 『美術史學研究』 244(韓國美術史學會, 2004.12), pp. 95-120.



일부 섞이기 시작했으며, 2층에서 한국식해무리굽완이 대량 제작되고 이후에는 이들이 퇴화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도면 8).<sup>21)</sup> 여타의 가마에 비해 조업기간이 대단히 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마의 堆積狀은 초기청자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도면 8. 용인 서리 중덕 요지 퇴적층을 기준으로 한 완의 형식변화 단계

이후에 발굴된 배천 원산리 2호에서는 선해무리굽완이 주종을 이루고, 시흥 방산동 요지의 퇴적에서는 선해무리굽완에서 ‘과도기적 해무리굽완’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요업이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용인 서리 중덕요지의 퇴적층에 비추어보면 4-1층, 4-2층, 3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용인 서리의 4-1층, 4-2층, 3층과 배천 원산리 요지, 시흥 방산동 요지는 같은 형식의 완이 생산된 단계로서 모두 전축요에서 생산된 기물임을 알게 해준다.<sup>22)</sup>

그런데 용인 서리 2층은 한국식 해무리굽완이 핵심을 이루는 제작단계로서 토축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층과 2층 사이에는 ‘과도기적 해무리굽완’이 양쪽에 끼어있는 것이다. 용운리 63호의 청자 완들은 바로 이 부분과 양식적으로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선해무리굽완과

21) 2003년의 보고서에서는 보고서에서는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의 순서를 시기적 개념을 적용하여 각각 I기층, II기층, III기층, IV기층으로 지칭하였다.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I』(2003), pp. 185-189. 이와 관련된 논고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金載悅,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考古美術』 177(韓國美術史學會, 1988.3), pp. 3-41 ; 同著, 「龍仁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용인시·용인문화원, 1998), pp. 209-236.

22) 李鍾玟,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2002.12), pp. 111-125 ; 同著, 「韓國 初期靑磁의 形成과 傳播-塿築窯와 土築窯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40(韓國美術史學會, 2003.12), pp. 51-75.

‘과도기적 해무리굽완’ 이 함께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용운리 63호에서 발견되는 완들은 전축요에서 토축요로의 전환기에 조업을 시작한 가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③순화명 청자류의 시기와 동반품 : 좀 더 구체적인 운영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편년자료를 활용하여 용운리 63호의 조업시기를 추정하겠다. 익히 알려진 편년자료 중 <淳化3年銘高杯>와 <淳化4年銘壺>는 각각 992년과 993년의 편년을 가진다. <순화3년명고배>는 배천 원산리 2호 요지 출토품에서 발견되었고, 동반품 중에 순화4년명 파편들이 섞여 있어 모두 배천 원산리 2호 생산품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순화3년명고배>는 원산리 2호 발굴당시 가마바닥의 최상층에서 발견되었다.<sup>23)</sup> 즉, 이 가마는 태묘에 들어갈 제기들을 2년간 생산한 직후 폐요된 것이다. 따라서 전축요의 전형을 보이는 배천 원산리 2호는 10세기 말에 폐요되었고 같은 단계에 있던 시흥 방산동 가마나 용인 서리 중덕의 전축요단계 역시 늦어도 11세기 초반경이면 모두 폐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시점을 중심으로 용인 서리 중덕 가마는 토축요로 탈바꿈하였고, 여주 중암리 가마나 고창 용계리 가마도 같은 길을 걸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토축요로 조업을 시작한 용운리 63호는 전축요가 폐요되어 가던 시점인 10세기 말에서 11세기초 사이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요업사적 성격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사이에 개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운리 63호는 당시의 정세로 볼 때 지방통치체제의 재편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종에서 현종의 치세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지방통치체제의 강화, 3차에 걸친 거란의 침입과 대비를 위한 후속조치의 단행, 고려 왕실재정의 주 수입원일 청자산업의 안전문제 등이 한꺼번에 일어났다.<sup>24)</sup> 따라서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중서부지역의 전축요가 점차 폐요되

23)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앞의 도록(평양, 1992), p. 312.

24) 구산우, 「高麗 成宗代 정치세력의 성격과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제14호(한국중세사학회, 2003), pp. 91-148 ; 李貞薰, 「고려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과 지배체제 개편」, 『한국중세사연구』 제29호(한국중세사학회, 2010), pp. 177-212 ;

고 서남부지역의 나주목 산하에 소속된 강진, 장흥, 고흥, 해남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청자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sup>25)</sup> 용운리 63호는 그 시발점에 있으며 뒤를 이어 다른 청자 가마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용운리 63호는 요업사에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전축요의 생산기술과 조형의 계승** : 용운리 63호는 가마 구조나 축요제에 있어서 전축요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생산기술과 청자의 조형은 대부분 전축요의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종과 기형, 기벽의 두께, 유색, 유층의 두께, 유면의 현상, 굽짚음새, 내화토, 갑발과 받침대 등은 전축요의 생산품이나 기술과 큰 차이를 두기 어렵다. 결국 강진에서 초기단계에 청자생산을 시작했을 용운리 63호의 제작기술과 조형은 월주요의 기술이전 과정과 다른 새로운 루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서부지역 전축요의 조형과 생산기술을 계승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②새로운 생산기술의 시도** : 용운리 63호는 전축요의 기술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남부지역의 실정에 맞는 요업방식을 선택한 듯하다. 새로운 생산기술의 예는 토축요를 활용했다는 점인데 이는 청자 제작 이전 단계에 강진 일대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있던 고려 초의 도기생산지역에 청자기술이 들어온 결과일 것이다.<sup>26)</sup> 실제로 강진의 초기청자 가마들은 도기요를 근거리에 두고 겸업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 전축요 단계에서는 볼 수 없는 초벌과정이 시도되면서 일부 기종은 유층이 두꺼워지고 유색에서 푸른 빛을 내는 생산품이 만들어졌다. 부드러운 청녹색의 B유형 완들은 유층이 두껍고 깨

25) 이종민, 「고려초 청자생산 중심지의 이동과정 연구」, 『역사와 담론』 제58집(湖西史學會, 2011.4), pp. 273-307.

26) 전축요와 토축요를 막론하고 초기청자 생산지역에는 도기 가마가 있다. 한 지역에서 도기와 청자를 병산하는 경우도 있으나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시흥 방산동 요지의 경우는 이미 도기생산이 진행되던 지역에 청자기술이 들어옴으로써 인력과 생산시설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강진의 경우도 초기청자 요지군에 인접하여 도기파편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같은 상황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李鍾政, 「南部地域 初期靑磁의 系統과 特徵」, 『미술사연구』 제16호(미술사연구회, 2002), pp. 199-228.

끗하며 완성도가 높아 A유형 완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 이것은 생산품에 따라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이해된다. 초벌기술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초벌은 강진지역에서 가장 이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용운리 63호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어 이 가마의 조업시점에 초벌기술도 확보된 것이 아닌가 한다.

③전축요와는 다른 생산체제의 가능성 : 용운리 63호는 물론이고 단계상 뒤로 볼 수 있는 서남부 지역의 여러 초기청자의 가마에서는 갑발에 다양한 통기공과 기호들이 묘사되어 있다. 통기공의 형태나 배열, 각종 기호들은 가마 안에서 동일한 개체들이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조합이 확인된다. 또 이러한 양상은 이후의 가마들까지 한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통기공과 기호가 다른 것들이 조합을 이루는 것은 도공이 구워낸 기물들을 꺼내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한 일종의 싸인으로 생산과 공급에서 전축요 운영단계와는 다른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즉, 이것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관리와 구분을 하기위한 용도로 활용되었을 것이며 이는 도자기의 생산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磁器所의 출현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결과와 연관짓는 것은 비약이 분명하나 지방통치체제의 완비시점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은 추후 지면을 통해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 4. 맺음말

여기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려 한다. 강진 용운리 63호에서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하여 청자발, 완, 잔, 각종 접시류, 소호, 반구병, 반구편병, 뚜껑 등과 함께 요도구로는 갑발, 갑발 받침, 도침, 불창마개 등이 수집되었다.

청자나 갑발이나 이곳에서 생산된 기물들은 기벽이 얇고 가벼우며 청자의 경우 유색은 녹갈색에 가까운 釉調와 얇은 유층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아 강진 일대의 다른 요장에서 수집되는 파편들과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형은 완의 경우 내저곡면에 굽은 선해무리굽이나 한국식

해무리굽에 가까운 예들이 포함되어 있어 두 그룹이 함께 생산되는 단계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청자를 구울 때 갑발의 재사용율이 높았던 듯 대부분의 갑발 외피에 두꺼운 자연유가 중첩해서 녹아 있으며, 측면에 다양한 모양의 통기공을 뚫고 기호들을 음각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특이하게 보는 이유는 용운리 63호의 성격이 강진의 청자요업에서 가장 이른 단계이며 전축요의 생산방식과 닮았다는 기존의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용운리 63호와 중서부 전축요의 청자, 요도구 등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가능한 청자의 기종과 기형은 대부분 유사성이 느껴졌고, 요도구 또한 간소화되고 도침이라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갑발의 제작방식과 형태는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용운리 63호와 주변의 토축요 출토품과의 비교에서는 전체적인 기종구성이나 기형, 제작분위기는 유사하였지만 장흥 풍길리와 더불어 전축요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운리 63호의 조업시기는 토축요가 전축요에 후행한다는 고고학적 근거와 수집된 청자편중 완의 형식변화가 용인 서리 퇴적의 3층에서 2층으로 바뀌는 시점의 출토품들과 유사하다는 점, 전축요들의 폐요 시간대가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시점에 강진에서 요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자의 요업사에서 용운리 63호가 갖는 성격과 의미는 전축요의 생산기술과 조형을 계승한 가마이고, 축요재나 축요방식, 초벌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처음으로 시도한 가마이며, 생산과정에서 여러 표식을 남김으로써 운영방식이 전축요와는 달랐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가마로 보았다.

이 모든 현상은 고려 초의 격변기였던 성종~현종대의 국내의 정세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집권층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 後記 : 이 글의 작성과정에서 필요했던 현장조사와 출토유물 관찰을 위해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한성욱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각별한 도움이 있었다. 이 기회에 감사드린다.



# 康津 月南寺址 出土 高麗靑瓷의 現況과 性格

金眞姬(民族文化有産研究院)

白恩卿(國立海洋文化財研究所)

## 목 차

1. 머리말
2. 月南寺址 發掘調査 現況
3. 月南寺址 出土 高麗靑瓷의 造形的 特徵
4. 月南寺址 出土 高麗靑瓷의 製作時期와 生産地
5. 月南寺址 出土 高麗靑瓷의 性格
6. 맺음말

## 1. 머리말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일원에 위치한 월남사지(月南寺址)로 전라남도 기념물 제12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월남사지 내에는 보물 제298호 월남사지 3층 석탑과 보물 제313호 진각국사비 등이 위치해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이다.

월남사는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 慧謹, 1178~1234년)이 창건하였다고 지지류(地誌類)에서 간단히 언급되고 있을 뿐, 월남사에 관해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현재 3층 석탑과 진각국사 혜심의 비가 남아 있어 월남사에 대한 다소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강진군에서는 사역의 체계적인 정비 복원을 위해 시굴과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백제~고려시대까지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그 동안 진각국사 혜심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논란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월남사지의 발굴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여러 출토유물 중 고려시대 청자를 중심으로 조형적 특징과 제작시기, 생산지 등의 성격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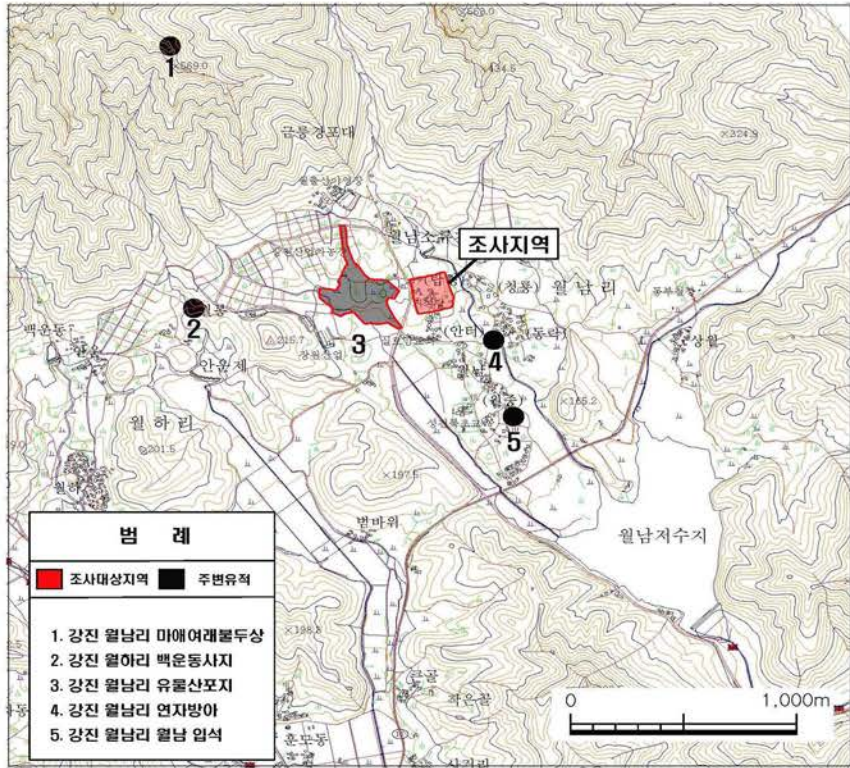
## 2. 월남사지 발굴조사 현황

강진 월남사지는 1994년 목포대학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사역의 체계적인 정비 복원을 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를 마련하고자 2011년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사세를 짐작할 수 있는 건물지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백제~고려시대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사찰이 지속적으로 존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학술조사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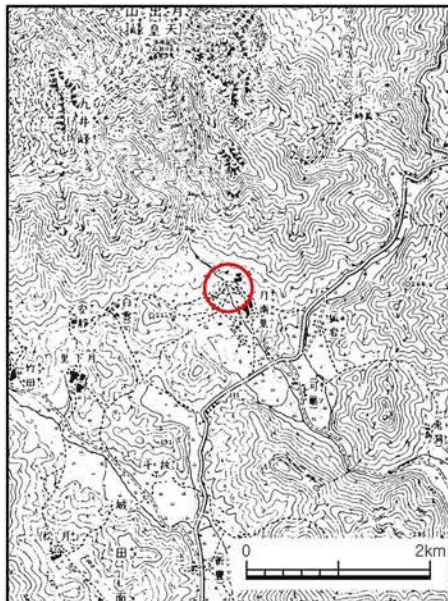
<표 1> 조사 현황

번호	조사유형	조사기간	조사내용
1	지표	1994.12.31 ~1995.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락에 형성된 평지형 가람</li> <li>- 건물영역은 남-북 4단, 동-서 5단 사이에 크게 4영역으로 나뉘어짐.</li> <li>- 사지 주변 와요지·백자요지 등 확인.</li> <li>- 「言」 「明都」 「仁」 「松溪寺」 등 명문기와 출토.</li> <li>- 해무리굽 완 등 청자 출토</li> </ul>
2	시굴	2011.12.30 ~2012.0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시대 건물지와 부속시설 확인.</li> <li>- 「○長趙」 「崔日尙」 「須彌○」 「京」 등 명문기와 출토.</li> <li>- 향로, 의자, 베개, 도판 등 고급청자 확인.</li> </ul>
3	발굴 (1차)	2012.08.27 ~2012.1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시대 건물지, 박석시설, 기와 구조물(아귀구) 등 확인.</li> <li>- 백제~고려시대 와당과 갑상 등 기와 출토.</li> <li>- 금동 풍탁과 차맷돌 등 출토.</li> <li>- 「己巳」 명 대접편, 화분편, 研棒 등 청자 출토.</li> </ul>
4	발굴 (2차)	2013.05.13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시대 건물지와 부속시설 확인.</li> <li>- 통일신라~고려시대 와당 등 기와 출토.</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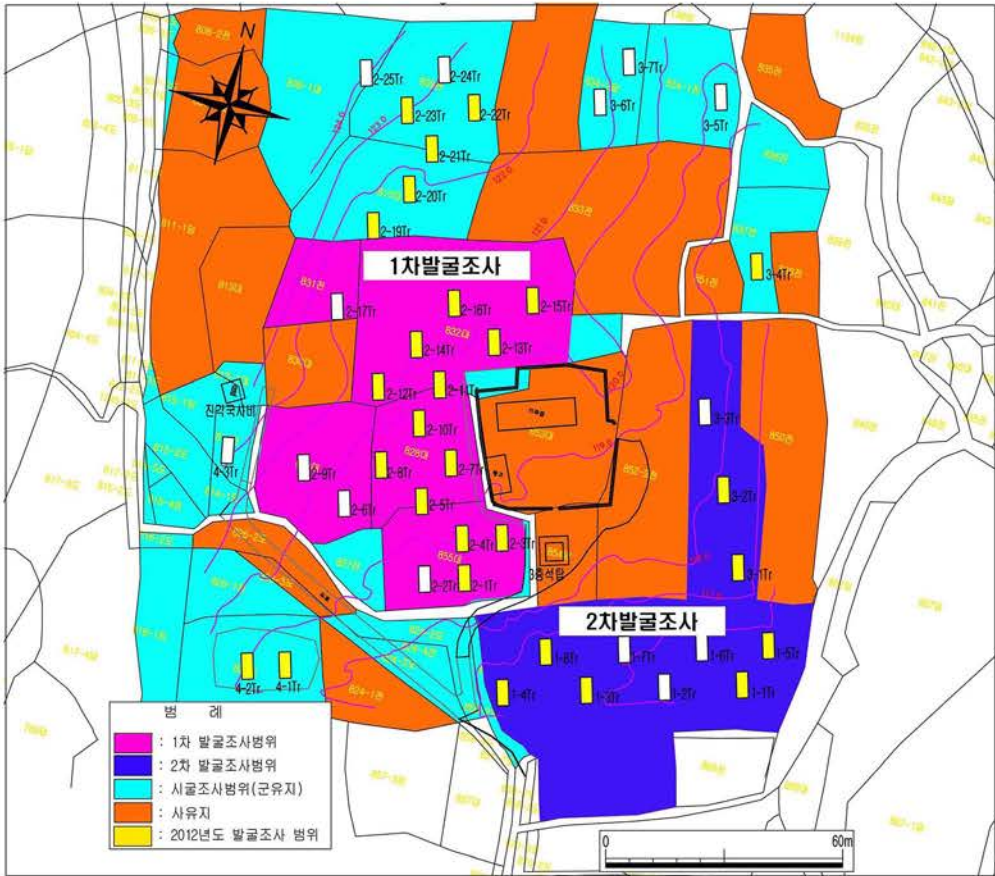
도면 1. 월남사지 위치도와 주변 유적도(1/25,000)



도면 2. 조사지역 지형도(1918년)



사진 1. 조사지역 원경



도면 3. 월남사지 발굴조사 범위

### 1) 1차 발굴조사

1차 발굴조사는 석탑을 중심으로 서북쪽 지역의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기존 시굴 트렌치를 기준으로 너비 1m 폭을 남기고 그리드를 구획하여 확장하였다.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10×20m를 기본으로 설정하였으며 지형과 지장물 등에 맞추어 트렌치의 크기와 방향을 조정하여 모두 10개의 트렌치를 설정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유구에서 고려시대의 건물지와 그에 따른 부속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나, 유물은 월남사의 초창기를 알려주는 백제 기와를 비롯하여 이후의 통일신라 기와류, 고려시대의 기와류와 자기류 등이 출토되었으며, 조선시대 유물은 기와류와 자기류가 일부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발굴지역에서 잘 남아있는 유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트렌치는 1트렌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표토로부터 20~40cm에서 유구층이 확인되었다. 민가 조성으로 인하여 일부 훼손이 이루어져 북쪽 모서리에서는 최근까지 사용된 수도관이 노출되었다. 유구는 배수로와 기단열, 초석 등이 확인되었다. 배수로는 트렌치 동쪽에 남-북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남쪽 하단부는 유실되었다. 남아있는 장축 길이는 11.3m이며 너비는 22~45cm이다. 출토유물은 고려시대 자기류와 기와편, 차맷돌 등이 확인되었다.



사진 2. 1차 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4트렌치는 조사지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표토로부터 15~40cm에서 유구층이 확인되었다. 남쪽에 위치한 방형 기단열은 30~60cm의 할석을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중앙에는 장방형의 석열들이 놓여있다. 방형 기단열 북쪽면은 1열의 기단열을 쌓고 'ㄷ'형의 기단을 쌓아 건물지를 만들었다. 건물지 내부는 큰 할석들로 채워져 있으며 바닥 전체에 불 먹은 흔적이 있다. 기단열 사이에 기와 구조물이 확인되어 특징적이다. 기와 구조물의 성격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익산 미륵사지 고려시대 건물지와 나주 송월동 고려시대 건물지 등에서 유사한 기와 구조물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 구조는 '아귀구' 또는 '아귀발우'라고 불리우며 다기 물이나 발우를 씻는 물을 버리는 곳으로 추정된다.

6트렌치 내에서는 박석 시설이 확인되었다. 박석 시설은 트렌치 7과 8 사이에서 확인된 건물지의 중앙에 위치하며 할석을 이용하여 전면을 깔았다. 박석은 장대석의 기단열 아래로 뺄어나가고 있어 기단열보다 먼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층상 장대석으로 쌓은 기단열은 후대에 재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기단열 곳곳에는 시멘트로 채운 흔적이 남아있다. 건물지 바닥 전체에 불 먹은 흔적이 있다. 10트렌치에서는 4개의 초석이 확인되며 그 가운데 기와 구조물이 확인된다. 내부에서는 금동 풍탁 1점이 수습되었다.



사진 3. 1차 발굴조사 후 전경



사진 4. 내부 기와 구조물(아귀구)



사진 5. 월남사지 출토 차 멧돌



사진 6. 월남사지 출토 금동 풍탁

## 2) 2차 발굴조사

2차 발굴조사는 석탑을 중심으로 남쪽과 동쪽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건물지 1동과 그에 따른 부속시설, 계단시설, 담장시설, 석축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의 막새류, 평기와류, 자기편 등이다.



사진 7. 2차 발굴조사 지역 근경

### 3. 월남사지 출토 고려청자의 조형적 특징

#### 1) 출토 현황

월남사지는 1994년 정밀지표조사 이래 2013년 7월 현재 2차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다량의 기와편과 함께 고려시대 청자편, 도기류, 분청사기, 백자편들과 여러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다. 아직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발굴 성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자기류 중에서는 고려시대 청자의 수량이 가장 많고 기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외에 도기편, 인화, 귀얄 분청사기편과 조선시대 백자편 등이 나타나지만 본고에서는 청자만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아직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으므로 유물의 수량이나 비율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월남사지 출토 청자를 기종별로 분류한 현황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월남사지 출토 청자

	발	대접	접시	완	잔	뚜껑	병	향로	돈	화분	침	도판	기대	연봉	장고	기타
지표조사 '94.12.31. ~ '95.08.31.			○	○			○					○				
시굴조사 '11.12.30. ~ 12'02.15.	○	○	○	○	○		○	○	○	○	○	○				○
1차발굴 '12.08.27. ~ 12'12.05.	○	○	○	○		○	○		○			○	○	○	○	
2차발굴 '13.05.13. ~현재	○	○	○	○	○	○	○					○	○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월남사지에서 출토된 청자는 일상 생활용기로 볼 수 있는 발, 대접, 접시, 완, 잔 등과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정형(鼎形) 향로, 돈(墩), 화분, 침(枕), 도판(陶板), 기대(器臺) 등 15가지 기종과 용도를 알 수 없는 기타의 편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접시, 완, 병과 도판은 지표조사 때부터 2차 발굴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완과 병은 전체적인 수량에서 보았을 때, 차지하는 수량이 많지 않고, 접시류와 도판이 여러 구역에서 꾸준히 발굴되고 있다(표 3).

<표 3> 월남사지 1차 발굴조사 청자 기종별 출토 지역

	발	대접	접시	완	뚜껑	병	돈	도판	기대	연봉	장고
출토 트랜치 (Tr)	지표 3Tr	지표 2Tr 3Tr	지표 2Tr 3Tr 4Tr 5Tr	지표 3Tr	2Tr 3Tr	지표 5Tr	지표 3Tr	지표 2Tr 3Tr 4Tr 5Tr	2Tr	5Tr	지표

월남사지 발굴 청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도판의 수량이 많다는 점이다. 시굴조사부터 현재 진행 중인 2차 발굴조사까지 출토된 도판의

수는 파편이지만 단일 개체수가 40개가 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당시 이 도판들은 실제 건물의 벽을 장식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월남사지에서 출토된 청자 기종 상의 특징은 접시의 수량이 많고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발, 대접, 접시 등 월남사지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기종과 장식기법, 문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2) 기종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월남사지 출토품 중에서 기종을 확인 할 수 있는 파편을 대상으로 구분해보았다.

### (1) 발<sup>1)</sup>

발은 대부분 굽지름 보다 작은 내저원각이 있다. 기물 내측면에 문양이 없는 것도 있고, 내저원각 안에 압출양각으로 화관문을 장식하고(사진 8) 내측면에 압출양각화당초문 또는 상감기법으로 여지나 국화 등의 문양을 간략하게 장식한 것이 있다. 내측면에 화당초문 계통의 문양을 장식한 대접편들은 원덕태후 곤릉(元德太后 坤陵, ?~1239년) 출토품과 유사하다. 상감기법으로 여지문이 장식된 편은 명종 지릉(明宗 智陵, 1255년 보수) 출토 청자상감여지문대접과 문양표현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발의 외면은 무문이 많지만 음각 연관문을 시문하기도 했다. 굽은 대부분 접지면까지 시유하고 규석을 받쳐 구웠지만,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를 받쳐 구운 것들도 있다.



사진 8. 청자압출양각문발편

1) 발과 대접으로 추정되는 파편은 대부분 저부편만 남아있고, 구연부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다. 구연까지 남아있는 소수 편의 형태를 기준으로 높이가 높고 측사면의 경사도가 급한 경우는 발로, 높이가 낮고 구경이 넓으며 측사면의 경사도가 완만한 것은 대접으로 구분하였다.



## (2) 대접



사진 9. 청자음각앵무새문대접편

대접은 내저면에서 구연부까지 기층면이 완만하게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형태이며 내·외면에 상감으로 도식화된 문양을 장식한 경우가 많다. 출토된 대접 중에는 예외적으로 음각 앵무새 한 쌍이 시문된 것이 한 점 있다(사진 9). 내저면에 두 줄의 음각선을 돌리고 구연 바로

아래 내측면에 3줄의 음각선을 돌려 가운데에 넓은 문양대를 만든 후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앵무새를 음각했다. 강진 계율리 15호 요지 출토품 중에 이 대접과 동일한 것이 있어 생산지를 짐작할 수 있다.<sup>2)</sup>

상감 문양이 장식된 대접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연당초문 '정릉(正陵)'명대접(1365~1374)과 무안 도리포 해저에서 발굴된 청자대접의 기형과 문양장식 기법이 유사하다(사진 10). 대접은 대부분 내저면에 상감으로 이중원권문과 여의두문을 돌리고, 내측면 구연 아래에 상감의 당초문대나 음각선문을 돌리고 대접의 가운데 부분에 여지문, 연당초문이나 연화문, 엽문, 갈대문, 봉황문 등을 장식했다. 대접은 모래를 받쳐 구운 것이 많은 편이다.



사진 10. 청자상감연당초문대접편



사진 11. 청자상감'기사'명대접편

2) 『강진의 청자요지』 (해강도자미술관·전라남도 강진군, 1992), p.201(도판번호 16)

월남사지 출토 청자편 중에는 저부만 남아있으나 대접으로 추정되는 '기사(己巳)'명 편이 한 점 있다(사진 11). 내저면에 '己巳'를 흑상감하고, 굽 접지면까지 시유한 후 규석을 받쳐 구운 고급품이다.<sup>3)</sup> '기사'는 1329년에 해당하는 간지로 '정릉'명 대접과 더불어 월남사지 출토 청자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 (3) 접시

접시는 월남사지에서 출토된 여러 기종 중에서 수량이 가장 많고 형태도 다양한데, 형태에 따라 9가지로 구분된다(표 4).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능화형접시

편평하게 외반하는 구연의 외측면을 능화형으로 만든 접시로 팔능화형, 십능화형, 변형능화형 등 다양하다. 접시 내면에 압출양각으로 화문을 장식한 것, 압출양각과 상감기법을 함께 사용한 것, 상감기법으로만 장식한 것 등이 있다. 굽은 안굽, 다리 굽 등 여러 가지이며 변조 받침도 규석, 모래섞인 내화토 빚음, 굽은 모래로 다양하며, 양질과 조질이 공존한다.

월남사지에서 발굴된 청자압출양각능화형접시와 유사한 것이 개성 고려 궁성, 명종 지릉(明宗 智陵, 1255년), 희종 석릉(熙宗 碩陵, 1237년), 원덕태후 곤릉(元德太后 坤陵, 1239년), 파주 혜음원지(惠蔭院址, 1122~13세기 중반) 등에서도 출토되어 이러한 유형의 접시가 당시 궁궐과 왕릉은 물론 사찰 등 고급 소비지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진 계율리, 용운리, 사당리 뿐만 아니라 부안 유천리 등지에서도 제작되어 폭넓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안 도리포 해저 유물의 생산지로 추정되는 사당리 10호에서 유사한 파편이 출토되어 이 유형의 접시는 14세기 이후까지 제작되었고, 비교적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현재까지 확인된 간지는 1329(己巳)년부터 1355(乙未)년까지 모두 11개 이다. 간지명 상감청자의 용도에 대해 왕실 관련 官司나 의례 등에 제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수취체제의 변화나 왕실 관련 관사의 운영 체계 변화에 따라 명문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金允貞, 「高麗末·朝鮮初 銘文靑瓷 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1), pp.66~76.

<표4> 월남사지 발굴 접시류

		
① 능화형접시	② 소형전접시	③ 음각선문접시
		
④ 직립구연접시	⑤ 화형접시	⑥ 팔각접시
		
⑦ 사선형접시	⑧ 절요접시	⑨ 소형접시

### ② 소형전접시

출토품 중에 단 한 점이 1차 발굴조사에서 완형으로 확인되었다. 무문이며 기벽에 비해 바닥면이 두꺼운 편이다. 평저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③ 음각선문접시

1차와 2차 발굴조사에서 각각 한 점씩 출토되었는데, 1차 출토품은 완형이다. 접시 측면의 높이가 1.9cm로 매우 낮고 기벽의 높이나 두께에 비해 바닥면이 두껍다. 접시의 외측면에는 일정한 간격의 세로 음각선을 구획했는데, 이는 연판문이 간략화된 표현으로 생각된다. 굽 접지면까지 시유하고 규석을 받쳐 구웠다. 이 접시와 동일한 접시편이 사당리 27호에서 확인되어 제작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sup>4)</sup>

#### ④ 직립구연접시

기측면과 구연부가 내저면에서부터 거의 수직으로 꺾여 올라오는 형태이다. 세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접시 안 바닥에 음각이나 상감으로 이중 원권문을 돌린 것이다. 굽은 다리굽과 평저이며 규석이나 모래섞인 내화토 빚음을 받치고 구웠다. ①능화형접시와 마찬가지로 석릉(碩陵, 1237) 등 왕실관련 유적이나 사지에서 꾸준히 발굴되었고, 계율리와 사당리 등 강진지역의 여러 가마터 출토품 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폭넓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내·외면에 국화나 여의두문을 간략하게 상감 장식한 것으로 규석을 받쳐 구웠다. 세 번째 유형은 평저에 기벽이 매우 얇으며 문양이 없는 형태로 사당리 7, 8호와 27호 등지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

#### ⑤ 화형접시

접시 외측면에서 안쪽으로 세로로 눌러 전체적으로 꽃잎 모양을 만든 후, 구연부를 화형으로 처리한 접시이다. 접시 안 바닥에는 중앙에 꽃이 있는 이중원권문을 압출양각으로 장식했다. 평저이며 규석을 받쳐 구웠다. 이와 유사한 편이 사당리 16호 요지에서 발굴되었다.

#### ⑥ 팔각접시

기측면이 팔각을 이루는 접시이다. 내면에 압출양각으로 문양을 시문하고 외측면 8개의 면에는 상감으로 사각형을 구획한 뒤 간략한 구름문 등을 장식했다. 규석을 받친 것과 굽은 모래를 받친 것으로 구분된다. 팔각접시는 13세기 중반의 지릉(智陵)과 파주 혜음원지(惠蔭院址) 등 소비유적지는 물론 계율리, 용운리, 사당리 등 강진지역 가마와 무안 도리포 해저 유물에서도 확인된다. 폭넓게 사용되었고 제작·사용 기간도 비교적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⑦ 사선형접시

기측면이 사선으로 뺀어 올라가는 형태의 접시이다. 내저면에 상감여의두문과 국화문, 내측면에 같은 간격으로 간략화된 국화문이나 운문을 배치했다. 내측면 상단에는 간략한 당초문대를 상감했다. 주로 모래섞인 내화토 빚음을 받쳐 구웠다. 이 유형의 접시는 지릉(智陵)과 무안 도리포 해저 출토품 중에서 유사한 예가 있으며, 강진 사당리 10호 등지에서도

4) 해강도자미술관·전라남도 강진군, 앞의 책, p.321(도판번호 50).

발견되었다.

#### ⑧ 절요접시

내저에서 기측면이 사선으로 꺾여 올라가는 형태의 접시로 내면에 문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수량이 많지 않으며 규석을 받쳐 구웠다.

#### ⑨ 소형접시

내저면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형태의 작은 접시로 한 점 확인되었다. 바닥면이 두꺼운 편이며 굽은 따로 만들지 않고 굽은 모래를 받치고 구웠다.

### (4) 완

완은 지표조사 때부터 2차 발굴조사까지 꾸준히 확인되고 있지만 수량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완에서 주목되는 것은 해무리굽완으로, 90년대에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한 점이 보고되었고, 2012년 1차 발굴조사 때 지표에서 또 한 점 수습되어 모두 2점이 확인되었다. 내저원각이 있는 한국식 해무리굽완으로 백색 내화토를 받친 흔적이 남아있다. 월남사지 출토 청자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12)는 1차 발굴에서 확인된 상감운학문완이다. 반원형의 둥근 기형 내·외면에 상감으로 정교하게 문양을 시문한 고급품이다. 내면은 국화문이 있는 내저원각을 중심으로 4마리의 학을 배치하고 구연부 하단에 상감당초문대를 돌렸다. 중간 넓은 공간에 뾰뾰하게 표현된 구름사이로 4마리의 학을 표현하였다. 외측면도 모두 3개의 문양대로 구분되는데 상단에는 운학문, 중단에는 당초문 사이에 국화문이 상감된 이중원권을 배치하고 하단에는 이중 연판문을 장식했다. 굽 접지면에는 규석을 받쳐 구웠다. 이 완과 문양표현방식이 유사한 편이 계울리 15호와 사당리 8호, 27호에서 출토되었다. 이 외에 2차 조사에서 압출양각 운학문완으로 추정되는 편도 출토되었다.



사진 12. 청자상감운학문완편

### (5) 도판

월남사지 출토품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수 십 점 확인된 청자도판파편이다(사진 13). 도판은 90년대 지표조사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출토되고 있으며, 파편 개체 수만 40개가 넘는다. 도판 중에 완형은 없지만 4모서리 중 한쪽 모서리만 결실된 편이 발견되어 전체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판의 길이는 가로가 16cm, 세로가 16.5cm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고, 두께는 0.9~1.0cm 정도이다. 모두 같은 문양이 시문되어있기 때문에 한



사진 13. 청자음각연화절지문판편

시기에 세트르 제작되어 실제 건축물의 장엄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양은 판의 4면을 따라 이중의 음각선을 돌리고 중앙에 연화 절지문을 배치했는데, 연꽃 꽃잎이 이중으로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앞면과 측면까지 시유하고 뒷면은 유약을 닦아냈다. 대부분 모래섞인 내화토 빛음을 받쳐 구웠는데, 간혹 뒷면까지 시유된 판의 경우 규석을 받친 것도 확인된다.

### (6) 기대

기대는 1·2차 발굴조사에서 각각 한 점씩 출토되었다. 2점 모두 2단으로 구성된 기대의 상부 파편이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기대는 받침대의 외곽 하단에 여의두문대를 입체적으로 붙이고 그 위로 각각의 면에 나비처럼 보이는 문양을 퇴화로 장식한 후 투각하였다(사진 14). 투각 문양의 사이 사이에는 조개처럼 보이는 장식을 덧붙였다. 대의 가운데는 둥근 구멍이 있고 구멍을 중심으로 저부에 다른 하부 구조물과 덧붙여 연결했던 흔적



사진 14. 청자퇴화투각기대편

이 남아있다. 투각으로 장식한 나비처럼 보이는 문양과 같은 형태의 파편이 강진 사당리 27호 가마에서 출토된 바 있다.<sup>5)</sup> 또한, 강진청자박물관 동흔 기증품 중에 이 기대의 하부편으로 추정되는 편이 있어 완형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사진 15). 하부도 상부와 마찬가지로 연판문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월남사지 2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기대편은 여의두문 대신 연판문을 촘촘하게 표현하여 세부적인 표현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당리 8호와 27호에서 이 기대의 하부편과 유사한 편들이 출토되었다.



사진 15. 청자투각기대편  
강진청자박물관 소장(이용희 기증)

### (7) 기타

수량은 적지만 월남사지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종 외에 다양한 청자편들이 출토되었다. 외측면에 음각연판문이 장식된 통형잔편과 상감국화문이 장식된 뚜껑, 상감연판문이 장식된 매병 저부편도 있다. 특수 기종으로는 연화당초문이 투각 장식된 돈(墩) 파편과 상감당초문이 장식된 침(枕) 모서리편, 정형향로편과 팔각화분편 등이 있다. 상감국화문이 장식된 화분편은 사당리 27호에서 유사한 편이 발견되었고, 동흔 기증품 중에도 완형을 추정해 볼 수 있을 정도의 대형 편이 남아있다. 이 외에 사찰의 차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사용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다연봉이 있으며 철채 장고편과 용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감모란문이 장식된 투각편도 확인되었다.

### 3) 장식기법과 문양

월남사지 출토 고려청자는 다양한 기종 구성만큼 여러 가지 문양과 장식기법을 사용하고 있다(표 5). 장식기법은 음각, 압출양각, 상감, 투각, 퇴화기법 등이다. 이 중 상감기법의 사용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대접, 접시와 같이 출토 수량이 많은 일상용기류에 다양한 문양이 상감기법으로

5) 해강도자미술관·전라남도 강진군, 앞의 책, p.321(48번 도판).

시문되었다. 투각이나 퇴화는 돈, 기대와 같은 특수한 용도의 청자에서 일부 활용되었다.

<표 5> 월남사지 출토 청자의 문양과 장식기법

기종	발	대접	접시	완	잔	뚜껑	병
문양	무문 당초문 연판문 여지문	무문 연화절지문 국화문 국당초문 여지문 류문,엽문 갈대문 이종원권문 봉황문 앵무문 운문	무문 국화문 초화문 국당초문 이종원권 문 선문 운문	무문 운학문 당초문	연판문	국화문	국화문 연판문 운문
장식 기법	음각 압출양각 상감	음각 압출양각 상감	음각 압출양각 상감	압출양각 상감	음각 상감	상감	상감
기종	돈	화분	침	도판	기대	향로	장고
문양	연화당초문 연판문	국화문	당초문	연화절지 문	여의두문 연판문 나비문	뇌문 와(渦)문	당초문
장식 기법	투각	상감	상감	음각	투각 퇴화 양각	압출양각	철채

#### 4. 월남사지 출토 고려청자의 제작시기와 생산지

##### 1) 제작시기

월남사지 출토 고려청자의 제작시기에 관한 문제는 유물에 대한 양식 분석뿐만 아니라 월남사의 운영기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월남사는 월출산 남쪽에 있다. 고려 승려 진각이 창건했는데, 이규보의 비가 있다”고 전한다.<sup>6)</sup> 그러나 최근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조사 중인 월남사지에서 백제시대 수막새가 출토되었다. 이는 월남사의 창건시기를 삼국시대까지도 올려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 앞으로의 조사 성과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7)</sup> 또한, 월남사

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7, 全羅道 康津縣 佛宇 “月南寺在月出山南高麗僧眞覺所創有李奎報碑”

7)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주변 발굴조사 약보고서」 (민족문화유산연구원·강진군, 2012).



에 진각국사의 탐비가 세워지는 시기와 이유를 최씨 무인정권의 정치적 동향 속에서 파악한 논고가 있어 흥미롭다.<sup>8)</sup> 논고에서는 최항(崔沆, ?~1257년)이 정권을 잡는 1250년대를 기점으로 월남사가 중창된 것으로 보았다. 월남사와 관련된 인물로는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 慧心, 1178~1234년)과 함께 각진국사 복구(覺眞國師 復丘, 1270~1356년)가<sup>9)</sup> 있다. 복구는 왕사(王師)에 두 번이나 책봉되었던 인물이다. 승려로서 최고의 명예인 왕사로 책봉된 그가 월남사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당시 월남사의 사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월남사는 진각국사 혜심의 탐비가 세워지는 1250년경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각진국사 복구가 월남사에 주석(駐錫)한 시기인 14세기 전·중반 경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월남사는 언제 폐사된 것일까. 월남사는 광해군 3년(1611) 윤선도(1587~1671)가 월남사에 들렀을 즈음에는 거의 사찰의 형세만 지탱하다가 점점 폐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또한 인근 무위사(無爲寺) 사적(事蹟)에 정유재란(丁酉再亂 1597~1598년) 당시 이 일대의 사찰들이 모두 병화로 소실되었으나 무위사만 홀로 남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정유재란 때 폐찰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11)</sup>

문헌기록을 통해 본 월남사는 13세기 이전 어느 시점부터 운영되어 오다가 13세기 전·중반경 최우(崔瑀), 최항(崔沆) 등 무신정권 실력자와 연관되면서 사세가 확장되고, 각진국사 복구가 머물렀던 14세기 중반 경까지 번영하다가 16세기말 경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출토된 월남사지 고려청자 중에서 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것은

8) 이 논고에서는 월남사의 창건자로 전하는 진각국사의 탐비에 월남사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진각국사가 입적한 후 16년이나 지난 뒤 최항이 정권을 잡으면서 월남사에 최항의 스승이었던 진각국사비가 세워지는 점 등에 의문을 품고, 최우정권과 혜심이 정권의 안정과 수선사의 발전이라는 쌍방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고, 최항이 월남사를 중창하면서 자신이 승려시기에 저질렀던 과오를 청산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진각국사 탐비를 건립하면서 세간의 혐의에서 벗어나고자하였음을 피력하였다. 배종민, 「月南寺와 崔氏武人政權」, 『호남문화연구』 46 (호남문화연구원, 2009), pp. 197~198.

9) 각진국사 복구는 충렬왕 5년(1279)에 수선사 제5세주지 원오국사 천영(圓悟國師 天英, 1215~1286년)에게 출가한 후, 1320년부터 1350년까지 수선사 제13대 주지를 역임했다.

10) 『孤山遺稿』 卷之一 「南歸記行」 辛亥, 清晨繫馬月南寺 自註寺名 堂有畫佛庭有塔 暝渡雙橋 雨淋腦

11) 민족문화유산연구원·강진군, 앞의 보고서, p. 8.

지표조사와 1차 발굴조사 때 지표에서 각각 한 점씩 수습된 해무리굽완이다. 이 완은 하한을 11세기말~12세기 초까지 볼 수 있는데<sup>12)</sup>, 이 시기에 해당하는 다른 고려청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월남사의 운영시기를 삼국시대부터라고 본다면, 이 해무리굽완은 월남사에서 사용했던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두 점 모두 지표에서 수습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다른 곳에서 유입된 것일 수도 있다.

월남사지 청자와 출토 양상이 가장 유사한 곳은 1271년 하한의 진도 용장성(龍藏城)과 완도 법화사지(法華寺址)이다.<sup>13)</sup> 용장성 출토 청자는 월남사지의 것과 유사한 기형과 문양구성을 보여주는데 발, 대접, 완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의 접시들(표 4-①, ③, ④, ⑤, ⑥)이 있고, 이 외에 청자상감팔각화분편, 청자투각돈편 등이 비슷하다.

13세기 중반 최우(崔瑀, ?~1249년)가 대몽항쟁을 위해 자신의 원찰(願刹)로 창건한 선원사지(禪源寺址)에서 출토된 청자도 월남사지 출토 청자와 유사한 점이 많다. 선원사지에서 출토된 청자상감'임신(壬申, 1332년)'명편은 월남사지의 청자상감'기사(己巳, 1329년)'명대접편과 제작 시기가 비슷하다. 선원사지에서도 대접, 접시류를 비롯해 청자투각돈편, 청자상감팔각화분편 월남사지와 유사한 청자과편들이 출토되었다. 선원사는 문헌기록으로 14세기 말까지는 사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시기에 해당하는 청자상감'정릉(正陵, 1365~1374년)'명 편과 함께 출토된 청자들을 통해 14세기 중·후반경 청자 제작과 소비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월남사지에서도 청자상감'정릉'명대접편과 유사한 문양구성을 보이는 대접편이 출토되었다.

강진 월남사지 출토 청자는 희종 석릉(熙宗 碩陵, 1237년), 원덕태후 곤릉(元德太后 坤陵, 1239년) 그리고 명종 지릉(明宗 智陵, 1255년) 출토 청자와 기형, 문양 구성, 표현 방식 등에서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어 월남사가 진각국사 혜심과 관련하여 13세기 전·중반기에 이미 상당한 사

12) 한국식 해무리굽완은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로 들어서면서 급격히 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혜안, 2006), p.96.; 장남원, 「高麗 中期 靑磁의 研究」(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p.199(각주 491), 한국식 해무리굽완 생산의 하한이 고려 중기 초반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3) 『珍島 龍藏城』(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 珍島郡, 1990); 『莞島 法華寺址』(文化財研究所, 1992).

격(寺格)을 갖추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각진국사 복구가 주석하는 기간인 14세기 중기에 해당하는 청자상감'정릉'명대접편과 유사한 양식의 청자대접편이 확인됨으로써 월남사는 이 시기까지 어느 정도 사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세기 중반 이후, 고려시대 후기의 청자편들은 무안 도리포 해저에서 발굴된 청자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월남사는 조선시대 전기까지 운영되었기 때문에 고려말~조선초에 제작된 청자와 분청사기의 경계가 불분명한 편들도 확인되었고, 조선시대 백자과편들도 일부 출토되었다. 월남사지 출토 청자를 통해 본 월남사의 번영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각국사와 각진국사가 머물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문헌과 출토 유물을 통해 본 월남사의 중심 시기는 13세기 전·중반을 전후한 때로부터 약 1세기 정도 지속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생산지

월남사지에서 출토된 청자는 사당리를 중심의 강진 일대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월남사지 출토 청자류 중 강진지역 가마터에서 유사한 파편이 확인된 것으로는 청자압출양각능화형접시(표 4-①), 청자음각선문접시(표 4-③), 청자상감운학문완(사진 12), 청자투각기대(사진 13), 청자상감국화문팔각화분, 청자도판(사진 13)과 내저면에 '기사(己巳)'가 상감된 청자대접저부편(사진 11)이 있다.

청자압출양각능화형접시는 지릉(智陵), 석릉(碩陵), 곤릉(坤陵)과 파주 혜음원지(惠蔭院址) 등 왕실 관련 유적과 사찰 등의 소비지 출토품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어 당시 수요가 많았던 기종임을 알 수 있다. 이 접시는 부안 유천리에서도 발굴되었지만 강진의 계율리, 용운리, 사당리 등지에서 유사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강진에 위치한 월남사에서 굳이 유천리 가마 제품을 주문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월남사지 출토 청자 중에는 강진 사당리 27호의 편과 거의 동일한 기종의 편이 여러 점 있다. 먼저, 청자음각선문접시(표 4-③)는 높이가 매우 낮고 상대적으로 바닥면이 두꺼우며 외측면에 세로로 골을 내서 문양을 장식했는데 27호 가마터 출토품 중에 동일한 편이 있다. 또한 나비문양이 투각 장식된 청자투각기대편과 청자상감국화문팔각화분편도 유사한

편이 27호 가마에서 출토되었다. 투각기대와 팔각화분은 동흔 이용희 선생 기증품 중에도 비슷한 것이 여러 점 있어 월남사지 출토 청자의 제작지가 강진지역일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1차 발굴조사 출토품인 청자상감운학문완편(사진 12)은 강진 계율리 15호와 사당리 8호·27호 가마터에서 발굴된 청자와 문양구성·표현방식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월남사에서 다량 출토된 청자 도판의 경우, 강진과 부안에서 모두 제작했지만 월남사지의 청자음각연화절지문판은 부안보다는 강진산으로 추정된다. 부안산 도판은 대부분 상감기법으로 화려하고 정교하게 장식한 것들이어서 월남사지의 것과는 조형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강진지역에서는 사당리와 용운리를 비롯한 여러 가마터에서 도판편이 출토된 바 있다.

내저면에 ‘기사(己巳)’가 상감된 청자저부편 역시 월남사지 출토 청자의 제작지 추정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간지가 상감된 청자는 거의 대부분 강진지역의 가마터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sup>14)</sup>

시굴조사에서 송대 흑유완으로 보고한 완의 생산지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sup>15)</sup> 기층면이 사선으로 쪽 뺀어 올라가는 형태의 이 흑유완은 굽 안바닥과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구웠다. 지금까지 발굴된 고려시대 사지의 중국자기 출토 현황을 보면 한 사찰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중국 송·원대 자기 파편이 함께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당시 사찰에서 출토된 수입 흑유자는 주로 건요와 길주요 제품이지만,<sup>17)</sup> 월남사지의 흑유완은 형태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동흔 이용희 선생이 기증한 강진지역의 흑유완들이 주목된다. 강진의 흑

14) 한성욱, 『高麗時代後期 干支銘象嵌青磁 研究史』,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青磁』 (해강도 자미술관, 1991), p.96. 간지명 상감청자가 출토된 가마터로 사당리 7호, 계율리 18호, 수동리 1호 요지가 있다.; 부안 유천리에서도 ‘壬午’銘청자가 출토된 예가 있지만 간지명 상감청자는 대부분 강진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具一會, 『扶安郡 柳川里 高麗陶磁 研究』, 『美術史論壇』 제25호 (한국미술연구소, 2007), pp. 89~90.

15) 「강진 월남사지 3층석탑 주변정비 문화재 내 시굴조사 약식보고」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2).

16) 『聖住寺』 (忠南大學校博物館·保寧市, 1998);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京畿道博物館·安城市, 2005); 『高達寺址II-3~5차 시·발굴조사보고서-』 (畿甸文化財研究院, 2007); 『과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1차~4차(본문)-』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17) 이종민, 『高麗時代 寺址 出土 磁器의 器種과 性格-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흙으로 빛은 우리 역사』 (용인대학교박물관, 2004), pp.112~115.

유완은 남아있는 측사면의 형태로 보아 월남사지 출토품과 비슷한 형태로 보이며, 태토와 유색, 번조 받침에서도 공통점을 보인다. 따라서 월남사지에서 출토된 흑유완 역시 강진지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월남사지 출토 청자의 중심 시기는 진각국사 해심과 관련하여 13세기 전·중반경 부터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소위 ‘강진 유형’<sup>18)</sup> 널리 공유된 시기이므로 발, 대접, 접시류처럼 일상 생활용기로 구분되며 생산량도 많은 기종의 경우 다른 지역의 가마터에서도 유사한 편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몇몇 특징적인 출토품의 예를 통해 월남사지 출토품은 강진지역 생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5. 월남사지 출토 고려청자의 성격

월남사지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는 대접, 완, 잔, 접시 등의 일상생활용과 도판, 돈, 화분, 기대, 침 등 특수한 용도로 구분된다. 특히 동일한 크기와 문양이 장식된 도판이 다량 출토된 점은 다른 사지(寺址) 출토 유물 현황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다. 도판은 보통 건물 내부의 벽 등에 장엄을 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다. 청자 화분이나 돈(墩)도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물품이었을 것이다. 출토품을 기준으로 월남사 전성기의 건물을 상상해보면, 월남사는 벽에 청자타일이 빼곡히 붙어있는 건물 안에 청자의자와 청자 화분 등이 놓여있는 매우 화려한 사찰이었을 것이다. 월남사지 출토 고려청자는 당시 개성 고려궁성 유적지나 진도 용장성 출토품, 그리고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자였던 최우의 원찰 선원사의 출토품 등 왕실을 비롯하여 그에 버금가는 세력과 관련된 유적 출토품과 기종 구성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당시 상당했던 월남사의 사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출토 청자를 통해서 본 월남사는 11세기 후반, 또는 12세기 전반 경에 이미 사찰이 조성되었고, 13세기 전·중반경부터 약 1세기 이상 고려 중·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번영을 누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여러 곳의 고려시대 사지가 발굴되었는데, 이들 사지에서 발굴된 고려 청자의 특징에 대해 다룬 논고가 있다.<sup>19)</sup>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 사찰에서 사용된 청

18) ‘강진유형’은 용운리 10호 II층 출토 유형을 기준으로, 음각양각의 연판문발, 앵무문발, 통형간, 팽이형간, 양각절요접시 등이 동반되는 유형을 일컫는 말이다. 장남원, 앞의 책, p.199.

19) 이종민, 앞의 논문, pp.108~110.

자들이 시기변화에 따라 기종의 조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고려 전기는 해무리굽으로 대표되는 완류의 수량이 가장 많고, 중기로부터는 거의 모든 청자의 기종이 다 망라될 정도로 기종의 구성이 다양해진다. 월남사지의 경우도 대접과 다양한 형태의 접시와 여러 가지 특수 기종의 출토 예를 통해 이 중기의 특징을 일부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려 후기에는 기종 구성이 특정한 형태의 대접이나 접시 등으로 다시 단순해지는데 월남사 출토 청자 중 14세기 이후의 청자는 이 부분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월남사는 고려시대 다른 사지 출토 청자들과 기종 구성면에서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월남사지 출토 청자는 규석을 받쳐 구운 고급품이 많은 편이다. 포개구이 한 조질 청자도 일부 있지만 수량이 많지는 않다. 월남사지 출토 청자 중 고급품은 강진 사당리 27호와 같이 양질의 청자를 주로 생산했던 가마의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함께 발굴된 조질 청자 역시 강진 일대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 6. 맺음말

지금까지 월남사지 출토 고려청자 중에서 기종 구분이 가능한 파편을 중심으로 기종별 현황과 제작지, 제작시기 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월남사지는 최근 발굴 성과로 창건 시기가 삼국시대로 추정되고 있지만, 출토 청자는 대부분 고려 중·후기의 것이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건물 내부를 장식했던 청자도판편이 다량 출토되었다는 점이며, 이와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일상기종과 특수기종도 함께 확인되었다. 월남사는 무신정권기의 진각국사 혜심과 공민왕대 왕사였던 각진국사 복구가 관련된 사찰로, 개성 고려궁성과 진도 용장성, 강화 선원사지 등 왕실을 비롯하여 그와 버금가는 세력과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된 청자들과 기종 구성과 조형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점으로 보아 월남사는 당시로서는 사격이 상당히 높았던 사찰로 생각된다. 부족하나마 지금까지 발굴된 월남사지 청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과에 따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다. 월남사지 출토품을 통해 고려 중·후기 청자에 관한 보다 많은 자료들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문헌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 ▼ 단행본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 해안, 2006.

### ▼ 논문

具一會, 「扶安郡 柳川里 高麗陶磁 研究」, 『美術史論壇』 제25호, 한국미술연구소, 2007.

金允貞, 「高麗末·朝鮮初 銘文靑瓷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1.

배종민, 「月南寺와 崔氏武人政權」, 『호남문화연구』 46, 호남문화연구원, 2009.

尹龍二, 「江華 禪源寺址 出土 高麗靑瓷의 성격」, 『佛敎美術』 17, 동국대학교박물관, 2003.

이종민, 「高麗時代 寺址 出土 磁器의 器種과 性格-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흙으로 빛은 우리 역사』, 용인대학교 박물관, 2004.

장남원, 「高麗 中期 靑瓷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鄭在恩, 「江華 禪源寺址 出土 高麗靑瓷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한성옥, 「高麗時代後期 干支銘象嵌靑磁 研究史」,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해강도자미술관, 1991.

### ▼ 보고서

京畿道博物館·安城市,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05.

국립문화재연구소, 『江華 碩陵』, 2003.

-----, 『江華 高麗王陵-嘉陵·坤陵·陵內里石室墳』, 2007.

-----, 『개성 고려궁성』, 2009.

국립중앙박물관,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1997.

- , 『부안 유천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1.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1.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務安 道里浦 海底遺蹟』, 2003.
- 畿甸文化財研究院, 『高達寺址Ⅱ-3~5차 시·발굴조사보고서-』, 2007.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과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1차~4차(본문)-』, 2006.
- 木浦大學校博物館·康津郡, 『月南寺址』, 1995.
- 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 珍島郡, 『珍島 龍藏城』, 1990.
- 文化財研究所, 『莞島 法華寺址』, 1992.
- 圓光大學校博物館,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查報告書』, 2001.
- 민족문화유산연구원·강진군, 「강진 월남사지 3층석탑 주변정비 문화재 내 시굴조사 약식보고」, 2012.
- ,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주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2.
- 珍島郡, 『珍島 龍藏城 地表調查報告書』, 1985.
- 忠南大學校博物館·保寧市, 『聖住寺』, 1998.
-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 ▼ 도록

-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왕실의 도자기』, 2008.
- , 『천하제일 비색청자』, 2012.
- 목포대학교박물관, 『또 하나의 고려궁성, 珍島 龍藏城』, 2012.



# 唐宋時期 浙江地域 靑瓷 窯의 構造와 變遷에 對한 簡略 分析

쌍쿤펑(項坤鵬 : 北京 故宮博物院 研究室)

## 目 次

1. 序言
2. 研究簡史
3. 窯의 結構와 變遷
4. 窯의 段階性
5. 相關問題
6. 結語

**한글개요** 唐宋時期 浙江地區의 靑瓷를 번조한 가마는 거의 전부가 龍窯로, 총체적으로 보면 그 구조는 窯頭·窯身·窯尾의 세부분을 포함하고, 구체적으로 각 부분은 또 다시 몇 개의 하부구조로 구성되며, 요업 발전과 함께 이들 구조도 부단히 개선되었다. 가마와 관련된 자료에 근거하여 그 발전과정은 唐代 早期·中晚唐~五代時期·南宋時期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가마 구조 가운데 배연실[出煙室]은 이전의 排烟坑에 비하여 더욱 성숙된 것으로 이것의 출현은 비단 排烟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가마의 불길을 정확히 통제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이는 가마의 경사에도 더욱 융통성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南宋官窯 窯場에 나타난 饅頭窯 초벌구이가마[素燒爐]는 北宋官窯 또는 北宋 宮廷用 瓷器의 공납을 담당하던 窯場에 기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두요 초벌 가마는 궁정용 자기를 번조했던 南宋官窯를 普通의 瓷器를 번조한 龍泉窯와 구별하는 특징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진일보하게 토론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핵심어** : 가마[窯爐], 구조, 변천, 배연실[出煙室],  
초벌구이 가마[素燒爐]

## The Analysis on the Structure and Evolution of the Celadon Kilns in Tang and Song Dynasty in Zhejiang Region

Abstract The kilns firing celadon are almost Long-kilns in Zhejiang region in the Tang and Song Dynasty. All over one Long-kiln includes three parts: kiln head, kiln body and kiln tail. Specially, each contains several sub-structur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eramics industry, these structures were constantly improving. According to relevant informati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Long-kiln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early Tang Dynasty, middle and late Tang Dynasty to Five Dynasty and Southern Song Dynasty. Among the kiln structures, the “smoke chamber” was more mature than the previous “smoke pit”. It appeared not only to smoke, but also contributed to precise control of the flame of the kiln. The dome kilns used for biscuiting in the Southern Song Guan kiln was from Northern Song kiln or other kilns responsible for tribute into the Southern Song royal ceramics. So maybe it can be speculated that this kind of biscuiting kilns were one of the distinguished features between the kilns producing royal ceramics and the ones producing ordinary ceramics. This is an issue worthy of further exploration.

Key Words : kiln, structure, development, smoke chamber,  
biscuiting kiln

## 1. 序言

浙江地域은 중국 역사상의 중요한 청자 생산지역으로 중국 청자의 발원지라고도 말할 수 있다.<sup>1)</sup> 唐宋時期 절강지역 청자생산은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여 越窯·婺州窯·甌窯·龍泉窯을 비롯한 南宋官窯(修內司官窯와 郊壇下官窯 포함) 등의 요장은 모두 이 시기에 대표적인 상품을 생산해 내었다. 窯業 技術의 각도에서 보면 瓷器의 생산과 가마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당송시기 절강지역의 청자 생산에 사용된 가마는 龍窯로써,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견된 이른 시기의 용요는 商代까지 거슬러 올라가며,<sup>2)</sup> 隋唐시기에 이르러 용요의 분포가 이미 대체로 보편화되고 용요의 구조에서도 비교적 큰 발전을 이루어 가마 몸체[窯身]에 장작투입구[投柴孔]가 출현한다. 五代에서 南宋시기는 중국 남방에 용요가 대유행한 시기로 일정한 간격으로 投柴孔을 설치하여 뿔감을 투척하는 分段式 投柴方式과 기물을 匣鉢에 넣어 굽는 匣鉢裝燒方式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마의 경사도 등도 개선되어 용요의 구조가 이미 한층 성숙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확보된 가마 자료를 바탕으로 唐宋시기 절강지역 청자 가마의 구조와 그 변천 문제에 역점을 두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研究簡史

절강지역은 고대 요지가 밀접하게 분포하여 陳萬里(陳萬里)가 1930년대 부터 위야오(余姚) 상림후(上林湖)·샤오쑹(紹興) 지오옌(九岩) 등의 越窯窯址 조사를 시작하여, 절강지역의 역대 古瓷器窯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이 점차 전개되어 현재까지 이미 상당수의 요지 자료가 보고

1) 2011年 故宮博物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德清縣人民政府가 주최하고, 德清縣博物館·紹興縣博物館(越國文化博物館)이 주관한 “浙江 原始青瓷와 德清 火燒山 등 窯址 고고성과 보고전시와 연구 토론회”가 故宮博物院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학회에서 陳元甫 등은 東苕溪 中流는 중국 原始瓷의 중요한 기원지라고 여겼다.

2) 1984年 浙江省 上虞縣 百官鎮 商代窯群이 발견되었다. 이들 가마 중 2號窯가 비교적 보존이 양호하였는데, 긴 막대형(長條形)의 경사도 16°, 전체 길이 5.1m, 최대 너비 1.22m, 잔존 높이 0.33m로, 가마 바닥은 평평하게 가공하였고 窯床 위에 모래를 깔았다. 燃燒室과 燒成室은 확연하게 分段하여 燒成室은 약 燃燒室보다 0.2m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가마는 이미 龍窯의 기본 요건을 갖추어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龍窯 유적이다. 熊海堂, 『東南亞窯業 技術發展與交流史研究』, 第三章 「中國古代窯爐技術發展與交流史略論」, 83-84쪽 참조.

되었으며, 그 가운데는 唐宋時期 요지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송시기 절강지역의 청자 가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적지 않은 발굴보고서 또는 약보보고서를 통하여 자세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으로 『靑瓷與越窯』(林士民),<sup>3)</sup> 『龍泉靑瓷研究』(浙江省輕工業廳),<sup>4)</sup> 『龍泉東區窯址發掘報告』(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sup>5)</sup> 『寺龍口越窯址』(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sup>6)</sup>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等の 『南宋官窯』와<sup>7)</sup> 「記浙江東陽歌山窯址的發掘」,<sup>8)</sup> 「慈溪上林湖荷花芯窯址發掘簡報」,<sup>9)</sup> 「上虞窯山·黃蛇山古窯址」,<sup>10)</sup> 「浙江慈溪市越窯石馬弄窯址的發掘」,<sup>11)</sup> 「浙江越窯寺龍口窯址發掘簡報」,<sup>12)</sup> 「淺談南宋官窯及窯爐的復原」(蔣忠義),<sup>13)</sup> 「浙江龍泉安仁口古瓷窯址發掘報告」(上海博物館考古部),<sup>14)</sup> 「浙江越窯寺龍口窯址發掘簡報」(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等)<sup>15)</sup> 등이 있다.

당송시기 절강지역의 청자를 번조했던 가마는 거의 모두가 龍窯이다. 용요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학자들이 저서 또는 논문을 통하여 고찰한 바 있는데, 대체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종합적인 연구 분석이다. 예를 들어 씨옹하이탕(熊海堂)이 저술한 『東亞窯業技術發展與交流史研究』는<sup>16)</sup> 동아시아 요업의 지역적 특징과 지역 간의 기술교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논술하였다. 특히 제2장 「동아시아 도자 가마와 요도구의 분

3) 林士民, 『靑瓷與越窯』, 上海古籍出版社, 1999年.

4) 浙江省輕工業廳編, 『龍泉靑瓷研究』, 文物出版社, 1998年.

5)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龍泉東區窯址發掘報告』, 文物出版社, 2005年.

6)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年.

7)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南宋官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年.

8) 貢昌, 『婺州古瓷』, 「記浙江東陽歌山唐宋窯址的發掘」, 紫禁城出版社, 1988年, 75쪽.

9) 「慈溪上林湖荷花芯窯址發掘簡報」, 『文物』, 2003年 第11期.

10) 「上虞窯山·黃蛇山古窯址」, 『南方文物』, 1990年 第4期.

11) 鄭嘉勳, 「浙江慈溪市越窯石馬弄窯址的發掘」, 『考古』, 2001年 第6期.

12) 許慈波等, 「浙江越窯寺龍口窯址發掘簡報」, 『文物』, 2001年 第11期.

13) 蔣忠義, 「淺談南宋官窯及窯爐的復原」, 『江西文物』, 1991年 第4期.

14) 上海博物館考古部, 「浙江龍泉安仁口古瓷窯址發掘報告」, 『上海博物館集刊』 第三期.

15)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浙江越窯寺龍口窯址發掘簡報」, 『文物』, 2001年 第11期.

16) 前掲 『東亞窯業技術發展與交流史研究』.

류와 그 개략적 분포(東亞陶瓷窯爐與窯具的分類及宏觀分佈)와 제3장 「중국 고대 가마 기술의 발전과 교류사론(中國古代窯爐技術發展與交流史論)」에서 동아시아 지역 가마의 분류와 대략적인 분포 현황을 소개하고, 또한 용요의 발전 단계와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가마 기술의 발전과정을 고찰하였다. 제5절 “平焰龍窯” 중 평염 용요의 발생과 발전, 가마의 구조를 비교적 상세하게 논술했다. 쑤보어첸(朱伯謙)은 「우리나라 고대의 용요에 대한 시론(試論我國古代的龍窯)」에서<sup>17)</sup> 용요의 구조를 개괄하고 나아가 시기에 따른 용요의 구조를 비롯하여 그 발전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밖에 양원관(楊文寬)·짱씨양생(張祥生)의 「고대의 일부 도자 가마에 대한 초보적 탐구(古代部分陶瓷窯爐初探)」는<sup>18)</sup> 중국 용요의 일부 현황을 비교적 어렵듯이 소개하고, 용요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때 가마 전체가 “압력제로(零壓)”를 유지하게 조절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리우전쥘(劉振群)의 「중국 역대 도자 가마와 소성 공예 고증(中國歷代陶瓷窯爐和燒成工藝考證)」은<sup>19)</sup> 중국의 각 시기별 도자 가마의 기본 상황을 소개하면서 용요의 현황에 대한 간략 소개를 포괄하였다. 둘째 시대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쑤쥘(徐軍)은 「절강지역 동한시기 가마의 초보적 탐구(浙江東漢窯爐初探)」에서<sup>20)</sup> 東漢時期 早期 용요의 분포와 구조를 소개하였다. 이밖에 왕이펑(王屹峰)의 「中國古代青瓷產區早期龍窯研究」는<sup>21)</sup> 先秦에서 中唐時期 용요의 입지 선정과 축요, 가마 구조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용요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이 있다. 리강(李剛)은 「古代龍窯研究」에서<sup>22)</sup> 龍窯의 “화당(火膛) 위치의 변동”과 공간 이용과 가마 구조 등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가마 구조를 언급하면서 그는 가마 상단부의 火門이 投柴孔으로 대체된 것은 가마 내의 환원염을 생성 혹은 유지하고 번조품의 품질을 높

17) 朱伯謙, 「試論我國古代的龍窯」, 『文物』, 1984年 第3期.

18) 楊文憲·張祥生, 「古代部分陶瓷窯爐初探」, 『中國古陶瓷研究』, 中國科學院上海矽酸鹽研究所編, 1987年, 332쪽.

19) 劉振群, 「中國歷代陶瓷窯爐和燒成工藝考證」, 『中國古陶瓷研究』, 科學出版社, 1987年, 325~326쪽.

20) 徐軍, 「浙江東漢龍窯初探」, 『故宮博物院院刊』, 2008年 第4期.

21) 王屹峰, 「中國古代青瓷產區早期龍窯研究」, 『東方博物』 第三十四輯.

22) 李剛, 「古代龍窯研究」, 『東方博物』 第十二輯.

이기 위함이고, 용요 후미에 연통[烟囪]을 설치한 것은 화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선위에밍(沈岳明)은 「용요 생산 중의 몇 가지 문제(龍窯生產中的幾個問題)」에서<sup>23)</sup> 먼저 商代부터 元明시기 용요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나아가 가마의 번조 수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는 李剛의 관점과 달리 第3部分 “용요의 배연 처리(龍窯的排煙處理)”에서 분석을 통해 고대 용요는 일반적으로 연통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특정한 窯系의 가마 구조를 고찰한 것으로 주로 龍泉窯가 중심을 이룬다. 라오파칭(勞法盛) 등이 저술한 「절강 고대 용요와 요도구의 연구(浙江古代龍窯和窯具的研究)」는<sup>24)</sup> 절강지역 고대 용요의 길이경사도 등의 발전과 변화를 간략히 언급하였다. 리더진(李德金)은 「용천요의 가마 구조에 대한 소견(淺談龍泉窯的窯爐結構)」에서<sup>25)</sup> “가마 축요 방법과 재료(窯爐砌建方法與用材)”와 “가마 구조의 변화(窯爐結構的變化)” 두 부분으로 나누어 宋元明 龍泉窯의 가마 구조에 대하여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린즈밍(林志明)의 「용천지역 용요의 소성기술에 대한 소견(龍泉地區龍窯的燒成技術淺談)」은<sup>26)</sup> 기물의 갑발과 가마 내 재임[裝匣, 裝窯]·멜감 준비[備柴]·제사(祭祀)·불넣기[燒窯頭]·번조실[燒窯室]·불보기[看火候]의 7개 방면으로 용천지역 용요의 번조기술을 고찰하였다.

### 3. 窯의 結構와 變遷

총체적으로 보면 당송시기 절강지역에서 청자를 번조한 용요는 가마 상단부[窯頭]와 번조실[窯室], 가마 후단부[窯尾]의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1) 가마 상단부[窯頭]

가마 앞 작업공간[工作面]과 아궁이[火膛]을 포함한다. 가마 앞 작업공간은 번조시 窯工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火膛 앞쪽에 위치하고 일반적으

23) 沈岳明, 「龍窯生產中的幾個問題」, 『文物』, 2009年 第9期.

24) 勞法盛·葉宏明·程朱海, 「浙江古代龍窯和窯具的研究」, 『中國陶瓷』, 1983年 第4期.

25) 李德金, 「淺談龍泉窯的窯爐結構」, 中國考古學研究編委會編『中國考古學研究—夏鼐先生考古五十年紀念論文集』, 文物出版社, 1986年.

26) 林志明, 「龍泉地區龍窯的燒成技術淺談」, 『麗水學院學報』, 2009年 第1期.

로 나팔형을 띠며 火膛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넓어진다.

火膛은 燃燒室이라고도 한다. 번조실 앞 부분에 위치하고 장작을 넣어 불을 붙이며 바람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평면은 일반적으로 반원형을 띤다. 火膛의 구조는 몇 부분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남송시기 龍泉山頭窯 3호요지 BY13의 火膛은 장작 진입구[進柴口]·바람구멍[送風口]·아궁이 칸나눔막[爐柵]·재떨어짐구멍[算眼]·通風道·아궁이벽[火膛壁]으로 구성된다<도면 1-1, 도면 1-2>. 進柴口와 送風口는 모두 火膛 앞쪽 중앙에 위치하며, 進柴口는 送風口 위쪽에 만든다. 送風口는 안쪽은 좁고 바깥이 넓으며 입면은 직사각형을 띤다. 爐柵은 아궁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평면은 進柴口에서 번조실 방향으로 방사형을 띤다. 3~5개의 크기가 다른 벽돌을 사용하여 아궁이의 앞편과 뒤편을 연결하며 벽돌은 상하로 옆세워쌓기 하여 바닥면과 맞닿는다. 각 벽돌의 좌우 간격은 서로 일정하고, 장작재가 즉각 그 사이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일정하게 통풍작용을 한다. 爐柵의 위에는 갑발저부편을 덮었는데 갑발편 사이에 틈을 남겨 쇠불판과 같은 算眼을 형성하여 통풍과 재떨어짐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좌우의 두 通風道는 爐柵와 火膛壁 사이에 설치하였다. 저부는 절단하고 둥근 몸통부분을 반으로 쪼개 반원형을 이루는 갑발편을 한쪽은 바닥에 다른 한쪽은 火膛壁에 바싹 붙여 연이어 배열하여 통풍도를 만들었다. 火膛壁은 굵지 않은 흙벽돌[土坯磚]을 사용하여 벽돌끝을 교차적으로 맞추며 수평으로 길이쌓기 하였고 뒤에서 앞쪽으로 점점 휘면서 좁아진다.<sup>27)</sup> 이는 비교적 완전한 火膛의 구조로써 남송 용요의 발전상황을 설명해 준다. 火膛은 이미 이전보다 복잡해져 이러한 변화는 연소효율성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爐柵·算眼과 通風道의 출현은 모두 火膛 내 연료의 충분한 연소에 유리하여 최대한 화력을 이용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도 가마 번조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가마 유적에서 보이는 火膛은 보통 進柴口·送風口·火膛壁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어 晚唐시기의 허화신(荷花芯) 제37호요(Y37)는 火膛 앞부분 정중앙이 곧 장방형의 아궁이문[火門]이다. 火膛 바닥은 M형 갑발을 평평하게 깔아 만들고 틈사이를 점토로 메웠으며 爐柵·算眼과 通風道는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sup>28)</sup>

27) 前掲 『龍泉東區窯址發掘報告』, 63-65쪽.

28) 前掲 『慈溪上林湖荷花芯窯址發掘簡報』.

## 2) 번조실[窯室]

窯壁·窯頂·窯門·窯床·投柴孔 등의 구조를 포괄한다. 가마 벽[窯壁]은 일반적으로 벽돌끝을 교차적으로 맞추며 수평으로 길이쌓기 하였지만 예외도 있다. 唐 早期의 동양(東陽) 거산야요(歌山窯) 가마 벽은 바로 구룡의 경사를 이용하여 깊게 파고 흠다짐하여 축조하였다. 남송의 룡취엔(龍泉) 산토우야요(山頭窯) 5호요 BY15의 가마 벽은 점토로 짠 메운 갑발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는데 각 갑발 사이의 틈새도 점토로 발라 평탄하게 했다. 장기간 번조를 거치면 가마 벽 위에는 대개 소결층[窯汗層]이 형성된다.

가마 천정[窯頂]은 궁륭형으로 대부분 벽돌로 쌓아 구축하였다. 이밖에 예를 들어 東陽 歌山窯의 궁륭형천정은 가는 죽순대[毛竹]를 반원형으로 구부려 세워 구축하는데, 毛竹의 양끝을 각각 가마 바닥에서 20cm 거리의 가마 벽에 박아 넣어 매 죽간사이 1cm정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끼워 배열한 다음, 죽간 위에 촘촘하게 대쪽[篾片]으로 한층 깔고 그 위에 20cm 정도 두께로 점토를 덮어 견고하게 흠다짐을 하여 궁륭형천장을 만들었다.<sup>29)</sup> 東陽 歌山窯의 가마 벽과 천장의 축조방법은 비교적 이른 시기 가마의 수축방식으로 唐代 早期 이후 가마 벽과 가마 천장은 기본적으로 모두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窯床은 가마에서 번조할 기물을 쌓아 놓는 곳으로 기물의 특성에 맞게 방법과 위치를 달리하여 정연하게 배열하고 고온 번조를 거치면 瓷器가 된다. 窯床 위에는 일반적으로 가는 모래를 한층 까는데, 하나는 가마 바닥을 감싸 보열과 단열을 하기 위함이고, 다른 이유는 窯床이 경사지기 때문이다. 번조할 기물을 층층이 포개구이 할 경우 窯床 위에 수평으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마 바닥에 모래층을 깔아서 맨 아래에 놓이는 기물은 모래층 안에 묻어 수평을 조절한다. 荷花芯 37호요(Y37)의 窯床 모래층에 잔존해 있는 번조시 기물을 받쳤던 墊具는 높이가 낮은 圓柱形이 많은데, 재임시 받침 하단부의 앞쪽은 모래 속에 비교적 얇게 넣고, 뒤쪽은 다소 깊이 묻어서 墊具의 상면이 더욱 수평을 이루도록 하였다.<sup>30)</sup> 唐 早期 몇몇 가마의 窯床 폐기물 중에 墊具가 발견되었지만 모두 갑발의 출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런데 일찍이 晚唐時期 가마의 窯床에

29) 前掲 『婺州古瓷』, 74쪽 참조.

30) 前掲 『慈溪上林湖荷花芯窯址發掘簡報』 참조.



갑발이 출현하였다. 황산산 26호요 갑을(黃鱗山Y26甲乙) 두 가마의 경우 窯床 내 폐기물 퇴적 중에 보이는 갑발은 자기질이 많고 어떤 것은 유약으로 갑발의 구연부를 밀봉하였다.<sup>31)</sup> 갑발의 출현은 가마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물을 支釘·墊珠(태도빚음받침) 등의 받침류로 간격을 조절하며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과 비교하여 갑발을 이용한 중첩 번조는 자기의 번조 품질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더 높이 쌓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번조실의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밖에 폐기된 갑발은 가마 벽과 算眼, 通風道 등을 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가마의 구성성분을 이루었다.

측면 출입구[窯門]는 기물을 넣고 꺼낼 때 요공이 출입하는 통로로 보통 작업장 및 폐기물 퇴적장과 통한다. (표 1)의 예와 같이 晚唐에서 南宋의 대부분 가마 유적에서는 모두 窯門이 발견되었는데 수량은 일치하지 않으며, 窯門의 개수는 가마의 길이와 관련이 있다. 唐 早期의 가마 유적에서는 아직까지 窯門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대개 가마 길이가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窯門에는 주춧돌이 있고 갑발을 겹겹이 쌓아 올려 구축한 문기둥[門柱]이 있으며, 窯門 밖에는 출입문진입로[門道]가 있는데 八字形을 띠는 것이 많다. 어떤 것은 원통형 받침[墊柱] 등으로 축조하며, 晚唐에서 北宋時期의 窯門은 모두 窯身의 한쪽에만 위치하고, 南宋의 窯門은 窯身 양측에 분포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진종완(金鐘灣) BY22 이외에도 진야오강(金窯崗)요지 BY25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4개의 窯門을 발견하였는데 서쪽에 3개, 동쪽에 1개가 있었다<도면 2>.<sup>32)</sup> 窯門을 양쪽에 만든 경우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 기물을 넣고 꺼내기에 편리하도록 지형적 상황에 맞추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멜감 투입구[投柴孔]는 장작을 넣어 가온을 할 때 사용된다. 投柴孔은 일반적으로 수량이 비교적 많고, 가마의 양쪽 벽에 위치하며, 번조시 窯頭 쪽에서 窯尾 방향으로 나누어 장작을 투척하면서 가마의 온도를 통제할 수 있다. 장작 투입시에 마개로 투입구를 막을 필요가 없으며, 산소의 유입을 일정하게 차단하여 가마 내 더욱 양호한 환원 번조 분위기를 유지시켜 청자 번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들 들어 山頭窯 BY12의 宋代 가

31) 前掲 『青瓷與越窯』, 147쪽.

32) 前掲 『龍泉東區窯址發掘報告』, 200~203쪽.

마 1기에서는 모두 16개의 投柴孔 흔적을 발견하였는데 이 중 가마 후미 오른쪽과 가까운 投柴孔이 비교적 보존이 양호하다. 마름모꼴로 바깥쪽이 넓고 안쪽은 좁으며 가마 바닥으로 부터 1.35m 거리에 위치하고, 투입구의 너비 저부 12cm, 상부 7cm, 높이 7cm이다.<sup>33)</sup> 한편 投柴孔은 圓形도 있는데 山頭窯 3호요지 BY13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投柴孔을 관찰한 결과 직경 15cm 정도로 원형을 띠었다. 投柴孔과 窯門의 출현은 龍窯의 가마 길이가 길어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3) 가마 후단부[窯尾]

불막음창[擋火牆]·불기둥[烟火柱]·배연구[이글 원문의 배연구를 지칭하는 出烟孔·排烟孔·烟火弄·吸火孔 가운데 이하 “出烟孔”라 통일함. - 역자]와 後壁 등의 부분을 포괄한다. 窯尾의 이러한 구조는 주로 불길의 속도와 배연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擋火牆은 일반적으로 窯室과 窯尾 사이에 위치하며 흙벽돌을 수평으로 쌓아 축조하였다. 擋火牆의 저부는 出烟孔이고, 벽 바깥쪽은 排烟坑이다. 예를 들어 東陽 歌山窯는 窯尾 後壁에 10개의 出烟孔을 만들었다. 각각 너비 9cm 높이 16cm, 배연구 바닥에 2cm정도 두께로 점토를 한층 발랐다. 번조 중에 배연구를 틀어 막음으로써 出烟孔의 숫자를 조절하며 화력을 조절할 수 있다. 南宋 라우후똥야오(老虎洞窯)의 배연실[出烟室]의 배연구 가운데 일부가 벽돌조각으로 막혀진 것을 볼 수 있다.<sup>34)</sup> 이밖에 金窯崗窯址 BY25에서도 배연구 하나가 갑발과 돌맹이로 막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sup>35)</sup> 가마 후미 뒤에는 배연갱 하나가 있는데 반원형에 가깝다. 길이 1m로 너비는 窯床과 같으며 窯床 보다 30cm 낮다. 배연갱은 어떤 것은 벽돌과 돌로 축조하였고, 어떤 것은 土坑에 그치는 것이 있다. 南宋에 이르러 가마 유적 중 出烟室이 출현한 경우가 점차 많아지며 金窯崗窯址 BY25의 出烟室은 바로 번조실 뒤쪽에 위치하고 평면은 方形에 가깝다. 너비 2.3m, 깊이 2m에 달하며 擋火牆과 後壁으로 구성된다. 擋火牆의 잔존 높이는 40~80cm이고, 저부에 25cm 높이의 烟火柱를 설치하였는데, 각 기둥은 2개의 크기가 다른 갑발을 수평

33) 前掲 『淺談龍泉窯的窯爐結構』.

34) 唐俊杰·鄧禾穎, 『南宋官窯』, 杭州出版社, 2008年, 42쪽.

35) 前掲 『龍泉東區窯址發掘報告』, 203쪽.

으로 쌓아 만들고 갑발 안에 점토로 채웠다. 각 기둥의 좌우 간격은 25cm로 6개의 배연구를 형성하고 배연실의 後壁은 이미 파괴되었다. 높이 36cm만이 잔존하는 두개의 烟火柱는 같은 크기의 갑발 3개를 수평으로 쌓아 축조하였고, 배연구는 너비 12cm로 벽돌과 갑발편으로 막았으며<도면 3>, 불길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sup>36)</sup> 이밖에 山頭窯 3호요지 BY13·山頭窯 5호요지 BY15·지아오탄샤(郊壇下)官窯, 씨우네쓰(修內司)官窯 등 南宋의 가마 유적은 모두 가마 후단부에 出烟室이 출현한다. 出烟室의 출현은 排烟坑과 비교할 때 가마 구조적 측면에서 하나의 발전이며, 요공들이 가마 내 불길의 세기와 온도를 더욱 정확하게 조절하기에 유리했다.

#### 4. 窯의 段階性

唐宋時期 浙江지역 청자를 번조한 龍窯는 단계적인 발전과 변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가마와 관련된 기본 자료를 종합하면 구체적으로 (표 1)과 같이 나타나며, 또한 이를 근거로 대략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唐 早期, 제2단계는 晚唐五代~北宋時期, 제3단계는 南宋時期이다.

##### 1) 唐 早期

唐代 早中期 가마의 방향은 서쪽으로 치우친 南向, 正南向·正北向·동쪽으로 치우친 北向·正西向 등으로 그 축요의 방향은 산세에 따라 달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잔존하는 가마의 길이는 2m~21m이고, 너비는 1.6m~2.3m이며, 발견된 가마가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窯室의 높이는 추정할 수 없다. 東陽 歌山窯 窯室의 높이가 약 1.1m로 추정되고, 窯壁은 대체로 가마 벽돌(窯磚)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窯磚의 규격은 서로 비슷하여 길이 25~27cm, 너비 12~18cm, 두께 5~7cm이다. 한편 窯磚을 사용하지 않고 구릉의 경사를 이용하여 깊이 파서 흙다짐하는 경우도 있다. 가마 천정은 竹杆을 이용하여 세우고 그 위에 점토로 덮은 사례가 있고,<sup>37)</sup> 가마 후단

36) 前掲 『龍泉東區窯址發掘報告』, 200-203쪽.

37) 唐代 寧波鎮 海小洞壘 中唐時期의 가마도 이러한 종류의 구축방법을 사용하였다. 前掲 『青瓷與越窯』, 148쪽 참조.

부 擋火牆은 벽돌로 수평 쌓기 하여 축조하였다. 여러 개의 배연구와 반원형 배연갱이 있고, 窯床 폐기물 가운데 墊具가 출현하지만 모두 갑발이 있다는 언급은 없다. 가마 바닥에는 모래를 깔았다. 이시기 대표적인 가마로는 上林湖 가마군의 무샤오완(木勺灣) 3호요(Y3)와 4호요(Y4), 황지아안(黃家庵) 53호요(Y53), 형탕산(橫塘山) 23호요(Y23)와 55호 갑요(Y55甲窯), 피따오산(皮刀山) 42호요(Y42), 황포아오(黃婆畝) 90호요(Y90)와 91호요(Y91), 東陽 歌山窯가 있다.

## 2) 晚唐~北宋時期

中晚唐~五代時期의 가마는 길이가 이미 40m 이상에 달하고, 경사도는 13~20°이며, 窯身이 점차 위쪽으로 경사져 앞쪽 경사도가 크고 뒷쪽은 작다. 火膛은 대체로 반원형을 띠고, 火膛 앞은 窯門이며, M形 갑발이 출현한다. 窯壁은 벽돌끝을 교차적으로 맞추며 수평으로 길이쌓기 하였고, 벽돌은 길이 20~29cm, 너비 13~17cm, 두께 4.8~5.6cm이다. 窯門이 여러 개 있는데 폭은 50~60cm로 모두 가마의 한쪽에 분포하며 다만 요문의 간격은 일정치 않다. 요문 밖은 墊柱 등을 사용하여 조성한 통로[門道]가 있다. 窯身은 앞에서 뒤쪽으로 점차 넓어지고 폭은 195~280cm이다. 이시기 이미 갑발 번조가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가마로 上林湖 가마군의 黃鱔山 62호요(Y26)를 포함하여 荷花芯 37호요(Y37), 상위(上虞) 지역의 황셔산야오(黃蛇山窯)와 야오산야오(窯山窯)가 있다.

北宋時期 가마의 경사도 변화가 일정치 않다. 스마농(石馬弄) 1호요(Y1)는 앞은 가파르고 뒤는 완만하다[窯身 앞쪽 경사도는 10°지만 뒤쪽은 약 5°]. 金鐘灣 BY22는 앞이 완만하고 뒤쪽은 완만하고[가마 전단부 8°, 중단부 16°, 후단부 10°], 가마 길이는 45.9~56.5m이다. 반원형 火膛의 너비는 약 1.2~1.7m이다. 또한 여러 개의 窯門을 내었는데 많은 경우는 10여개에 달하며, 가마 한쪽에 설치한 예[荷花芯 36호요(Y36)·石馬弄 1호요(Y1)]와 양측에 만든 경우[金鐘灣窯址]가 있다. 窯門의 폭은 대체로 0.35~0.7m로 같지 않고 窯門 간의 간격도 일정치 않다. 窯室 바깥쪽에 가마 보호 담장[護窯牆]을 볼 수 있는데 갑발을 쌓아 만든 예가 많다. 窯身은 벽돌 끝을 교차적으로 맞추며 수평으로 길이쌓기 하였다. 窯床 위에서 갑발과 墊具를 많이 볼 수 있고, 갑발없이 노출하여 포개구이한 기물도 볼 수 있으며[荷花芯 36호요(Y36)], 窯床 위 갑발의 배열 상

황과 크기, 수량 역시 약간씩 차이가 있다. 窯尾에는 擋火牆과 排烟坑이 있다. 窯床이 중첩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즉 현존한 窯床은 이전의 窯床을 기반으로 개축한 것이다. 대표적인 가마는 츠씨(慈溪) 지역의 石馬弄 1호요(Y1)를 포함하여 上林湖 지역 36호요(Y36)와 龍泉 따바이안(大白岸)의 金鐘灣 BY22 등이다.

### 3) 南宋時期

南宋時期의 가마는 正東西向, 東으로 치우친 南向 등 방향이 일정치 않다. 가마의 잔존 길이는 22~82m이다. 경사는 앞쪽이 가파르고 뒤쪽이 완만한 예[龍口 1호요(Y1)]와 앞쪽이 완만하고 뒤쪽이 가파른 예[金窯岡 BY25·郊壇下官窯·老虎洞官窯 등]가 있다. 火膛은 반원형을 띠는 것이 많고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다. 예를 들어 山頭窯 3호 요지 BY13의 火膛은 進柴口·送風口·爐柵·算眼·通風道·火膛壁 등을 포괄한다. 보통 窯門을 여러 개 내었는데 많은 경우는 10여개에 달한다. 窯門은 가마의 한쪽에 낸 예가 많지만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山頭窯 5호 요지 BY15는 11개의 요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1~10호는 가마의 북측에 11호는 남측 후미 가까이 설치하였다. 窯壁에 投柴孔이 여러 개 있으며, 窯床 위에서 일정 수량의 갑발이 발견되었다. 가마 후단부는 배연실 구조이다. 대표적인 가마는 쓰룽코우(寺龍口) 1호요(Y1)와 띠령토우야오(低嶺頭窯), 龍泉 金窯岡 BY25·山頭窯 3호 요지 BY13·山頭窯 5호요지 BY15·안런코우(安仁口) 루야오완(入窯灣) 3호요, 우꾸이산(烏龜山) 郊壇下官窯·老虎洞 修內司官窯 등을 포괄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가마의 길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唐 早期 龍窯 길이는 비교적 짧고 晚唐 이후 길어져 일반적으로 50m 정도에 달한다. 南宋의 山頭窯 3호 요지 BY13 길이는 이미 82m에 달한다. 다만 南宋時期에도 비교적 짧은 가마가 있는데 南宋 郊壇下官窯의 가마 2기의 길이는 각각 23m와 37.15m 이다. 修內司官窯 1호 龍窯는 길이 15m로 窯身이 짧아 번조 분위기와 온도를 조절하기에 편리하여 고급자기를 번조하는데 더욱 적합하다. 요도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唐 早期의 窯床 위에서는 갑발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 晚唐~南宋의 窯床에서는 일정한 수량의 갑발 유구를 볼 수 있다. 가마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唐代 早期 가마 중 窯門

유구는 보이지 않고 晚唐 이후의 상관 발굴 자료 중에서 비로소 窯門과 관련된 기술이 보인다. 이밖에 南宋 이전 가마의 후단부에는 배연실이 보이지 않고 南宋 이후 배연실은 가마의 고정적 구조로 정착되었다. 다시 말해 제1단계 가마는 아직 완전하게 구조를 갖추지 못한 단계로 길이가 비교적 짧고 구조가 조잡·간소한 편이며, 일부 가마의 가마 벽과 가마 천장 축조에 아직은 가마 벽돌(窯磚)을 사용하지 않았다. 제2단계는 가마 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은 성숙되지 못하였다. 가마 길이는 일반적으로 50m 정도이다. 요문이 출현하고 요도구 중 갑발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제3단계는 가마의 구조가 이미 매우 성숙해졌다. 가마의 경사에 변화가 생겨, 즉 전단부는 완만하고 후단부는 가파르거나 혹은 전단부가 가파르고 후단부가 완만하기도 하다. 火隴 등 가마의 구성 요소들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성숙해져 그에 따르는 구조도 더욱 세분화된다. 窯尾의 배연 시설은 배연실로 변화되어 배연 이외에도 불길의 흐름과 속도를 통제하는 작용을 하였으며, 窯工들이 더욱 자유자재로 가마의 온도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 5. 相關問題

### 1) 가마 경사도와 배연실

이상 가마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파악된다. 北宋과 南宋의 일련의 가마를 포괄하여 경사도는 앞이 가파르고 뒤가 완만한 예가 많다. 예로 石馬弄 1호요(Y1)와 寺龍口 1호요(Y1) 이다. 다만 南宋時期도 일부 가마의 경사는 앞이 완만하고 뒤가 가파르는데 예로는 金窯岡 BY25·山頭窯 3호 요지 BY13·山頭窯 5호 요지 BY15·修內司官窯 등이다. 그렇다면 이는 우연한 현상일까 아니면 가마 구조와 관련이 있을까?

가마 구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필자는 가마 경사도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가 아마도 가마 후단부의 배연실의 출현과 상관이 있다고 추정한다. 唐宋時期 浙江지역의 靑瓷 번조 龍窯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龍窯의 가마 후단부 배연 상황의 기술은 두 가지 견해가 보이고 있다. 즉 “排烟坑”와 “出烟室”이다. 排烟坑의 경우 石馬弄 1호요(Y1)를 예로 보면 排烟坑이 비교적 간소하다<도면 4>. “기암을 뚫어 만든 얇은 갯으로 擋火牆 보다 약간 넓고, 그 북측은 비교적 단정하고 남측은 이미 파손되었으

며, 너비는 약 50cm, 잔존 깊이는 약 37cm이다. 연기와 불길로 인하여 갱안에 다량의 잿더미가 남아 있다". 그런데 出烟室의 구조는 전자에 비해 복잡하다. 山頭窯 3호요 BY13·山頭窯 5호 요지 BY15·金窯岡 BY25 등 南宋時期의 가마는 모두 비교적 완전한 出烟室이 있고, 대체로 擋火牆·烟火柱·出烟孔·後壁으로 구성된다. 擋火牆은 窯室과 出烟室 사이에 설치하는데 황토를 가득 메운 갑발을 교차적으로 맞추며 수평쌓기 하였고, 烟火柱는 擋火牆의 저부에 위치하고 대개 갑발로 수평쌓기 하여 조성하였다. 烟火柱의 수량은 일정치 않고 烟火柱 간의 남겨진 틈이 곧 배연구이다. 수평으로 흐르던 화염이 擋火牆에 부딪쳐 倒焰을 형성하게 되면서 하부의 배연구에서 배연실 쪽으로 흐르게 된다. 배연실(또는 出烟室)은 배연 이외에도 火焰의 流速을 조절하며, 예를 들어 山頭窯 5호 요지 BY15는 기본적으로 東西向을 취하고 窯尾의 出烟室은 "後壁은 비교적 특수하다. 그 바닥은 먼저 너비 88cm, 깊이 38cm의 고랑을 하나 파고 고랑의 양쪽에 갑발을 쌓는다. 그 중 西側은 갑발 두개를 상하로 서로 겹쳐 1조를 이룬 갑발 기둥이 모두 6조가 있다. 각 갑발 기둥 사이의 간격은 8~16cm로 같지 않고 그 구조는 烟火柱와 유사하다. 東側은 갑발의 배열이 조밀하며 또한 상하로 서로 겹쳐 4단의 계단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배연실은 매우 드문 구조로 아마도 가마 내의 화염을 통제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sup>38)</sup> 또 金窯岡 BY25의 경우는 "後壁은 이미 파괴되었고 두개의 烟火柱만 잔존하며 크기가 같은 갑발 세 개를 수평쌓기 하여 축조하였다. 그 사이의 배연구는 너비 12cm 간격으로 또 벽돌과 갑발편으로 막았으며 화염의 유속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sup>39)</sup> 다시 말해 出烟室의 구조는 배연 이외에 불길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통제하기 위함이다.

자료에 근거하면 山頭窯 3호요 BY13·山頭窯 5호 요지 BY15·金窯岡 BY25 등 南宋時期의 가마의 경사는 전단부가 완만하고 후단부가 가파르며, 가마 구조에 예외없이 出烟室이 출현한다. 그런데 다시 거꾸로 元代의 샤투린(杉木林) 1호요 EY16y3는 전단부가 가파르고 후단부가 완만한데(전후단 14°, 중간부 16°), 다만 가마 후미에 出烟室이 출현하고 있다.

38) 前掲 『龍泉東區窑址發掘報告』, 83쪽.

39) 前掲 『龍泉東區窑址發掘報告』, 203쪽.

그렇다면 어찌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다. 出烟室의 출현으로 요공들이 더욱 자유롭게 화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가마 후미의 경사가 커져 화력이 과잉되면 쉽게 통제하기 힘들던 폐단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南宋 이후 가마의 경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변화하여, 곧 전단부가 완만하고 후단부가 가파르거나 혹은 전단부가 경사지고 후단부가 완만해지기도 하였다. 요컨대 가마 경사의 변화와 出烟室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는지 향후 진일보한 고찰이 요청된다.

## 2) 초벌구이 가마[素燒爐]

唐宋時期 浙江지역의 靑瓷를 번조했던 가마 중에는 龍窯 외에도 饅頭窯가 있는데, 주로 南宋官窯 窯場 가운데 존재한다. 郊壇下官窯<sup>40)</sup> 이외에 老虎洞官窯에서 3기의 말굽형 만두요[馬蹄形 饅頭窯]가 발견되었다<도면 5-1, 5-2>. 1호 饅頭窯를 예로 들면, 1호 饅頭窯는 요지의 북쪽으로 치우친 서쪽편에 위치한다. 南으로 9호 작업장 유적과 인접하고, 북으로는 1호 龍窯의 상단부[窯頭]와 약 2m 떨어져 있다. 가마 내 퇴적은 주로 다량으로 무너진 가마 벽돌과 渣土, 소량의 초벌기물 잔편이다. 방향은 56°로 火膛·窯床·出烟室·보호담장[護牆]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총길이 1.8 m, 너비 1.22m, 잔존 높이 89cm이고, 火膛은 반원형을 띠고, 길이 66cm, 너비 92cm이며, 窯床面 보다 22~32cm 가량 낮다. 火膛 입구의 너비는 약 32cm이다. 火膛 바닥에서 목탄재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다[연료가 장작임을 말해준다]. 窯床은 橫長方形으로 양 벽은 활처럼 약간 볼록하고, 길이 78cm·너비 99cm이다. 窯壁은 길이 18cm, 너비 8cm, 두께 5cm의 장방형 벽돌로 쌓아 축조하였고, 後壁에는 5개의 方形 배연구가 있다. 가마 바닥은 비교적 편평하고 장방형의 벽돌을 깔았는데 대부분 이미 결실되었다. 出

40) “3호방(F3)과 4호방(F4) 사이에 위치한 실의 공터의 東北으로 2m가 練泥池이고, 남쪽의 약 3m 가까운 곳이 4호방(F4)인 초벌과편 퇴적이다. 상부는 모두 파괴되었고, 겨우 F3·F4 지면 보다 낮은 火膛만 볼 수 있다. 平面은 대체로 馬蹄形을 띠며, 方向은 F3·F4와 일치한다. 전체 길이 80cm·火膛 너비 67cm, 구연부 너비 28cm, 잔존 깊이 16cm이다. 燒結된 火膛 두께는 3cm이다. 火膛 내 퇴적은 紅燒土·碎紅磚·소량의 초벌과편이 있으며, 바닥에 黑灰가 있다. 火膛 주위 1.5m 직경 범위 내 두께 5~10cm에 이르는 燒土層이 있으며, 분포형태는 火膛과 일치하여 대체로 馬蹄形을 띠고 있어 가마 기초의 범주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번조실 전방의 지면에서 대량으로 산포된 초벌과편 퇴적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유적은 성형기물을 저온 번조하던 초벌 가마로 추정된다”. 前掲 『南宋官窯』, 14쪽 참조.



烟室은 반원형을 띠는데 길이 18cm·너비 82cm·잔존 높이 50cm로 바닥은 5개의 배연구와 서로 통하며, 역시 장방형 벽돌로 쌓아 축조하였다. 일부 배연구는 벽돌 조각으로 막아 배연량을 조절하였다. 護牆은 窯壁 바깥쪽에 들렀고, 간격은 약 30~40cm로 벽돌 조각과 폐요도구를 사용하여 수평 쌓기로 축조하였으며, 두께는 약 16cm이다. 火膛 앞부분 좌우 양측 護牆은 “八”字形을 이루고, 담장 안쪽에 황토를 발라 메웠는데 그 목적은 보열을 위함이다. 窯門 앞에는 다량의 목탄재가 있다.<sup>41)</sup>

이상의 기술에서 알 수 있는 바는 南宋官窯에 사용한 饅頭窯는 半倒焰式이다. 饅頭窯는 일반적으로 全倒焰式과 半倒焰式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모두 크게 窯門·火膛·窯床·出烟孔·연통[烟囱]으로 구성된다. 전자의 배연구는 擋火牆의 底部에 위치하며 불길이 상승하는 힘과 연통이 생성하는 추진력을 이용하여, 불길이 가마 천정 아치를 따라서 後壁 쪽을 돌아서 배연구로 부터 연통을 거쳐 가마 밖으로 배출된다. 후자는 배연구를 窯床 위에 설치하여 불길이 연소실 양측 또는 사방으로 분산된다. 불길은 가마 바닥에서 천정까지 상승한 후 다시 위에서 아래로 기물 혹은 갑발더미[匣鉢柱]을 향해 급하강하여 기물과 匣鉢柱 사이를 지나, 배연구에서 가마 바닥의 불길고랑[火槽]과 연통을 거쳐서 밖으로 배출된다.<sup>42)</sup> 浙江지역 청자 번조 요장 가운데 饅頭窯가 출현한 사례는 戰國時期 蕭山地區의 일례만 보이고, 그 후 南宋官窯 이전까지는 그 종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으며, 南宋官窯 이후 또다시 소멸하여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南宋官窯 가운데 출현한 饅頭窯는 결코 해당 지역 가마의 발전 맥락을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며, 『坦齋筆衡』의 기록에는 “中興 渡江(남송 건립) 이후, 邵成章으로 하여금 後苑을 총괄도록 하매, “邵局”라 불렀고, (北宋) 옛 汴京의 제도를 답습하여, 修內司에 가마를 설치해 靑器를 만들고, “內窯”라 하였다(中興渡江, 有邵成章提舉後苑, 號邵局, 襲故京遺制, 置窯于修內司, 造靑器, 名內窯).” 따라서 그 출현은 아마도 “옛 汴京의 제도를 답습하여(襲故京遺制)” 北宋官窯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開封의 소재지는 바로 饅頭窯가 유행했던 중심지역이다. 비록 北宋官窯는 현재 이미 찾기가 어렵지만, 개봉의 북송관요는 북방 饅頭窯의 전통적 기술을 계

41) 前掲 『南宋官窯』, 42쪽.

42) 前掲 『東亞窯業技術發展與交流史研究』, 28~34쪽 참조.

승하여 축조하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마도 송 왕실의 南遷 이후 南宋 朝廷이 官窯를 회복하고자 南方에 떠돌고 있는 일찍이 北宋官窯 또는 北宋 宮廷瓷器 공납과 관련된 窯場의 유능한 窯工을 소집하고, 또한 浙江지역 越窯와 龍泉窯의 기타 우수한 窯工을 모아, 南宋官窯 瓷器를 번조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초벌을 담당한 饅頭窯와 靑瓷 번조를 담당한 龍窯가 함께 南宋官窯 요장에 출현하는 것은 정식으로 南北方 번조기술이 상호 융합한 결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南宋官窯 요장 중 饅頭窯는 초벌 가마로써 출현하였다는 점은 꽤 주목할만 하다. 초벌은 자기제작 과정 중 하나의 특별한 단계이며, 자기의 품질 제고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성형한 기물은 900℃ 정도의 초벌을 거치면 가능한 유기물질과 수분이 대부분 모두 휘발되며, 일부 염기성화합물도 이미 분해되어 유약 소결시 남은 극소량의 미소결 성분은 釉面에 껍집질[桔釉] 혹은 바늘구멍[針孔群]과 같은 미세한 구멍들과 기포, 유약 뭉침 등의 결함을 야기하여 자기의 품질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초벌은 釉面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초벌 후의 성형물은 강도가 커져 시유시 파손율이 낮아지고 기벽이 얇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 동시에 흡수율이 커져 시유속도가 빠르고 고르게 시유되어 유면도 매끈해진다. 또한 한번만 시유를 해도 되므로 ... 시유한 기물을 다른 한쪽으로 돌리는 사이 이미 수분이 말라, 제품 바닥의 유약을 닦아 내면 별도로 다시 건조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바로 갑발 안에 재입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일부는 갑발에 넣고 ... 초벌 후에 半成品의 여러가지 질적인 결함을 발견하여 사전에 폐기하거나 재가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시유 번조한 기물의 완제품의 비율과 번조 성공률을 제고하였다”.<sup>43)</sup> 초벌 기술로 특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南宋官窯의 薄胎厚釉 특징을 얻기에 매우 유리하였다. 성형물의 강도가 커져 시유가 편리하고 多次施釉에 유리하며, 초벌 후 사전에 결함을 발견하여 釉面의 질을 높일 수 있어 고급 靑釉瓷器 번조에 유리하였다. 초벌기술은 일찍이 唐代에 이미 출현하여 宋代에 이르러 점차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고고학적 자료에 근거하면 초벌기물이 발견된 요지는 허난(河南) 공이(鞏義) 황이야오(黃冶窯) 唐三

43) 『景德鎮陶瓷』資料組, 「素燒的作用」, 『景德鎮陶瓷』1973年 第2期.

彩窯址·공이야오(鞏縣窯)·쌍야오(邢窯)·황부야오(黃堡窯)·루야오(汝窯)·짱공  
 상야오(張公巷窯)·권야오(鈞窯)·老虎洞官窯·郊壇下官窯·龍泉窯를 망라한  
 다.<sup>44)</sup> 즉 浙江지역으로 말하자면, 南宋 이전에는 초벌기술의 출현한 바  
 없고 龍泉窯도 南宋時期 부터 초벌과 多次燒造 기술이 출현하기 시작하  
 다. "龍泉窯 중 초벌기물이 발견된 지역은 모두 龍窯 부근으로 이들 용요  
 의 형태는 모두 비교적 짧고 작다. 馬蹄形窯를 사용하여 초벌자기를 번조  
 한 예는 없다".<sup>45)</sup> 또한 후대로 가면 元代 龍泉 東區 杉木林窯址 EY16 중  
 에 곧 여러 기의 초벌 가마가 있는데 소형의 龍窯이다[제1호 초벌요(S1)  
 의 경우 가마 총 길이 4.74m, 너비 80~90cm, 잔존 높이 33~60cm].<sup>46)</sup>  
 이상을 근거로 南宋時期 龍泉窯址는 소형 龍窯를 사용하여 초벌구이를 진  
 행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송시기 절강지역의 老虎洞官窯·郊壇下官窯·龍泉窯는 초벌기  
 술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상에서의 분석 결과를 따르자면 南宋官窯의  
 초벌기술의 연원은 아마도 北宋官窯·汝窯 등 北宋時期 御用瓷器의 공납을  
 담당했던 요장일 것이다. 이전 南方지역의 요장 중 초벌기술의 응용은 드  
 물게 보이므로, 따라서 龍泉窯의 초벌기술의 연원을 거슬러 가면 이것이  
 南宋官窯의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宋 왕실이 南遷 후에 浙江지역에 北方  
 窯工이 이러한 기술을 전수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같은 초  
 벌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饅頭窯와 龍窯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던 것일까?  
 饅頭窯를 사용한 초벌구이는 宮廷用瓷器를 번조한 것으로 여겨지는 南宋  
 官窯를 普通瓷器를 번조한 龍泉窯과 구분하는 특징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만일 그렇다면 龍  
 泉 溪口窯 등지 발견된 薄胎厚釉 龍泉靑瓷의 일부 기물의 형식이 南宋官  
 窯와 비교적 유사하지만 초벌 가마의 출현 - 특히 饅頭窯 초벌 가마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향후의 고고학적 사업 중에 이와 관  
 련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의문의 여지없이 龍泉 黑胎瓷器와 南宋  
 官窯瓷器의 관계를 연결지을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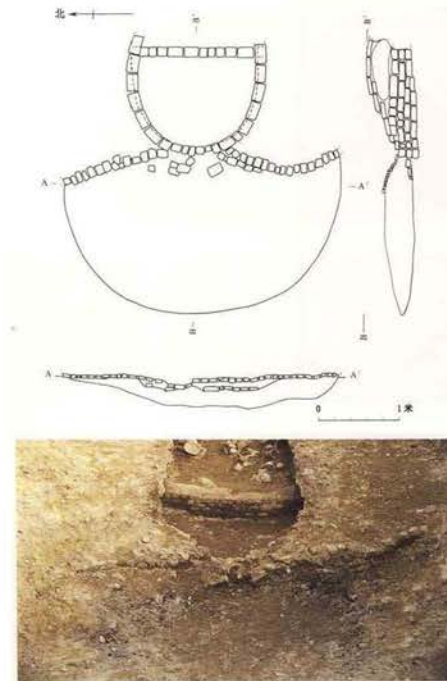
44) 張東, 「宋代若干窯場多次燒造現象研究」, 『上海博物館集刊』, 2005年 第10期 참조.

45) 前掲 『宋代若干窯場多次燒造現象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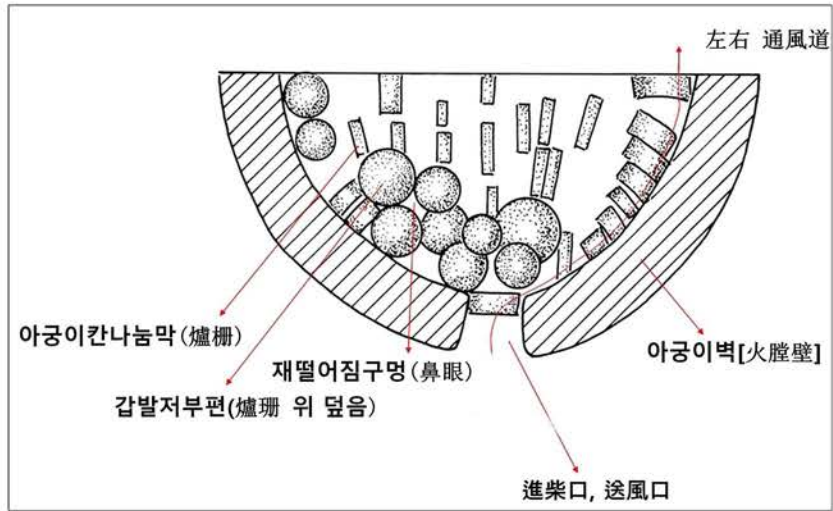
46) 前掲 『龍泉東區窯址發掘報告』, 310쪽.

## 6. 結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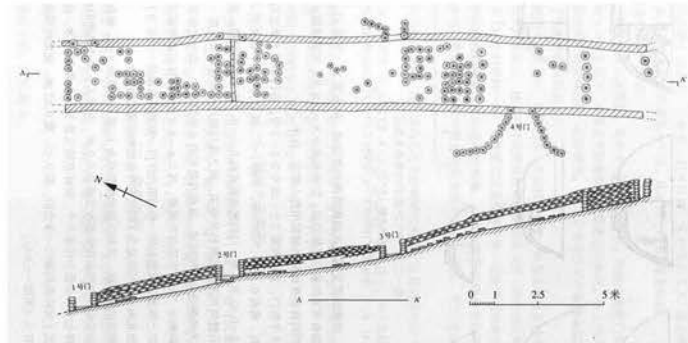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하면 唐宋時期 浙江지역 靑瓷를 번조한 가마는 龍窯이며, 南宋官窯 (郊壇下官窯와 修內司官窯 포함)는 번조시 饅頭窯를 사용하였다. 이시기 龍窯의 발전 상황을 근거로 크게 唐 早期, 中晚唐~北宋, 南宋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마는 구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窯頭·窯身·窯尾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발전단계마다 각각의 세부구조도 부단한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져 당시 자기 번조의 기술적 요구에 꾸준히 부응하였다. 南宋官窯 窯場 중 출현한 饅頭窯 초벌 가마는 浙江地區 靑瓷 燒造 전통에서 비교적 특수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는 瓷器史 중에 존재하는 일련의 중요한 문제 - 예를 들어 宋代 官窯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증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翻譯 高美京 : 北京大學 考古文博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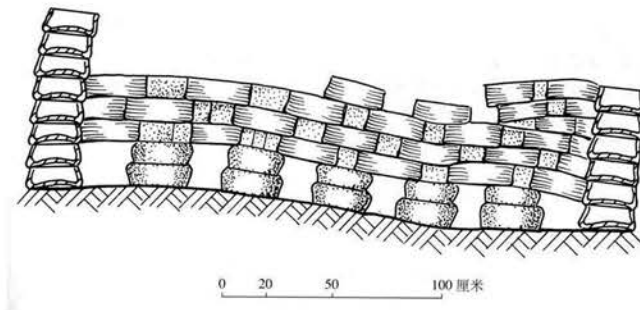
도면 1-1. 火膛(寺龍口 1호요 Y1, 『寺龍口越窯址』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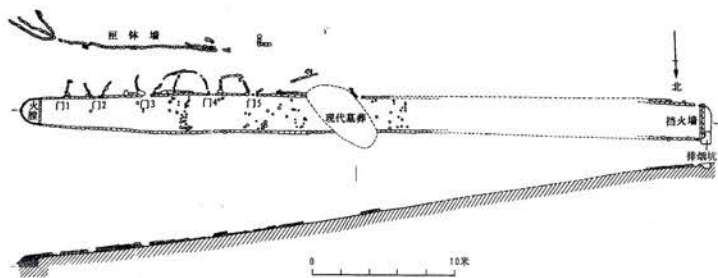
도면 1-2. 火膛 細部(龍泉 山頭窯 3호 요지 BY13)



도면 2. 窯身 兩側 窯門(金窯崗窯址 BY25, 『龍泉東區窯址發掘報告』 인용)



도면 3. 擋火牆(金窯崗窯址 BY25, 『龍泉東區窯址發掘報告』 인용)



도면 4. 排烟坑(石馬弄 1호요 Y1,  
「浙江慈溪市越窯石馬弄窯址的發掘」, 『考古』 2001年 第6期 인용)



도면 5-1



도면 5-2

도면 5-1. 초벌구이 가마① (老虎洞 修內司官窯 饅頭窯,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인용)  
도면 5-2. 초벌구이 가마② (老虎洞 修內司官窯 饅頭窯,  
『杭州老虎洞窯址瓷器精選』 인용)

<표 1> 唐宋時期 浙江地域 青瓷 燒成 龍窯의 基本 資料

시대	계통	명칭	방향	길이	너비	높이	경사도	窯壁 축요방식	窯門	
唐代早期	越窯	木勺灣 Y3	南 略偏西	殘長 2m	2.7m	殘高 45cm	기록 未見	벽돌	기록 未見	
		木勺灣 Y4	南 略偏西	殘長 10.2m	2.65m	殘高 15~ 23cm	기록 未見	벽돌	기록 未見	
		黃家庵 Y5	正北	殘長 21m	2.15m	기록 未見	기록 未見	벽돌	기록 未見	
		橫塘山 Y23	正南	기록 未見	2.2m	殘高 40cm	기록 未見	벽돌	기록 未見	
		皮刀山 Y42	正西	기록 未見	기록 未見	殘高 40cm	기록 未見	벽돌	기록 未見	
		黃婆壩 Y90	北 略偏東	殘長 11m	2.3m	殘高 15~ 20cm	기록 未見	벽돌	기록 未見	
		大辦山 Y91	正北	기록 未見	2.7m	殘高 52cm	기록 未見	기록 未見	기록 未見	
		東陽 歌山窯	기록 未見	殘長 12m	1.6m	高 1.1m (추정)	기록 未見	구룡경사 이용 깊게 파고 흠다 짐	기록 未見	
晚唐五代	越窯	黃蟾山 Y26 甲窯	기록 未見	기록 未見	2.35m	殘高 50cm	기록 未見	벽돌	기록 未見	
		黃蟾山 Y26 乙窯	기록 未見	殘長 1.5m	기록 未見	殘高 35cm	기록 未見	벽돌	기록 未見	
		黃蟾山 Y26 丙窯	기록 未見	기록 未見	2.1m	殘高 16cm	기록 未見	벽돌	기록 未見	
		黃蛇山	기록 未見	기록 未見	기록 未見	기록 未見	기록 未見	기록 未見	벽돌	기록 未見
		窯山窯	기록 未見	기록 未見	기록 未見	기록 未見	기록 未見	기록 未見	벽돌	기록 未見
		荷花芯 Y37	기록 未見	殘長 41.83m	기록 未見	기록 未見	기록 未見	13°	벽돌	7개
北宋	越窯	荷花芯 Y36	296° 方向	長 45.9m	최대 너비 2.7m 窯尾端 너비 2.1m	殘高 5~ 20cm	12°	벽돌	9~ 10개	
		石馬弄 Y1	東西 窯頭東 窯尾西	長 49.5m	1.9~ 2.4m	殘高 10~ 35cm 窯壁高 (추정) 1.3m	前段 가파 르고 (10°), 後端 완만 (5°)	벽돌	殘存 5개	

	龍泉	金鐘灣 BY22	기록 未見	殘長 49.5m	기록 未見	殘高 0.1~ 1.0m	前後 傾斜度 다름: 窯頭部 8° 中部 16° 窯尾部 10°	벽돌	벽돌
南宋	越窯	寺龍口 Y1	거의 正東西	長 49.5m	기록 未見	殘高 50cm	前中段 9~1 2°; 窯尾部 다소완 만 (4~ 6°)	벽돌	11개
		低嶺頭	거의 東西	長 50m	約 2m	殘高 30cm	12°	벽돌	11개
	龍泉	金窯崗 BY25	336°	殘長 22m	窯中部 2.1m 窯後部 2.3m	殘高 50~ 80cm	前段1 1°, 中段 8°; 窯尾段 11°	벽돌	4개 西側 3개 東側 1개
		山頭窯 3號窯址 BY13	49°	總長 82m	窯頭部 1.48m 窯中部 2m 窯尾部 2.5m	殘高 0.2~ 1.0m	前段1 5° 中段1 2.5°, 後段1 5°	벽돌	17개
		山頭窯 5號窯址 BY15	278°	殘長 59.7m	窯頭 1.9m 窯中部 2.3m 窯尾部 2.35m	殘高 0.4~ 1.1m	前段 낮고 後段 높음 (13°傾 斜)	벽돌 끝과 갑발을 교 차적으로 맞추며 수 평으로 길 이쌓기	11개
	南宋官窯	郊壇下 官窯	235°	長 23m, 37.15m	窯頭 1.4m 窯中段 1.85m 窯尾 1.8m	殘高 50~ 60cm 복원후 約1m	前段 낮고 後段 높음 前段1 1.5° 後段1 3.5°	벽돌	기록 未見
		修內司 官窯 1號龍窯	55°	長 15m	1.35~ 1.98m	殘長 35cm	기록 未見	벽돌	기록 未見



# 浅析唐宋时期浙江地区青瓷窑炉的结构与演变

项坤鹏(故宫博物院 研究室)

## 目 次

- 一 序言
- 二 研究简史
- 三 窑炉的结构与演变
- 四 窑炉的阶段性的
- 五 相关问题
- 六 结语

**内容提要** 唐宋时期浙江地区烧造青瓷的窑炉几乎全为龙窑，其结构从总体上看包括窑头，窑身和窑尾三部分，具体来说每一部分又包括若干个子结构，与窑业发展同步，这些结构也在不断完善。根据相关窑炉资料，可将其发展过程分为三个阶段：唐代早期，中晚唐至五代时期和南宋时期。在窑炉结构中，出烟室较之前的排烟坑更为成熟，它的出现不仅用于排烟，也有助于对窑炉火焰的精确控制，这也使得窑炉坡度的变化更加灵活。南宋官窑窑场中出现的馒头窑素烧炉来源于北宋官窑或是负责贡进北宋宫廷用瓷的窑场，那么是否可以推测，此种馒头窑素烧炉是烧造宫廷用瓷器的南宋官窑区别于烧造普通瓷器的龙泉窑的特征之一，这是一个值得进一步探讨的问题。

**关键词** 窑炉 结构 演变 出烟室 素烧炉

## 一 序言

浙江地区是我国历史上重要的青瓷产区，甚至可以说是我国的青瓷发源地<sup>1)</sup>。唐宋时期，浙江地区的青瓷生产逐渐发展起来，越窑，婺州窑，瓯窑，龙泉窑以及南宋官窑(包括修内司官窑和郊坛下官窑)等窑场在这一历史时期内均有代表性产品出现。从窑业技术的角度来讲，瓷器生产与窑炉息息相关。总体来看，唐宋时期浙江地区青瓷生产所用的窑炉为龙窑，根据考古资料，我国

1) 2011年，由故宫博物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德清县人民政府主办，德清县博物馆，绍兴县博物馆(越国文化博物馆)承办的“浙江原始青瓷及德清火烧山等窑址考古成果汇报展及研讨会”于故宫博物院举办，会上陈元甫等先生认为，东苕溪中流是我国原始瓷的重要起源地。

较早的龙窑可以追溯到商代<sup>2)</sup>，及至隋唐时期，龙窑的分布已较为普遍，窑炉结构也有了较大发展，已于窑身出现投柴孔，五代至南宋时期是中国南方龙窑大流行时期，分段投柴，匣钵装烧方式的广泛使用以及窑身坡度等方面的完善，标志着龙窑结构已逐步成熟。本文拟从考古发掘所出土的窑炉资料出发，着重就唐宋时期浙江地区青瓷窑炉的结构及其演变这一问题进行探讨。

## 二 研究简史

浙江地区古窑址密布，从陈万里于20世纪30年代调查余姚上林湖，绍兴九岩等越窑窑址始，关于浙江地区历代古瓷窑的考古调查与发掘便逐步展开，时至今日已有数量众多的窑址资料公诸于众，其中唐宋时期窑址占相当大一部分。关于唐宋时期浙江地区的青瓷窑炉的具体情况，不少发掘报告或者简报均进行了详细介绍。主要包括林士民《青瓷与越窑》<sup>3)</sup>，浙江省轻工业厅《龙泉青瓷研究》<sup>4)</sup>，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龙泉东区窑址发掘报告》<sup>5)</sup>，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寺龙口越窑址》<sup>6)</sup>，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等《南宋官窑》<sup>7)</sup>以及《记浙江东阳歌山窑址的发掘》<sup>8)</sup>，《慈溪上林湖荷花芯窑址发掘简报》<sup>9)</sup>，《上虞窑山，黄蛇山古窑址》<sup>10)</sup>，《浙江慈溪市越窑石马弄窑址的发掘》<sup>11)</sup>，《浙江越窑寺龙口窑址发掘简报》<sup>12)</sup>蒋忠义《浅谈南宋官窑及

---

2) 1984年在浙江省上虞县百官镇发现了商代窑群，这些窑炉以2号窑保存较好，长条形，呈16°倾斜，全长5.1米，最宽处为1.22米，残高0.33米，窑底经过平整加工，窑床上铺砂，燃烧室与烧成室明显分段，烧成室略高于燃烧室0.2米，从总体上看，该窑已具备龙窑的基本要素，是中国境内迄今为止发现最早的龙窑遗迹，参见熊海堂：《东南亚窑业技术发展与交流史研究》第三章《中国古代窑炉技术发展与交流史略论》页83-84。

3) 林士民：《青瓷与越窑》，上海古籍出版社，1999年。

4) 浙江省轻工业厅编：《龙泉青瓷研究》，文物出版社，1998年。

5)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龙泉东区窑址发掘报告》，文物出版社，2005年。

6)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寺龙口越窑址》，文物出版社，2002年。

7) 中国科学院考古研究所：《南宋官窑》，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6年。

8) 贡昌：《婺州古瓷》“记浙江东阳歌山唐宋窑址的发掘”，页75，紫禁城出版社，1988年。

9) 《慈溪上林湖荷花芯窑址发掘简报》，《文物》2003年第11期。

10) 《上虞窑山，黄蛇山古窑址》，《南方文物》1990年第4期。

11) 郑嘉励：《浙江慈溪市越窑石马弄窑址的发掘》，《考古》2001年第6期。

12) 许慈波等：《浙江越窑寺龙口窑址发掘简报》，《文物》2001年第11期。

窑炉的复原》<sup>13)</sup>，上海博物馆考古部《浙江龙泉安仁口古瓷窑址发掘报告》<sup>14)</sup>，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等《寺龙口越窑址》<sup>15)</sup>等。

唐宋时期浙江地区烧造青瓷的窑炉几乎全为龙窑。针对龙窑，有不少学者著书或行文进行探讨，大致可以分成几种情况：一，综合性的探析。如熊海堂所著《东亚窑业技术发展与交流史研究》<sup>16)</sup>一书，对东亚窑业的区域特征和地区之间的技术交流进行了概括和阐述，尤其是在第二章《东亚陶瓷窑炉与窑具的分类及其宏观分布》及第三章《中国古代窑炉技术发展与交流史论》的内容中，介绍了东亚地区窑炉的分类与宏观分布情况，并对龙窑的发展阶段和不同类型进行了梳理，探讨了窑炉技术的发展过程，在第五节“平焰龙窑”中较为详细地论述了平焰龙窑的产生，发展及窑炉构造。朱伯谦在《试论我国古代的龙窑》<sup>17)</sup>一文中概述了龙窑的结构，并进一步分析了不同历史时期龙窑的结构及发展变化。另外，杨文宪，张祥生的《古代部分陶瓷窑炉初探》<sup>18)</sup>一文，较为笼统地介绍了我国龙窑的一些概况，并提出，龙窑最理想的状态时维持全窑“零压”操作，还有刘振群的《中国历代陶瓷窑炉和烧成工艺考证》<sup>19)</sup>一文，介绍了中国不同历史阶段的陶瓷窑炉的基本情况，包括对龙窑的情况进行了简介。二，分不同的历史阶段进行探讨。如徐军《浙江东汉窑炉初探》<sup>20)</sup>一文中对东汉时期早期龙窑的分布及结构进行了介绍。另外王屹峰的《中国古代青瓷产区早期龙窑研究》<sup>21)</sup>一文对先秦至中唐时期龙窑的选址建窑，窑炉结构情况进行了探讨。三，针对龙窑的某些个具体问题进行探讨。李刚《古代龙窑研究》<sup>22)</sup>一文对龙窑的“火膛移位”，空间利用和窑炉结构等问题作了分析，在

13) 蒋忠义：《浅谈南宋官窑及窑炉的复原》，《江西文物》1991年第4期。

14) 上海博物馆考古部：《浙江龙泉安仁口古瓷窑址发掘报告》，《上海博物馆集刊》第三期。

15)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慈溪市文物管理委员会：《寺龙口越窑址》，文物出版社，2002年。

16) 前揭《东南亚窑业技术发展与交流史研究》。

17) 朱伯谦：《试论我国古代的龙窑》，《文物》1984年第3期。

18) 杨文宪，张祥生：《古代部分陶瓷窑炉初探》，《中国古陶瓷研究》页332，中国科学院上海硅酸盐研究所编，1987年。

19) 刘振群：《中国历代陶瓷窑炉和烧成工艺考证》，《中国古陶瓷研究》页325—326，科学出版社，1987年。

20) 徐军：《浙江东汉龙窑初探》，《故宫博物院院刊》2008年第4期。

21) 王屹峰：《中国古代青瓷产区早期龙窑研究》，《东方博物》第三十四辑。

谈及窑炉结构时，他主要指出，窑头的火门被投柴孔取代是为了生成或维持窑内的还原焰，并提高烧制产品的质量，龙窑的尾部设置烟囱是为了加大抽力。而沈岳明在《龙窑生产中的几个问题》<sup>23)</sup>一文中首先简介了从商代至元明时期龙窑的发展过程，进而对窑炉的装烧量进行了探析，与李刚的观点不同，他在文章第三部分“龙窑的排烟处理”中通过分析指出，在古代龙窑一般是不设烟囱的。四，针对具体窑系窑炉结构的探讨，主要是龙泉窑。劳法盛等所著的《浙江古代龙窑和窑具的研究》<sup>24)</sup>一文简要提及了浙江地区古代龙窑的长度，坡度等的发展变化。李德金《浅谈龙泉窑的窑炉结构》<sup>25)</sup>一文分“窑炉砌建方法与用材”，“窑炉结构的变化”两部分中对宋元明龙泉窑的窑炉结构进行了介绍与分析。林志明的《龙泉地区龙窑的烧成技术浅谈》<sup>26)</sup>一文从装匣，装窑，备柴，祭祀，烧窑头，烧窑室，看火候七个方面探讨了龙泉地区龙窑的烧成技术。

### 三 窑炉的结构与演变

总体来看，唐宋时期浙江地区烧造青瓷的龙窑可以分为窑头，窑室和窑尾三部分。

#### (一) 窑头

包括窑前工作面和火膛。窑前工作面是烧造时窑工们活动的平台，位于火膛前端，一般呈喇叭形，自火膛向外扩展。

火膛又称燃烧室，位于窑室前端，具有进柴和点火以及送风的作用，平面一般呈半圆形，火膛有若干的组成部分，上文提到的南宋时期龙泉山头窑3号窑址BY13，火膛由进柴口，送风口，炉栅，算眼，通风道和火膛壁所组成[图一：1，2]，进柴口和送风口均位于火膛前方中央，其中进柴口筑于送风口之上，送风口内窄外宽，立面呈扁方形。炉栅位于火膛中部，平面布局自进柴口

22) 李刚：《古代龙窑研究》，《东方博物》第十二辑。

23) 沈岳明：《龙窑生产中的几个问题》，《文物》2009年第9期。

24) 劳法盛，叶宏明，程朱海：《浙江古代龙窑和窑具的研究》，《中国陶瓷》1983年第4期。

25) 李德金：《浅谈龙泉窑的窑炉结构》，《中国考古学研究》编委会编：《中国考古学研究——夏鼐先生考古五十年纪念论文集》，文物出版社，1986年。

26) 林志明：《龙泉地区龙窑的烧成技术浅谈》，《丽水学院学报》2009年第1期。

向窑室呈放射状，系用三至五块不等的砖前后相连，纵向侧立于底部，各砖左右相隔出一定的空间，既可以使柴灰落于其间，又能起到一定的通风作用。炉栅上铺盖匣钵底片，各匣钵片之间留有空隙，形成算眼，便于送风和落灰。左右两支通风道，分别设于炉栅和火膛壁之间，系用去底后的半圆形匣钵片前后排列，同时一端置于底部，另一端紧贴火膛壁，以此形成通风道。至于火膛壁，用土坯砖错缝平砌，自后向前逐渐弧收<sup>27)</sup>。这是较为完备的火膛结构，说明龙窑发展至南宋，火膛已较之前复杂化，这种变化带来的是燃烧效率的提高，炉栅，算眼和通风道的出现均有利于火膛内燃料的充分燃烧，能够较大幅度地利用热量，从这一点也可以说明烧窑技术的提高。在此之前的各窑炉遗址所见的火膛，一般仅由进柴口，送风口和火膛壁组成，如晚唐时期的荷花芯Y37，火膛前端正中即是长方形的火门，火膛底使用M形匣钵平铺而成的，间隙用粘土填实，并没有设置炉栅，算眼和通风道<sup>28)</sup>。

## （二）窑室

包括窑壁，窑顶，窑门，窑床，投柴孔等结构。

窑壁一般是用砖错缝平砌而成，但也有例外，唐早期的东阳歌山窑的窑壁即是利用丘陵斜坡深挖夯打而成，南宋的龙泉山头窑5号窑BY15的窑壁是用填满粘土的匣钵构筑而成，各匣钵之间的缝隙用粘土抹平。窑壁上经过长期的烧造，一般都会形成一层窑汗。

窑顶为券拱形，大部分用砖砌成，此外如东阳歌山窑的券顶是用细毛竹弯成半圆形搭成的，毛竹的两头分别扞进离窑底20厘米的窑壁上，每根竹竿间隔1厘米左右依次扞插成排，再在竹竿上密铺一层箴片，然后在箴片上铺上20厘米左右后的粘土，经过夯打坚实，券顶而成<sup>29)</sup>。东阳歌山窑的窑壁和窑顶成型的做法，是较早时期窑炉的修筑形式，唐代早期以后，窑壁和窑顶基本上全为砖砌而成。

窑床是窑炉中堆放坯件的地方，瓷坯在这里按照不同的方式，不同的位置码放，经过高温烧造后形成瓷器。窑床上一般铺一层细砂，一是要保护窑底，保温隔热，二是因为窑床是倾斜的，装烧的器物如需层层叠摞，就无法呈垂直状

27) 前揭《龙泉东区窑址发掘报告》页63—65。

28) 前揭《慈溪上林湖荷花芯窑址发掘简报》。

29) 参见前揭《婺州古瓷》页74。

态平放于窑床上，在窑底铺设沙层，将最下面的一件器物可调整平放陷于沙层中，荷花芯Y37窑床砂上残存的垫具多为矮圆柱形，安放时，下端向前的一侧埋入砂中较浅，向后一侧则埋入较深，这样垫具的上端便可呈水平状态<sup>30)</sup>。关于窑床废弃物，唐早期的几座窑炉出现了垫具，但均未提及有匣钵出现，而晚唐时期的窑炉，在窑床上就已经出现了匣钵，黄鳝山Y26甲乙两窑窑床内的废品堆积中所见的匣钵多数为瓷质，有的还用釉封钵口<sup>31)</sup>。匣钵的出现，与窑炉结构关系密切。较之将器物用支钉，垫珠等垫具间隔开并一个个叠摆起来，用匣钵叠摆除了可以提高瓷器的烧成质量外，还可以摆的更高，这在一定程度上提高了窑室的高度。另外，废弃的匣钵可以砌成窑壁，算眼和通风道等，成为窑炉的组成部分。

窑门是装窑和出窑时窑工进出的通道，一般通向作坊和废弃物堆积处。如[表一]所示，晚唐至南宋的大部分窑炉遗迹均发现有窑门，数量不等，窑门的多少与窑炉的长度相关，唐早期的窑炉遗迹未见窑门，多半是因为窑炉长度较短。窑门有础石，有用匣钵垒砌的门柱，窑门外有门道，多呈八字形，有的用垫柱等组成，晚唐至北宋时期的窑门均位于窑身的一侧，南宋窑门见有分布于窑身两侧的情况，除了上文提到的金钟湾BY22，还有金窑岗窑址BY25，清理时发现4个窑门，其中西侧3个，东侧一个<sup>32)</sup>[图二]，窑门开于两侧的情况并不多见，推测应是因地制宜，方便装窑和出窑。

投柴孔用于投柴加温。投柴孔一般数量较多，分布于窑的两壁，烧窑时，由窑头往窑尾方向分段投柴，可掌握窑的温度，无需投柴时则用塞子堵住孔眼，能够在一定程度上阻绝氧气的进入，使窑内更好地保持还原气氛，有利于青瓷的烧成。以山头窑BY12的一座宋代窑炉为例，共发现了16个投柴孔痕迹，其中窑近尾部右侧的投柴孔保存较好，呈方斗形，外敞里窄，投柴孔距窑底1.35米，孔底宽12，上宽7，高7厘米<sup>33)</sup>。投柴孔也有圆形的，比如山头窑3号窑址BY13，从保存较好的投柴孔观察，其孔呈圆形，直径为0.15米左右。投柴孔和窑门的出现为龙窑窑身长度的增加提供了条件。

30) 参见前揭《慈溪上林湖荷花芯窑址发掘简报》。

31) 前揭《青瓷与越窑》页147。

32) 参见前揭《龙泉东区窑址发掘报告》页200—203。

33) 参见前揭《浅谈龙泉窑的窑炉结构》。

### （三）窑尾

包括挡火墙，烟火柱，出烟孔和后壁等部分。

窑尾的这些结构主要用于调节火焰流速和排烟。挡火墙一般位于窑室和窑尾之间，以土砖错缝平砌，挡火墙底部是出烟孔，墙外是排烟坑，如东阳歌山窑，在窑尾后壁砌出十个出烟孔，各宽9厘米，高16厘米，孔底抹一层2厘米左右厚的粘土。在烧窑过程中，通过填堵出烟孔，调整出烟孔的数量，可以达到调节火势的目的，在南宋老虎洞窑的出烟室中即发现部分烟火孔中填塞有砖块的情况<sup>34)</sup>，另外在金窑岗窑址BY25也发现有一条烟火弄(出烟孔)被用匣钵和石块填实<sup>35)</sup>。窑尾后有一个出烟坑，略呈半圆形，长1米，宽与窑床相等，比窑床低30厘米。排烟坑有的以砖石砌筑做壁，有的仅是一个土坑。到了南宋，在窑炉遗迹中出现出烟室的情况逐渐增多，金窑岗窑址BY25的出烟室即位于窑室后部，平面近方形，宽2.3，进深2米，由挡火墙和后壁构成，挡火墙残高0.4—0.8米，底部设有高0.25米的烟火柱，每柱用两个大小不同的匣钵平叠而成，匣钵内填满粘土，各柱左右间隔0.25米，形成六个烟火弄，出烟室的后壁已被破坏，仅残存两个高0.36米的烟火柱，系用三个同样大小的匣钵平叠而成，间隔其间的烟火弄宽0.12米，并用砖和匣钵片填实[图三]，推测是用来调节火焰流速的<sup>36)</sup>。此外，山头窑3号窑址BY13，山头窑5号窑址BY15，郊坛下官窑及修内司官窑等南宋窑炉遗迹均于窑尾部分出现了出烟室。出烟室的出现较之排烟坑在窑炉结构上是一种进步，有利于窑工们更为精准地调整窑炉内火焰的大小和温度的高低。

## 四 窑炉的阶段性的

唐宋时期浙江地区烧造青瓷的龙窑呈现阶段性的发展变化趋势，现将有关窑炉的基本资料进行汇总，具体如[表一]所示，并在此基础上将其大致分为三个阶段：第一阶段为唐早期，第二阶段为晚唐五代至北宋时期，第三阶段为南宋时期。

### （一）唐早期

34) 唐俊杰，邓禾颖：《南宋官窑》页42，杭州出版社，2008年。

35) 前揭《龙泉东区窑址发掘报告》页203。

36) 前揭《龙泉东区窑址发掘报告》页200—203。

唐代早中期窑的方向有南偏西，正南，正北，北偏东，正西等，估计其筑窑方向是依山势而定的。窑的残留长度从2米至21米；窑的残留宽度从1.6米至2.3米，由于所见各窑均已坍塌，窑室高度无法测量，据估计东阳歌山窑窑室高约1.1米，窑壁多用窑砖砌筑，窑砖规格相近，长25—27厘米，宽12—18厘米，厚5—7厘米，也有不用窑砖而利用丘陵斜坡深挖夯打的情况，窑顶有用竹杆搭建上铺粘土的情况<sup>37)</sup>，窑尾挡火墙平砖叠砌，有多个出烟孔及半圆形出烟坑，窑床废弃物中出现垫具，但均未提及有匣钵，窑底铺砂。这一时期主要的窑炉包括上林湖窑区的木勺湾Y3，Y4，黄家庵Y53，横塘山Y23，Y55甲窑以及皮刀山Y42，黄婆岙Y90，Y91以及东阳歌山窑。

## （二）晚唐至北宋时期

中晚唐至五代时期的窑炉长度已达40米以上，坡度为13—20度，窑身逐渐上斜，倾斜度前段大后段小，火膛大致呈半圆形，火膛前为火门，出现了M形匣钵，窑壁用砖错缝平砌，砖长20—29厘米，宽13—17厘米，厚4.8—5.6厘米，出现了多个窑门，宽50—60厘米，窑门皆分布于窑的一侧，但间距不均衡，窑门外有用垫柱等组成的门道，窑身由前向后渐宽，宽度为195—280厘米，这一时期已出现了匣钵装烧。代表性窑炉包括上林湖窑区的黄鳝山Y26，荷花芯Y37，上虞地区的黄蛇山窑和窑山窑。

北宋时期窑炉坡度变化不一，石马弄Y1前陡后缓（窑身前段坡度为10度，仅尾端坡度仅为5度），金钟湾BY22前缓中陡后缓（头部为8度，中部为16度，尾部为10度），窑炉长度为45.9—56.5米，半圆形火膛，宽约1.2—1.7米，开有多个窑门，多达十个以上，有的开在一侧（荷花芯Y36，石马弄Y1），也有开在两侧的情况（金钟湾窑址BY22），窑门宽度不一，大致为0.35—0.7米之间，窑门与窑门之间的间距也不一致，窑室外可见护窑墙，多为匣钵堆垒而成，窑身为平砖错缝叠砌，窑床上多见匣钵和垫具，也存在器物明火叠烧的现象（荷花芯Y36），匣钵在窑床上的排列情况和大小个数也略有不同，窑尾有挡火墙和排烟坑。多见窑床叠加的情况，即现有窑床是在之前窑床的基础上修筑改建而成的。代表性窑炉包括慈溪地区的石马弄Y1，上林湖地区的Y36以及龙泉大白岸的金钟湾BY22等。

<sup>37)</sup> 唐代宁波镇海小洞岙中唐时期的窑也是用这种构筑方法。参见前揭《青瓷与越窑》页148。



### （三）南宋时期

南宋时期的窑炉方向有正东西向，南偏东等，方向不一，窑炉残存长度从22米至82米，窑炉坡度有的前陡后缓，如寺龙口Y1，也有的前缓后陡，如金窑岗BY25，郊坛下官窑和老虎洞官窑等，火膛多呈半圆形，结构较为复杂，比如山头窑3号窑址BY13的火膛就包括进柴口，送风口，炉栅，算眼，通风道和火膛壁等，一般都开有多个窑门，最多可达10余个，窑门多位于一侧，也有例外，如山头窑5号窑址BY15即发现有窑门11个，其中1-10号设在窑的北侧，11号则设在南侧的近尾处，窑壁上有多处投柴孔，窑床上发现有一定数量的匣钵，窑炉尾部为出烟室结构。代表性窑炉包括寺龙口Y1，低岭头窑，龙泉金窑岗BY25，山头窑3号窑址BY13，山头窑5号窑址BY15，安仁口入窑湾三号窑以及乌龟山郊坛下官窑，老虎洞修内司官窑等。

综上所述，从窑炉长度来说，唐早期龙窑长度较短，晚唐以后长度增加，一般可达50米左右，南宋的山头窑3号窑址BY13长度已可达到82米，但是南宋时期也有较短的窑炉，如南宋郊坛下官窑的两座窑炉长23米和37.15米，修内司官窑1号龙窑长15米，窑身短，便于烧成气氛和控制温度，更适宜于烧高档瓷器；从装烧具方面来说，在唐早期的窑床上并未见有匣钵，晚唐至南宋，在窑床可见有一定数量的匣钵遗存；从窑炉结构上来说，唐代早期窑炉中未见有窑门遗迹，晚唐以后，才在相关发掘资料中见有窑门的描述，另外在南宋以前，窑炉的尾部未见有出烟室，南宋以后，出烟室成为窑炉的固定结构。也就是说，在第一阶段，窑炉结构尚处于待完善阶段，长度较短，构造较为粗疏简单，部分窑炉的炉壁和炉顶未用窑砖砌筑；在第二阶段，窑炉结构大为完善但尚不成熟，窑炉长度一般在50米左右，窑门开始出现，在装烧具中开始使用匣钵；在第三阶段，窑炉结构已经非常成熟，窑炉的坡度出现了变化，既可前缓后陡，也可前陡后缓，火膛等窑炉组成部分较以前更为完善，所附属的子结构分工更细，窑尾的排烟结构变成了出烟室，出烟室除了排烟外，还有控制火焰流速的作用，窑工们对窑温的控制更加得心应手。

## 五 相关问题

### （一）窑炉坡度与出烟室

由以上窑炉资料，可以观察到这样一个现象：北宋包括南宋的一些窑炉，坡

度多为前陡后缓，如石马弄Y1，寺龙口Y1，但是南宋时期也有一些窑炉坡度为前缓后陡，如金窑岗BY25，山头窑3号窑址BY13，山头窑5号窑址BY15，郊坛下官窑等。那么这是偶然的现象，还是与窑炉结构有关？

经仔细分析窑炉结构笔者推测窑炉坡度所出现的这种变化可能与窑炉尾端出烟室的出现有关。相关资料在描述唐宋时期浙江地区烧造青瓷的龙窑窑炉尾端的排烟情况时出现了两种说法：“排烟坑”和“出烟室”。关于排烟坑的情况，以石马弄1为例[图四]，其排烟坑较为简易，“为凿穿基岩的浅坑，略宽于挡火墙，其北侧较为规整，南侧已残破，宽约0.5，残深约0.37米。因遭烟熏火燎，坑内存有大量灰烬”。而出烟室的构造则较前者复杂，山头窑3号窑BY13，山头窑5号窑址BY15，金窑岗BY25等南宋时期的窑炉均有较为完备的出烟室：一般由挡火墙，烟火柱，烟火弄，后壁和出烟孔所组成，挡火墙筑于窑室和出烟室之间，多为填满黄土的匡钵平砌错缝筑成，烟火柱位于挡火墙的底部，多用匡钵平叠构成，烟火柱的数量不等，烟火柱之间留有的空隙即为烟火弄，当平流的火焰受到挡火墙的封堵时，则被迫形成倒焰从下部的烟火弄流向外烟室。出烟室除了排烟之外，还可以调整火焰的流速，比如山头窑5号窑址BY15，其窑炉基本呈东西向，在窑尾的出烟室“后壁较为特殊，其底部先挖一条宽0.88，深0.38米的凹槽，凹槽的两侧均置有匡钵，其中西侧的以两个匡钵上下相叠柱为一组，共计六组，各组间相隔0.08—0.16米不等，其结构颇像烟火柱。东侧的匡钵排列密集，并上下相叠成四个阶梯形。此种罕见的出烟室结构，很可能与控制窑内的火焰相关”<sup>38)</sup>，又如金窑岗BY25“后壁已被破坏，仅残存两个烟火柱，系用三个同样大小的匡钵平叠而成，间隔其间的烟火弄宽0.12米，并用砖和匡钵片填实，推测是用来调节火焰流速的”<sup>39)</sup>，也就是说，出烟室的构造，除了排烟外，还为了更好地控制火焰流速。

根据资料，山头窑号窑BY13，山头窑5号窑址BY15，金窑岗BY25等南宋时期的窑炉坡度前缓后陡，在窑炉结构上无一例外出现了出烟室，但是再向下追溯，元代的杉木林1号窑EY16y3其坡度为前陡后缓(前后段为14度，中段为16度)，但在窑炉尾端也出现了出烟室，那么是否可以这么理解，出烟室的出现，使得窑工们对火力的控制更加得心应手，可以应付窑炉尾部变陡带来的火力过旺不好控制的弊端，由此使得南宋以后窑炉的坡度变化较为自由，既可以

38) 前揭《龙泉东区窑址发掘报告》页83。

39) 前揭《龙泉东区窑址发掘报告》页203。

前缓后陡，也可以前陡后缓？总之，窑炉坡度的变化与出烟室之间有没有必然的联系，还有待于进一步探讨。

## （二）素烧炉

在唐宋时期浙江地区烧造青瓷的窑炉中除了龙窑之外，还有馒头窑，主要存在于南宋官窑的窑场之中。除了郊坛下官窑<sup>40)</sup>，在老虎洞南宋官窑发现有三座马蹄形馒头窑[图五：1，2]，以1号馒头窑为例：

1号馒头窑位于窑址西部偏北处，南邻9号作坊遗迹，北距1号龙窑的窑头约2米，窑内堆积主要为大量倒塌的窑砖和渣土及少量素烧坯残件。方向为56度，由火膛，窑床，出烟室和护墙四部分组成。总长1.8，宽1.22，残高0.89米。火膛呈半圆形，长0.66，宽0.92米，低于窑床面0.22—0.32米，火膛口宽约0.32米。火膛底部发现大量木炭灰烬(说明燃料是木柴)。窑床为横长方形，两壁略鼓，长0.78，宽0.99米。窑壁用长18，宽8，厚5厘米的长方形条砖砌筑，后壁有方形烟火孔5个。窑底较平整，铺有长方形砖，但大部分已无存。出烟室呈半圆形，长0.18，宽0.82，残高0.5米。底部与5个烟火孔相通，也用长方形条砖砌筑。部分烟火孔内塞有砖块，以调节排烟量。护墙在窑壁外，间隔约0.3—0.4米，用碎砖和废窑具平砌而成，厚约0.16米。火膛前端左右两侧护墙呈“八”字形，护墙内侧用黄粘土填充，其目的是为了保温。窑门前有大量木炭灰烬<sup>41)</sup>。

从以上描述可知，南宋官窑所用的馒头窑应为半倒焰式。馒头窑一般可分为全倒焰式和半倒焰式两种，两者均主要由窑门，火膛，窑床，吸火孔(排烟孔)和烟囱组成。前者吸火孔位于挡火墙的底部，利用火焰上升的力量和烟囱产生的抽力，使得火焰顺着窑顶的弧度向后壁从吸火孔经烟囱排除窑外；后者吸火孔设在窑床之上，燃烧室分散在两侧或四周，火焰从窑底的燃烧室上升到窑顶，然后再从上而下压向坯堆或匣钵柱，经坯件和匣钵柱中间，从吸火孔经窑

40) “位于F3和F4之间的室外空地上，其东北约2米为练泥池，南面近3米处即是F4素烧坯堆。上部均遭破坏，仅见低于F3，F4地面的火膛。平面略呈马蹄形，方向与F3，F4一致。通长80，火膛宽67，口宽28，残深16厘米。烧结的火膛厚3厘米。火膛内堆积有红烧土，碎红砖，少量素烧坯碎片，火膛底有黑灰。火膛周围1.5米直径范围内，有厚达5—10厘米的烧土层，分布形状与火膛一致，略呈马蹄形，推测可能为炉基范围。在炉膛前方，发现大量散布于地面的素烧坯堆积，故推定该遗迹为低温烘烤坯件的素烧炉”。参见前揭《南宋官窑》页14。

41) 前揭《南宋官窑》页42。

底火槽，烟囱排出窑外<sup>42)</sup>。浙江地区烧造青瓷的窑场中出现馒头窑，仅于战国时期在萧山地区见过一例，此后至南宋官窑以前，并未有其踪迹，南宋官窑以后即又消失不见，由此推测南宋官窑中出现的馒头窑并非是顺着本地区窑炉的发展脉络形成的，《坦斋笔衡》中有载：“中兴渡江，有邵成章提举后苑，号邵局，袭故京遗制，置窑于修内司，造青器，名内窑”，所以其出现很可能是“袭故京遗制”，沿袭北宋官窑而来。开封所在地区正是馒头窑流行的中心地带，虽然北宋官窑现已难寻，但开封的北宋官窑是继承北方馒头窑的传统技术而建的，这一点是毫无疑问的，很有可能是宋室南迁后，南宋朝廷为恢复官窑，集合流落于南方但曾效力于北宋官窑或者贡进北宋宫廷瓷器相关窑场的窑工，并浙江地区烧造越窑和龙泉窑的其他优秀窑工，开始烧造南宋官窑瓷器，负责素烧的馒头窑和负责青瓷烧造的龙窑一起出现于南宋官窑窑场，正式南北方烧造技术互相融合的结果。

正如前文所述，在南宋官窑窑场中，馒头窑是作为素烧炉而出现的，这一点颇为值得注意。素烧而瓷器制作过程中一个特殊的环节，在提高瓷器质量方面具有重要作用：“坯体经过900℃左右的素烧，可以挥发的有机物质和水分，大部分都挥发了，部分盐类已经分解，釉烧时，很少有挥发成分通过釉面导致生成桔釉（针孔群），气泡，溶洞等缺陷而影响瓷器的色面，是提高釉面质量的重要措施；素烧后的坯体强度大，施釉破损低，可制成薄壁产品。同时吸水性强，施釉速度快且吸釉均匀，釉面平滑光润，并且釉可一次施成…施釉后的素烧坯，转至另一面后水分已经吸干，擦去制品底沿的釉药，不再干燥，即转至装匣部分入匣…坯体素烧后可以发现半成品的很多质量缺陷，提前扔掉或返工，从而能提高釉烧的成品率和折正率<sup>43)</sup>。素烧技术可达成的这些效果，非常有利于南宋官窑薄胎厚釉特征的形成，坯体强度大施釉方便，有利于多次施釉，素烧后可提前发现瑕疵并提高釉面质量则有利于烧成高质量的青釉瓷器。关于素烧技术，早在唐代就已出现，到了宋代应用逐渐广泛，根据考古资料，出现素烧坯的窑址包括河南巩义黄冶窑唐三彩窑址，巩县窑，邢窑，黄堡窑，汝窑，张公巷窑，钧窑，老虎洞窑官窑，郊坛下官窑和龙泉窑<sup>44)</sup>。就浙江地区而言，在南宋以前未见有素烧技术的出现，龙泉窑也是从南宋时期开始才出

42) 参见前揭《东亚窑业技术发展与交流史研究》页28—34。

43) 本刊（《景德镇陶瓷》）资料组：《素烧的作用》，《景德镇陶瓷》1973年第2期。

44) 参见张东：《宋代若干窑场多次烧造现象研究》，《上海博物馆集刊》2005年第10期。

现素烧，多次烧造工艺，“在龙泉窑中发现素烧坯的地方都是在龙窑附近，其龙窑的形制都较为短小，没有发现用马蹄形窑来烧造瓷器”<sup>45)</sup>”，并且向下追溯，在元代龙泉东区杉木林窑址EY16中即有多处素烧炉，为小型的龙窑(以S1为例，其炉身总长4.74，宽0.8—0.9，残高0.33—0.6米)<sup>46)</sup>，根据以上可以推测，南宋时期龙泉窑址有可能也是使用小型龙窑进行素烧。

也就是说，南宋时期，浙江地区的老虎洞官窑，郊坛下官窑和龙泉窑开始使用素烧技术，根据上文的分析结果，南宋官窑的素烧技术来源可能是北宋官窑，汝窑等北宋时期负责贡进御用瓷器的窑场。此前南方地区的窑场中少见素烧技术的应用，因此要追溯龙泉窑的素烧技术的源头，只好猜测其是受到南宋官窑的影响，或者是宋室南迁后来到浙江地区的北方窑工将这一技术传了过来。那为什么同样是素烧，却存在用馒头窑和龙窑的区别呢？用馒头窑进行素烧，是否也可以看成是烧造宫廷用瓷器的南宋官窑区别于烧造普通瓷器的龙泉的特征之一？这是一个值得思考的问题。如果是这样的话，在龙泉溪口窑等地发现了薄胎厚釉龙泉青瓷，部分器物的型式与南宋官窑较为相似，但是尚未发现有素烧炉(尤其是馒头窑素烧炉)的出现，如果在今后的考古工作中能够有相关发现的话，无疑可以成为联系龙泉黑胎瓷器与南宋官窑瓷器之间关系的重要一环。

## 六 结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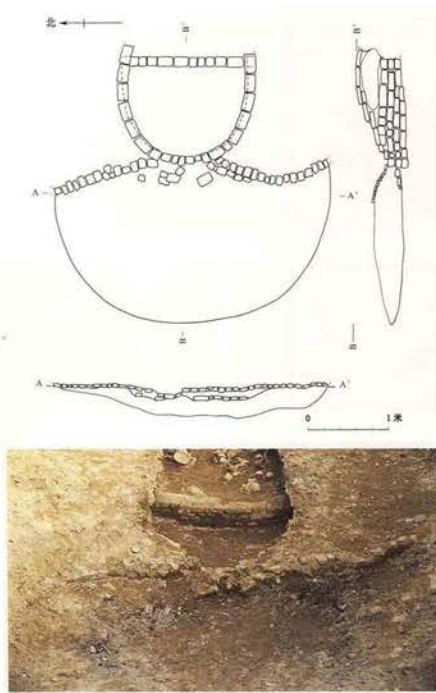
综上所述，唐宋时期浙江地区烧造青瓷的窑炉为龙窑，南宋官窑(包括郊坛下官窑和修内司官窑)在素烧时使用了馒头窑。根据这一时期龙窑的发展情况，可以将其大致分为唐早期，中晚唐至北宋和南宋三个阶段，根据整个窑炉不同的组成部分，可以将其分为窑头，窑身和窑尾三个部分，每部分又有若干子结构组成，在不同的发展阶段，各部分的结构也不断地调整和前进，不断适应着当时瓷器烧造的技术需求。南宋官窑窑场中所出现的馒头窑素烧炉是浙江地区青瓷烧造中较为特殊的一种现象，但是对它的进一步研究有助于为推进瓷器史中的一些重大问题，如宋代官窑问题提供佐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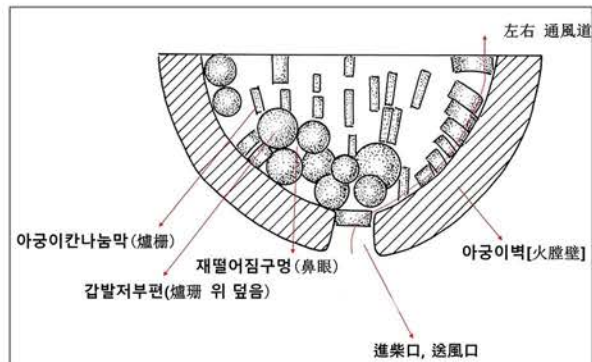
45) 前揭《宋代若干窑场多次烧造现象研究》。

46) 前揭《龙泉东区窑址发掘报告》页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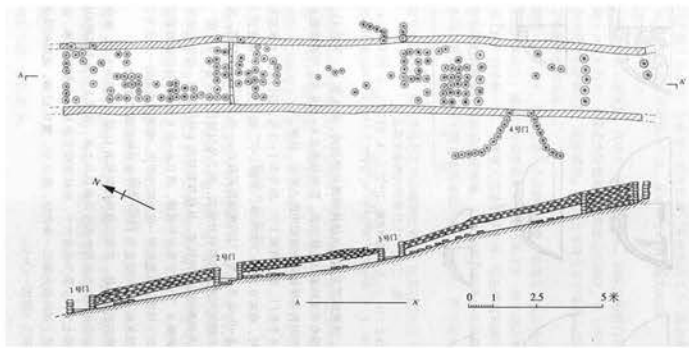
图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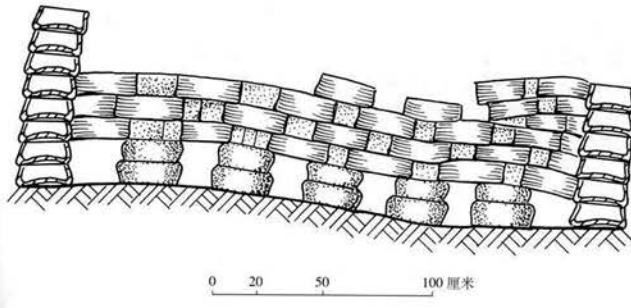
【图一：1】 寺龙口Y1火膛(采自《寺龙口越窑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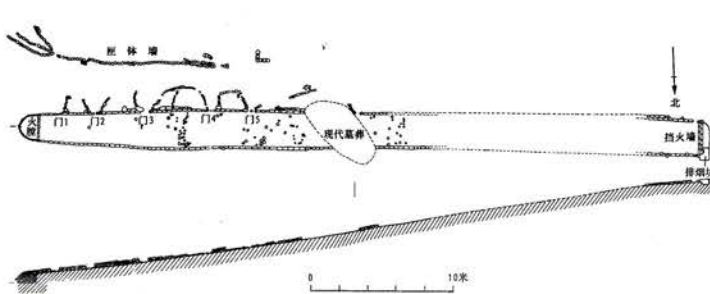
【图一：2】 火膛细部，以龙泉山头窑3号窑址BY13为例



【图二】窑门开于窑身两侧，以金窑岗窑址BY25为例  
(采自《龙泉东区窑址发掘报告》)



【图三】金窑岗窑址BY25挡火墙(采自《龙泉东区窑址发掘报告》)



【图四】石马弄Y1窑炉，后部为排烟坑  
(采自《浙江慈溪市越窑石马弄窑址的发掘》，《考古》2001年第6期)



【图五：1】

【图五：2】

【图五：1】 老虎洞修内司官窑素烧炉(馒头窑)之一

(采自《南宋官窑与哥窑：

杭州南宋官窑老虎洞窑址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图五：2】 老虎洞修内司官窑素烧炉(馒头窑)之二

(采自《杭州老虎洞窑址瓷器精选》)



[表一] 唐宋时期浙江地区烧造青瓷龙窑基本资料

时代	窑系	窑号	窑向	窑长(米)	窑宽(米)	窑高	坡度情况(度)	窑壁情况	窑门情况
唐代早期	越窑	木勺湾 Y3	南稍偏西	残长2	2.7	残高45厘	未见记载	砖叠砌	未见记载
		木勺湾 Y4	南略偏西	残长10.2	2.65	残高15—23厘	未见记载	砖叠砌	未见记载
		黄家庵 Y5	正北	残长21	2.15	未见记载	未见记载	砖叠砌	未见记载
		横塘山 Y23	正南	未见记载	2.2	残高40厘	未见记载	砖叠砌	未见记载
		皮刀山 Y42	正西	未见记载	未见记载	残高40厘	未见记载	砖叠砌	未见记载
		黄婆岙 Y90	北略偏东	残长11	2.3	残高15—20厘	未见记载	砖叠砌	未见记载
		大办山 Y91	正北	未见记载	2.7	残高52厘	未见记载	未见记载	未见记载
		东阳歌山	未见记载	残长12	1.6	估计1.1	未见记载	利用丘陵斜坡深挖夯打而成	未见记载
唐五代	越窑	黄鳝山 Y26甲窑	未见记载	未见记载	2.35	残高50厘	未见记载	砖叠砌	未见记载
		黄鳝山 Y26乙窑	未见记载	残长1.5	未见记载	残高35厘	未见记载	砖叠砌	未见记载
		黄鳝山 Y26丙窑	未见记载	未见记载	2.1	残高16厘	未见记载	砖叠砌	未见记载
		黄蛇山窑	未见记载	未见记载	未见记载	未见记载	未见记载	砖叠砌	未见记载
		窑山窑	未见记载	未见记载	未见记载	未见记载	未见记载	砖叠砌	未见记载
		荷花芯 Y37	未见记载	残长41.83	未见记载	未见记载	13度	砖叠砌	7个
北宋	越窑	荷花芯 Y36	方向296度	长45.9	最大宽度2.7 尾端宽2.1	残高5—20厘	12度	砖叠砌	9—10个
		石马弄 Y1	头东尾西	长49.5	1.9—2.4	残高0.1—0.35 推测窑壁原高1.3	前陡后缓 前段为10 后端为5	砖叠砌	尚存5个
	龙泉	金钟湾 BY22	未见记载	残长49.5	未见记载	残高0.1—1	倾斜度 前后不一 头部为8 中部为16 尾部为10	砖叠砌	14个
南宋	越窑	寺龙口 Y1	近正东西	长49.5	未见记载	残高0.5	前中段 9—12 尾部稍缓 为4—6	砖叠砌	11个

	低岭头	近东向西	长50	约2	残高30厘	12	砖叠砌	11个
龙泉	金窑岗BY25	336度	残长22	中部宽2.1 后部宽2.3	残高0.5—0.8	前段11 中段8 尾段11	砖叠砌	4个西侧 3个东侧 1个
	山头窑3号窑址BY13	49度	总长82	头部宽1.48 中部宽2 尾部宽2.5	残高0.2—1	前段15 中段12.5 后段15	砖叠砌	17个
	山头窑5号窑址BY15	278度	残长59.7	窑头宽1.9 中部宽2.3 尾部宽2.35	残高0.4—1.1	前低后高 13度倾斜	砖与匣钵平起错缝	11个
南宋官窑	郊坛下官窑	235度	长23与37.15	窑头宽1.4 窑身中腰宽1.85 窑尾宽1.8	残高五六十厘 复原后约1	前低后高 前段11.5 后段13.5	砖叠砌	未见记载
	修内司官窑1号龙窑	55度	长15	宽1.35—1.98	残长0.35	未见记载	砖叠砌	未见记载

## 「最近 出土 康津 高麗靑瓷의 意義」에 對한 討論文

田勝昌(아모레퍼시픽미술관)

토론자는 여러 발표 가운데 초기청자의 성격 규명에 관심이 많아 이종민 교수님의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출토품의 현황과 성격」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청자 가마터와 유물은 다양한 연구 성과나 각종 전시 등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으며, 고려를 넘어 중국, 일본과의 문화 교류나 영향 관계를 밝히는 데에도 그 중요성이 재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한 유구와 출토품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 대부분이 앞으로 밝혀야 할 대상과 내용입니다. 따라서 최근 강진 청자 가마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물론 그 성과를 새롭게 살펴보는 오늘 학술 세미나는 고려청자 연구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종민 교수님은 그동안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용운리 63호 청자 가마터의 유구와 유물의 특징, 요업 시기를 비롯한 성격에 대한 문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즉, 유구와 유물에 대한 현상을 검토하고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초기청자와 조형적, 기술적 관계를 비교하여, 용운리 가마의 운영시기와 요업사적 성격이 무엇인지 도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는 용운리 63호 가마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강진의 청자 가마와 나아가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는 초기청자 전반에 대한 변화와 의미를 다시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도자사 연구에 기여하는바 역시 크다고 판단됩니다.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운리 63호에서 출토되는 A유형과 B유형, 두 계통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문에서는 A유형인 ‘내저꼭면에 선해무리굽을 가진 완’과 상대적으로 질이 좋지만 내저면에 원각이 선명하게 있는 것도 아닌 B유형의 ‘과도기 해무리굽완’이 함께 발견되는 것을 지적하며, 이처럼 차이가 존재

하는 것은 수요 대상에 따른 상품성의 차별화를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경기도 용인 서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시간적 선후 관계를 갖고 있는 퇴적 4층(최하층)에서 3층, 2층으로 가며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고, 이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용운리 63호 출토품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로 해석할 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토축요인 강진 용운리 63호가 전축요 이후의 단계에 운영된 것이 분명하다는 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가마를 짓는 방식과 재료의 변화를 기준으로 벽돌을 사용한 전축요가 진흙으로 지은 토축요에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민 교수님의 지적처럼, 용운리 63호 출토품이 전축요의 청자와 공통점이 많고 중서부 지역의 특징보다는 서남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요업 방식을 택한 것이라면, 중서부의 전축요가 한참 운영되던 시기에 서남부에 새로운 생산기술을 채택한 토축요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일찍 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셋째는 용운리 63호 가마는 얼마나 특별한 곳이었는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이종민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용운리 63호 가마의 경우 이곳에서 제작된 유물과 요도구 등은 중서부 전축요의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하지만, 가마와 운영방식 등은 다른 지역과 달랐다는 의미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다른 지역의 토축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혹은 용운리 63호에만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궁금합니다. 또한 교수님은 용운리 63호의 조업 시기나 완의 형식 변화가 용인 서리 퇴적이 3층에서 2층으로 바뀌는 시점, 즉 서리 가마가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변화되는 시점의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리 2층 퇴적에서는 완의 경우, 완전하게 한국식으로 변화된 해무리굽의 제작과 수량이 압도적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즉, 용운리 63호 청자와 서리 2층 퇴적의 유물은 두 곳 모두 토축요에서 제작된 것은 맞지만, 용운리 토축요에서 출토된 유물은 서리 3층(2층보다 선행), 즉 전축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과 유사한 특징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용운리 63호 가마는 토축요 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곳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最近 出土 康津 高麗靑瓷의 意義」에 對한 討論文

金炫廷(國立中央博物館)

최근 강진에서 조사된 가마터를 포함한 고려청자와 중국 浙江地域 가마터 분석 등 여러 발표가 있었는데 토론자는 이 가운데 사당리 43호 가마터와 용운리 63호 청자 가마터 출토품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한성욱 선생님께서는 논고에서 사당리 43호에서 “봉통부와 번조실을 연결하는 불턱의 경우 초기에는 전통 도기의 기술을 이어받아 뚜렷하지 않으나 비색청자가 완성되는 중기가 되면 뚜렷한 불턱이 등장하여 중국의 기술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가마가 폐기된 후 인위적으로 가마 내부를 매립한 흔적이 확인되어 대구소 가마 운영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송대의 관요 운영과 유사한 면을 보여 주고 있어 특징적이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뚜렷한 불턱의 등장이 중국의 기술을 수용이라고 하신 점과 가마 내부 매립의 흔적이 중국 송대 관요 운영과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령 뚜렷한 불턱이 중국 기술의 수용과 관련이 있는지, 혹은 비색청자 완성에 이 뚜렷한 불턱이 영향을 준 것인지에 관해서입니다. 아울러 가마 내부를 매립한 것이 중국 송대 관요에만 나타나는 특성인지, 이것이 송대 관요적 운영 방식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2) 이종민 선생님께서는 ‘토축요로 조업을 시작한 용운리 63호는 청자 조형(기종, 기형, 유색, 유층, 유면의 현상, 굽 각음새, 내화토, 갑발과 받침대 등)은 대부분 전축요의 그것을 따르고 있으며, 조업 시기는 토축요가 전축요보다 후행한다는 고고학적 근거, 완의 형식변화에 주목하여 용

인 서리 퇴적의 3층에서 2층으로 바뀌는 시점의 출토품과 유사한 점, 전축요의 폐요 시간대를 고려하여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사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강진에서 요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용운리 63호는 전축요의 생산기술과 조형을 계승한 가마이고, 축요재나 축요 방식, 초벌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처음 시도한 가마이며 강진의 청자 제작이 중서부지역 전축요의 조형과 생산기술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기술하셨습니다.

첫째는 용운리 63호에서 출토된 과도기적 해무리굽이 용인 서리 3층과 2층 사이에서 출토되었고, 전축요(4층-3층)에서 토축요(2층)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를 조업의 시기로 보셨습니다. 용운리 63호에서는 다른 출토품인 내저곡면 선해무리굽과 과도기적 해무리굽이 층위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층위가 구별이 된다면, 조업 시기와 기술 이전 과정 등에 대해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축요재나 축요 방식, 초벌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처음 시도된 가마로 토축요를 활용했다는 점인데, 도기 생산지역에 청자 기술이 들어온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을 수 있다면 청자 가마와 도기 가마와의 관련성과 영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最近 出土 康津 高麗靑瓷의 意義」에 對한 討論文

曹銀精(康津靑瓷博物館)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에 대한 학술적 중요성과 도자사적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실시된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가 있었는데 토론자는 가마터를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 1. 「강진 사당리 43호 청자요지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토론문

사당리 43호 가마는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청자 가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전부부터 변조실 끝의 초별칸까지 비교적 잘 남아 있어 가마 구조 연구에 중요한 유적이다. 음성 생리와 대전 구완동, 용인 보정리, 해남 진산리 17호 등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가마 역시 사당리 43호와 마찬가지로 수직의 불턱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발표자는 이에 대해 중국의 기술을 수용하여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기술의 수용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려 초 월주요의 청자제작 기술 수용 시에 중서부 지역의 전축요는 가마 구조뿐만 아니라 출토유물에서도 중국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고려 중기에 와서 가마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 중에 불턱만 새로 등장하는 것이 대외적인 영향의 결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만약 외부로터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여러 요장 중에 어떠한 요장과의 연관성이 가장 깊은지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한다.

## 2. 「강진 사당리 43호 요지 출토 청자의 현황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사당리 43호 가마의 출토유물은 대체로 고려 중기에 해당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1호 수혈 폐기장을 중심으로 고려 후기의 청자 편이 많이 출토되었다. 사당리 43호의 요업이 시작된 시점이 고려 12세기 전반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며, 발표에서 과제로 남겨둔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1) 2호 수혈 폐기장에서 출토된 ‘彦臣’銘 청자발을 보면 다른 청자 유물의 人名 표기 방식과는 다른 점이 특징적이다. 기존의 명문 표기 방식은 대체로 굽의 안바닥에 표기되는 경우가 많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반해 사당리 43호에서 출토된 ‘彦臣’銘 청자발은 잘 보이는 그릇의 내면 벽에 사방의 방사선 방향으로 같은 이름이 네 번 반복되는 규칙성을 갖고 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명문 표기 방식이 확인되는 유물이 한 점 있는데, 기법은 목서로 썼다는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에서 출토된 발에는 다섯 개 방사선 방향으로 발의 안쪽면에 ‘己巳 / 三月 / 十五日 / 金瓚壽 / 置表’라고 크게 쓰여 있다. 이것은 墓主人 김찬수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무덤 위치를 잡아놓고 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형은 내면 구연 아래에 음각선이 한 줄 있고 측선이 저부에서 구연까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한 것이다. ‘彦臣’銘 청자발이 가마 유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2호 수혈 폐기장에서 확인된 점, 발의 내면에 포개구이를 한 내화토빔 음 받침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인명을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彦臣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2) 사당리 43호 청자 가마의 운영기간, 즉 운영기간의 하한에 관한 것이다. 발표자는 해무리굽완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요업의 시작점은 12세기 1/4분기 말이나 2/4분기 초로 보았는데 이러한 추론에는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운영기간에 대해서 14세기 말까지 간헐적으로나마 요업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는 의문이 든다. 삼흥리 E지구, 용운리 10-II층의 출토 유물을 근거로 하여 고려말 상감청자류가 함께 확인되는 사당리와 계율리의 유사한 양상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근거로 든 삼흥리 E지구 출토 상감청자 발이 확인된 위치가 가마는 물론 퇴적층과는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발굴면적의 우측 표토 바로 아래에서 출토되거나 사당리 43호 1호 수혈 폐기장처럼 부정형의 마유구라고 하는 곳에서 확인되었다. 그래서 삼흥리 발굴 당시에도 E지구 청자 가마 운영시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용운리 10-II층에서 상감기법의 청자발에 융착된 상태로 출토된 소형접시는 사당리 43호에서 출토된 소형접시와는 그 기형이 약간 다르다. 용운리 발굴보고서의 형식 분류에서도 H형식과 R형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사당리 43호에서



출토된 소형접시는 H형식으로 태안 대섬에서 대량으로 확인된 것은 물론 13세기 1/4분기에 해당하는 태안 마도 1호선과 2호선, 1260년대 전후한 마도 3호선에서도 소량 확인되는 기형이다. 용운리 10-II층에서 출토된 R형식의 소형접시는 H형식보다 후행하기 때문에 고려 후기의 상감청자와 동시에 번조되면서 용착되었을 개연성이 많다. 그리고 고려 말에도 사당리 43호 가마가 운영이 되었다면 퇴적에서 고려말 상감청자의 기형과 문양을 보이는 초벌 편이나 혹은 상감청자 편이 용착된 요도구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도 가마 운영기간을 고려 말까지 내려보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 3.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출토품의 현황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발표에서는 강진의 많은 청자요지 중에 용운리 63호 요지가 전축요의 생산기술과 조형을 계승하면서도 전축요와는 다른 생산체제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갑발에 표기된 기호와 통기공은 전축요와는 다른 생산체제하에서 도자기의 선별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경에는 비슷한 시기에 지방 통치체제가 갖추어졌다는 것에 제도적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렇다면 용운리 63호 운영시기 이후에 청자를 생산한 가마들의 생산체제까지 범위를 넓혀서 질의하고자 한다. 전축요 생산품과 유사한 청자를 제작한 강진 용운리 63호와 장흥 풍길리,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고흥 운대리 1호와 해남 신덕리 D지구가 운영되다가 장흥, 고흥, 해남은 요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강진 용운리와 삼흥리를 중심으로 태토와 유약의 질이 좋아진 해무리급완을 생산한 요지 수가 증가하는 것이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현재로서는 자기소의 출현 시기에 대해 어떠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론에 불과하지만 발표자가 언급한 요도구의 변화와 함께 청자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면서 강진의 청자요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도적 변화가 확립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